

절이 싫은 스님, 절을 세우다

국보 제8호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
(保寧 聖住寺址 郎慧和尙塔碑) ▶2면

현대불교

hyunbulnews.com

자기가 얻은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남을 부러워 하지도 말라.
남을 부러워하는 자는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한다. -법구경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865호 2011년 12월 7일 수요일 (음력 11월 13일 · 불기 2555년 · 주간)

"종교평화불교인선언 내년 상반기엔 발표"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 이하 추진본부)가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발표가 무산됐던 종교평화 불교인선언을 2012년 상반기에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11월 28일 상임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종정스님의 당부를 수용한 추가 작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본부장 도법 스님이 직접 종정스님을 예방해 구체적인 말씀을 경청키로 했다.

추진본부는 대중의 공의가 부족했다는 판단 하에 공청회, 집중토론회 등을 개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중의 공의 수렴을 위해서는 불교학 전공 교수 등 전문가와 선언에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인사들을 적극 참여시킬 예정이다.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혜일 스님은 "결사추진본부는 종교평화 불교인 선언을 위해 추후 일정들을 계속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선언문은 기존의 문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반영해 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종교평화 불교인 선언 발표식은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선언문을 개최키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교평화선언과 관련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차이점의 존중을 말하고 있으나 동시에 진리가 다르지 않다는 점에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어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초안부터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법응 스님은 최종안이 어떤 내용으로 발표되더라도 초안이 '신

도법스님, 종정 친견키로
공청회 · 집중토론회 계획도
반대 의견 팽팽해 미지수

학적 종교다원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이상 백지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22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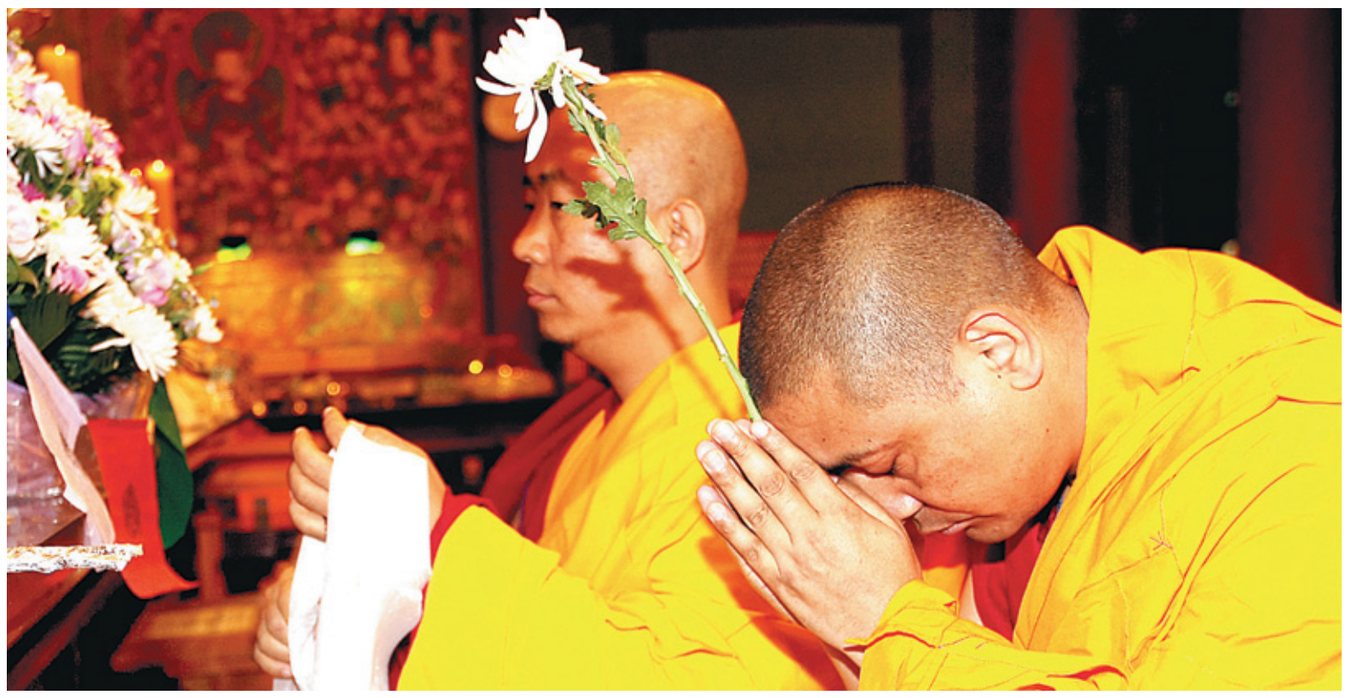
스님은 "유신, 유아의 이웃종교는 무아와 무신이라 한 부처님 가르침에 반하는 그릇된 가치관으로서 따르거나 동조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해야 옳으며 그래야만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계 일각에서 회자된 가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원칙의 천명과 실천' 안 5개항이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안은 불교인들이 우리사회 종교평화 실현을 위해 5가지 원칙을 지키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5가지 원칙은 ▷불교를 통해서만 평화와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겠다 ▷내 종교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종교도 소중하게 여기겠다 ▷내 종교를 선전하기 위해 이웃 종교를 비방하지 않겠다 ▷내 믿음을 전하기 위해 공적 지위나 권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어떤 갈등과 분쟁에서도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 등이다.

그러나 스님은 1~3항은 마치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직접 설한 것과 같은 것으로 착각이 들게 했고, 부처님이 경계하고 부정한 삼종외도(또는 6사외도)를 긍정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4~5항의 실천 안도 사실상 교단이 득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법응 스님은 "정상적인 불교인의 입장에서는 동의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단언한다. 선언문을 종정예하와 원로대종사님께서 추인 시 종단은 물론 한국불교계가 이(理)와 사(事)적으로 대 혼란이 예상된다. 종지 부재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티베트에 자유의 꽃 피어나길"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와 티벳하우스코리아가 티베트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소신공양한 스님들을 기리는 추모제를 12월 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마련했다. 티베트에서는 현재까지 13명의 스님들이 소신을 단행했다. 이번 추모제는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조계종과 조계사, BTN 후원으로 진행됐다. 추모식 후에는 참가자들이 함께 조계사 경내에서 촛불 기도를 올렸다.
지관 스님은 호소문을 통해 "티베트인들에 대한 중국의 무력행위 중단을 촉구한다. 중국이 '공생공존, 자유와 평화'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호소한다. 하루 빨리 티베트의 평화가 오길 부처님 전에 기도 한다"고 말했다.
글=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 사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염불 · 간경 · 참선 함께하는 결사

금강선원, 2039년 5월 17일까지 보살사상 만일결사

〈화엄경〉을 비롯한 불교경전들을 우리말로 풀어내며 역경사업에 한 획을 그었던 탄허 대종사의 정신을 잇는 만일결사가 선포됐다.

조계종 금강선원(선원장 혜거)은 11월 26일 서울 강남구 '탄허대종사 기념박물관'에서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맞아 보살사상 만일결사 선포식을 개최했다.

금강선원이 주창하는 보살사상은 나에 대한 집착을 끊어 사회 갈등을 타파하자는 적극적 실천운동으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만일결사 삼대강령으로는 '올곧은 마음' '깊은 마음' '대자비의 마음'을 내세우고 있다.

결사는 염불, 간경, 참선 세 가지 수행 파트로 나눠 진행된다. 매일 소리 내 '관세음보살'을 3000번 염불하는 염불회, 〈금강경〉을 하루 2독하는 독송회, 좌선을 매일 1시간씩 하는 참선회가 그것이다.

염불과 간경, 참선을 함께 하거나 하나만 하여도 상관없지만 주가 되는 수행을 선택해야 한다. 5명이 한 팀을 이뤄 한 달에 한번 수행을 살피는 자리를 갖기 때문에 수행과 함께 실천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팀으로 구성된 결사 참가자는 매일 수행을 기록, 일지를 써야 한다.

이날 결사 선포식에는 무비 스님을 비롯해 각성 스님, Btn회장 성우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 홍사덕 국회의원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만일결사의 뜻을 기렸다.

무비 스님은 보살사상 만일결사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께서 참선, 염불, 강경의 세가지 만일결사 공덕을 널리 베풀어 사람마다 건강하고 나라마다 기근으로 궁핍함이 없어 집집마다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발원했다.

혜거 스님은 인사말에서 "30년의 만일결사는 평생 살아갈 지침을 세워 스스로 약속하고 다짐하는 것이다"라며 "보살사상 만일결사운동을 다함께 실천해나가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법타 스님, 은관문화훈장 등 수상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 사진)이 은관문화훈장과 세계평화상을 수상한다.

법타 스님은 12월 7일 정부로부터 생존인물에게 주어지는 훈장 중 최고 영예인 은관문화훈장을 받는다. 북한불교 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관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점이다.

법타 스님은 평불협을 창립한 이후 1998년 남한 최초로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위원장 김용순)와 금강산 문화유적 복구 협약을 맺었다. 이후 스님은 신라 고찰인 금강산 신계사 복원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이후 스님은 조선불교도연맹중앙위원회(조불련, 위원장 심상진)와 북한 당국 조선문화보존총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평양 용악산 법운암 단청불사 및 삼존불 개금, 사리원 성불사 단청불사 및 삼존불 개금 등 북한불교문화재 보존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또 조계종을 대표해 고려시대 사찰인 개성 영통사 복원의 기초를 마련하고 천태종으로 하여금 기와불사와 진입로 도로공사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천태종의 대북불교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최근 조계종 민추본과 합동으로 낙후된 북한사찰 70개소에 대한 단청안료 지원도 했다.

한편, 법타 스님은 11월 29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뛰어난 공헌을 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수여되는 '2011 글로벌 피스 어워드'(세계평화상) 초종교 부문상을 수상했다.

노덕현 기자

사 령

신 규	최 정 희 (前 편집국장)	명)편집국 편집이사
	주 성 원	명)편집국 취재기자 신입(수습)
		이상 2명, 2011년 12월 05일부

北스님들 DMZ 관통 월남 추진

보선 스님 인도에서… WFB 한국대회 참가 독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이 "2012년 여수 엑스포 기간 중에 있을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한국대회에 북한 스님들이 비무장지대(DMZ)를 거쳐 참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11월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세계불교대회(Global Buddhist Congregation, GBC) 참석차 인도를 방문 중인 보선 스님은 "조계종이 주최하는 WFB 한국대회가 여수 박람회 기간인 내년 6월 11~16일 여수에서 열린다"며 "남북통일에 기여하는 의미에서 북한스님들이 제3국 대신 DMZ를 통해 남한으로 넘어와 대회에 참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WFB는 1950년 스리랑카에서 결성한 범세계불교기구로 2년마다 각국을 순회하며 대회를 열고 있다. 1990년 서울에서 처음 열렸으나 당시에는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지 않았다.

보선 스님은 인도 뉴델리에서 27일 나흘 일정으로 개막한 GBC 참가자들에게 남북한 불교계 상황을 설명하며 내년 WFB 한국대회에 많이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동섭 기자

865호 CONTENTS

종단 2
제6대 포교원 고불법회 봉행
전국비구니회 10대 집행부
총무원장 예방

사회 · NGO 3
동국대 학부 개편 논란
자연공원법 개정법 개정 회의

인터뷰 5
주호영 국회의원

학술 · 문화재 7
완주 화암사 극락보전 국보 승격



나눔 8
아름다운 동행, 아프리카 돕기





*이 광고는 본사의 입장과는 관계가 없으며 광고주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차기종정 추대와 관련,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스님들께 드리는 공개서한 - 제1신 -

조계종의 원로스님들은 물론 전 사부대중과 한국의 불제자들 그리고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지성들은 90년대 3차례의 조계종단사태를 (이하 종단사태)기억하실 것입니다. 특히 94년 종단사태의 주역들에 의해 주도된 종단 제도개혁은 조계종의 정체성 훼손은 물론 국가사회의 제반문제에 대한 불교계의 참여와 투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교교단으로서의 조계종의 성격을 크게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또한 최근 종교평화를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 (아쇼카 선언)에 대한 찬 · 반 논쟁에서 보듯이 제도권의 불교와 관련자들의 역량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차기 종정 추대를 계기로 종단과 불제자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용성내지 동산 문도의 한 사람으로서 종정 추대와 관련, 차기 소납의 견해와 입장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1.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은 종헌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조계종(이하 본종)의 신성상징과 종통승계의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 종단의 지존(종헌 제19조)입니다. 따라서 본종의 종정은 교조 석존 이래 전승해 오는 신성한 가르침과 제불 여래의 법통성을 계승해 나아갈 지도자가 추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장에 명시한 불교승단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격과 본종 종헌에 명시한 종정후보로서의 자격을 구족함은 물론 출가승단인 조계종의 정체성 나아가 조계선종이라고 하는 본종의 정통성을 지켜나갈 지도자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석존 이래 전승해 오는 제불여래의 법통성을 전승할 자격을 구족하거나 이에 버금가는 자격을 갖춘 대종사라면 누구도 종정으로 추대될 수 있다는 것이 소납의 견해입니다. 제불여래의 법통성에 관해서는 다음 제5항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90년대 종단사태의 치유와 여법한 화합을 위해서 소위 개혁종단 초대 종정이신 윤월하 노사께서 종단화합과 조계종의 정화이념 및 정체성 회복을 위한 교시를 발표하셨습니다. 또한 개혁종단 제3대 종정이신 법전 대종사께서도 '화합은 승단의 제1 덕목이요 생명'이란 전제 아래 화합을 위해 사면할 것을 교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로회의는 종단화합을 위해 사면할 것을 유시함과 동시에, 도원대종사와 종산대종사님께서는 원로회의 의장단으로서 개회중인 중앙종회에 가셔서 역사에 기록될 '절'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법불의인(依法不依人)' 등 불설을 악용한 전략적인 언어구사와 종헌규정과 율의 징계규정에도 반한 궐석심판에 의한 치탈(멸빈)과 같은 징계처분의 사면을 비불교적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비법불화의 결의로 종단장악과 징계를 자행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차기 종정은 이상과 같은 전략적인 언어구사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와 사명감을 가진 지도자가 추대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 원로회의와 종단 원로스님들께서는 승단이 불설에 입각한 장로들의 교시와 지도 아래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90년대 3차례의 종단사태와 제도개혁으로 인해 원로회의 위상이 격하되고, 가장 중요한 종단의 종책조정이 종회중심으로 조정되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불설에 입각한 갈마제도와 같은 선진화한 승단의 고유한 제도와 위계질서를 망각한 채 종단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에서 진정한 개혁이란 교조의 근본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불교종단의 경우는 불교의 본질적 가치의 종(宗)과 가치의 표현형식으로서의 교(敎)로 어떻게 시대사회에 적응시킬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94년 종단개혁은 본래 민중의 권력 · 지배를 의미하는 민주(화)를 개혁이념으로 천명하고, 세간의 선거제도를 확대 · 답습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의 종단현실입니다.

4. 석존 이래 전승해 오는 제불여래의 법통을 계승해 나아갈 차기 종정은 여법화합갈마(如法和合羯磨)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히 추대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문중과 계파를 초월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단 내 종래의 문중과 계파는 대승열반경 계통에 속하는 대반니원경에서 말하는 3종의 승가 가운데, 청정의 승가로서가 아니라 동몽(童蒙)의 승가와 범죄(犯罪)의 승가로 전락해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소납은 용성 · 동산 문중에 속해 있지만, 현재 제도권의 일부 용성 · 동산문도는 용성 · 동산 · 성철로 계승되어 오는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문도의 근본정신과 올바른 전통을 처음부터 알지 못하거나 망각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용성노사께서 시류에 편승한 재가승(대처승)들과 같은 종단의 승수(僧數)에 들 수 없다는 신념과 불제자의 양심으로 종단에 제적원(除籍願)을 제출하신 투철한 신념과 자세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5항부터 3면에 계속 →

어린이·청소년 포교 매진을

조계종 제6대 포교원 고불법회 봉행…글로벌 포교 다짐

"종단 중흥의 두 기둥 중 하나인 '포교' 불사의 소임을 수행하는 포교원장으로서 부처님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고불·발원 하옵니다."

조계종 제6대 포교원장으로 임명된 지원 스님이 11월 26일 오후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고불법회에서 '환희와 감동의 포교'를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제6대 포교원집행부는 지속가능한 포교사업 계승과 함께 선택집중의 포교사업 수립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교국장 남전 스님은 제6대 포교원 사업기조 발표에서 "어린이·청소년 포교중심 도량 확대를 중심으로 제5대 포교집행부에서 실시했던 모든 사업들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18곳으로 지정된 어린이·청소년 지정 도량은 800곳 이상으로 늘리며, 어린이·청소년 신행법회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또한 전법단, 신도등록 사업, 신도품계제도, 한글의례화 등을 전문·확대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포교현장 중심으로 환희와 감동을 주는 포교를 진행하기 위해 ▷미디어 등 문화포교 기반 구축 ▷수도권 등 포교거점 확대 ▷공감하고 감동주는 포교프로그램 개발 ▷종단 포교역량 확대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고불법회에서 "사주계에서 '설사 경을 머리에 이고, 백천겁을 지내고, 이 몸이 법상이 되어, 삼천세계를 두루 할지라도 만일 법을 전하여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결국 부처님 은혜를 보답하는 이가 아니다'라고 했다"며 "큰 글로벌 포교를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부처님처럼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 하심하며 포교할 것"이라며 "군중 전법포교, 미디어 포교, SNS을 통한 글로벌 포교, 학술회 연구발표 등을 통한 포교로 자성과 쇄신의 5대 불사를 포교현장에서 구현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축사에서 "'환희와 감동의 포교'라는 모토로 교법을 홍포하고 중생을 교화한다는 소식은 한줄기 감로수 같은 시원함을 느끼게 한다"며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며, 종단의 역량과 조직을 강화하는 포교원의 활동에 교육원도 승가 교육개혁과 도제양성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 포교국장 남전 스님,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임희웅 포교사단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으며, 연합합창단의 축가와 권나영 씨의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김두관·최문순 지사 총무원 예방

김두관 경상남도 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11월 30일 예방했다. 이 자리에는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 쌍계사 주지 성조 스님, 통도사 주지 도명 스님이 배석했다. 종단은 불자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이들을 초청하고 경상남도와 강원도 교구본사 스님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김두관·최문순 지사는 전국 광역단체장 중 대표적인 불자로 알려져 있다.

자승 스님은 "불자라면 누구든 도울 생각이다. 교구 내 스님들과 교류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비구니회 발전이 곧 종단 발전"

신임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 총무원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11월 21일 전국비구니회장으로 취임한 명우 스님과 환담했다.

명우 스님은 이날 예방자리에서 전국비구니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자승 스님은 "전국비구니회가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총무원장 스님의 도움이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예방에는 총무원 문화부장 진명 스님과 사서실장 심경 스님을 비롯해 전국비구니회 부운영위원장 계호 스님, 기획실장 효탄 스님, 총무부장 경륜 스님, 재무부장 정엽 스님, 사회부장 보안 스님, 비구니회관 법융사 주지 지유 스님 등 전국비구니회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배석했다.

노덕현 기자

종단협, 태국 수해돕기 성금 전달키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조계종 총무원장)는 1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기2555년 제3차 이사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8억1600만원 규모의 불기 2556(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4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대회 결과보고 ▷기부금영수증 부정발급 예방의 건 ▷태국 홍수피해 성금전달 건이 논의·결의됐다.

회의에 앞서 종단협 산하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제2기 신임회장(김영애), 수석부회장(정정숙), 감사(최정희)에 대한 임명장이 전달됐다.

조동섭 기자



선본사 관리인에 덕문, 보문사 관리인 덕관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1일 경산 선본사 관리인에 덕문 스님, 강화 보문사 관리인에 덕관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자승 스님은 임명식에서 "직영사찰법에 의해 2년마다 주지 인사평가가 시행되는 만큼 열심히 해달라"며 "특히 선본사는 예산도 많고 종단적으로도 중요한 사찰인 만큼 공심으로써 잘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덕문 스님과 덕관 스님은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덕문 스님



덕관 스님

선본사 관리인 덕문 스님은 종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자운 스님을 계사로 1985년 사미계를, 1990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구례 화엄사 재정국장, 의왕 용화사 주지, 순천 선암사 주지, 총무원 호법부장, 강화 보문사 관리인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5대 중앙종회의원과 원로회의 사무처장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덕문 스님은 9월 제187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종회에서 직영사찰 관리인의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직영사찰법'이 개정돼 중앙종회의원 직을 사직했다.

보문사 관리인 덕관 스님은 금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청하 스님을 계사로 1992년 사미계를, 1996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덕관 스님은 총무원 감사국장과 재정국장, 은해사 호법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충주 세계사 주지 소임을 맡아왔다.

한편,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새로 임명된 스님들은 종단의 정서를 다들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며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된 만큼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임 호법국장 덕조 스님은 원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0년 송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4년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청운사 주지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총무원 사서국장을 역임했으며 청연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조사국장 무관 스님은 보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8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3년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불영사 주지와 총무원 호법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안일사 주지다.

조사과장 법원 스님은 보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6년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3년 보성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국제선센터 기획국장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눈으로 보고 가슴에 새기는 **우리 문화재 ⑦**

절이 싫은 스님, 절을 세우다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保寧 聖住寺址 郎慧和尙塔碑) 국보 제8호

충남 보령



성주사지는 통일신라 말 교종에 염증을 느낀 스님들이 선종사상을 펼치고자 열었던 구산선문 가운데 낭혜 화상 무염(801~888)이 개창한 성주산문이 있던 곳이다. 무염이 개창하기 전엔 오합사(烏合寺)라 했다. 옥마산(597m)과 성주산(689m)에 둘러싸인 첩첩산중 오지였으니 당연히 '까마귀나 모여드는 절'이었을 것이다.

성주사는 임진왜란 때 불타 지금은 낭혜화상탑비(국보 제8호)와 탑 3기·석등·석불 입상만이 남아있다. 국보 제8호인 낭혜화상탑비의 거북 얼굴은 일부분이 깨져 있으며, 머리 위쪽에 둥근 뿔이 나 있고, 뒤로 째진 눈에는 눈썹이 휘말려 있으며, 입은 마치 불을 내뿜으려는 기세이다. 등에는 선명한 이중의 육각무늬를 새기고, 중앙에는 제법 굵직한 구름무늬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최치원은 비문에서 '때로는 물을 길어 나르고, 땔나무를 나르는 일까지도 직접 하면서 산이 나 때문에 더럽혀졌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기도 하였다'고 무염의 인품을 적고 있다. 또한 비문에는 진골이었던 낭혜 화상 가문이 아버지 대에 이르러 6두품으로 낮아진 내용이 있어 신라 골품제의 변천을 엿볼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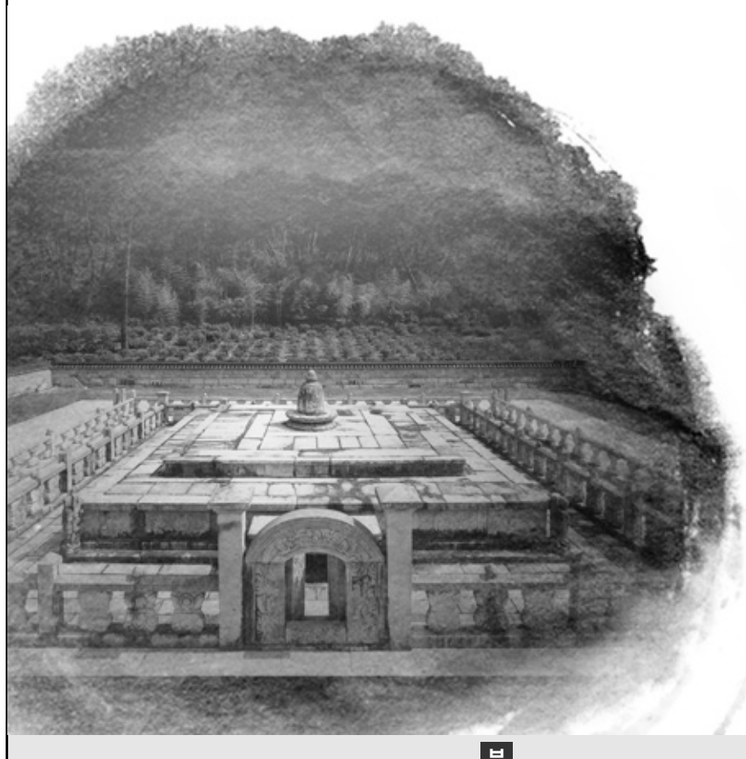
1000년 전 칠흑 같은 어둠 속, 석등의 불빛만 은은하게 타오르던 성주사의 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선정인을 한 채 삼매에 든 무염낭혜 화상의 모습을 그려본다. 제아무리 속인이라 할지라도 이 첩첩산중의 절간에 들면 더 이상 물들 일이 없을 터이니 저절로 무염이 될 게 아니겠는가.

조동섭 기자

박구원 만평



2011년 화엄산림 대법회



11월 25일(음 11월 1일) 금 ~ 12월 24일(음 11월 30일) 토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모아 禪, 敎, 律의 큰 스승들을 모시고 30일간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 그리고 선재동자의 금강과 같은 구법의 마음을 배우고 이 공덕으로 일체 유정과 무정들이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는 화엄산림을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 도명 합장

장 소 | 설법전

동참금 | 설판 제자 접수, 영가 1위당 2만원

문의처 | 화엄전 (055) 381-1288 종무소 (055) 382-7182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법성게, 일요일 오전 10시에 천도재를 모십니다.
※ 소원성취 1년등, 영가천도 1년등을 접수받습니다.

날짜	법문하실품	법사
• 11월 25일(금 음력 11/1)	입재법문 화엄경 현담	방장스님 도일스님
• 11월 26일(토 음력 11/2)	세주묘엄품	수진스님
• 11월 27일(일 음력 11/3)	여래현상품 보현삼매품	지안스님
• 11월 28일(월 음력 11/4)	세계성취품	재문스님
• 11월 29일(화 음력 11/5)	화장세계품	중선스님
• 11월 30일(수 음력 11/6)	비로자나품	지운스님
• 12월 1일(목 음력 11/7)	여래명호품 사성제품	혜거스님
• 12월 2일(금 음력 11/8)	광명각품 보살문명품	용학스님
• 12월 3일(토 음력 11/9)	정행품 현수품	종범스님
• 12월 4일(일 음력 11/10)	승수미정상품 수미정상게찬품	수불스님
• 12월 5일(월 음력 11/11)	오전 월하스님다례 / 십주품	보화스님
• 12월 6일(화 음력 11/12)	범행품	철우스님
• 12월 7일(수 음력 11/13)	발심공덕품 명법품	법산스님
• 12월 8일(목 음력 11/14)	불승야마천궁품 야마천궁게찬품	법광스님
• 12월 9일(금 음력 11/15)	십행품 십장품	반산스님
• 12월 10일(토 음력 11/16)	불승도솔천궁품 도솔천궁게찬품	우진스님
• 12월 11일(일 음력 11/17)	십회향품1-5	월파스님
• 12월 12일(월 음력 11/18)	십회향품6-10	덕문스님
• 12월 13일(화 음력 11/19)	십지품	지현스님
• 12월 14일(수 음력 11/20)	십정품	신공스님
• 12월 15일(목 음력 11/21)	십통품 십인품	종진스님
• 12월 16일(금 음력 11/22)	아승지품 여래수량품	원철스님
• 12월 17일(토 음력 11/23)	제보살주처품 불부사의법품	각성스님
• 12월 18일(일 음력 11/24)	여래십신상해품 여래수호광명공덕품	강주스님
• 12월 19일(월 음력 11/25)	오전 벽안스님다례 / 보현행품	도암스님
• 12월 20일(화 음력 11/26)	여래출현품	혜남스님
• 12월 21일(수 음력 11/27)	이세간품	성림스님
• 12월 22일(목 음력 11/28)	입법계품 휴사우바니까지	무비스님
• 12월 23일(금 음력 11/29)	입법계품(비목구사~바산사연주야신)	심산스님
• 12월 24일(토 음력 11/30)	입법계품 회향법문	주지스님

교통편 및 시간

부산지역 온천장 지하철역 앞(08:00~09:00) 〈본사차량 및 한솔고속관광버스〉

울산지역 공설운동장(07:30)→ 학성공원(07:35)→ 우정지하차도(07:40)→ 구 고속터미널(07:50)→ 공업탑R(08:00)→무거R(08:10) 〈부성고속관광버스〉

대중교통 KTX 울산(통도사)역 / 부산 노포동 종합터미널 /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 동대구 성남고속터미널

“이대로면 남는 학과 아무 곳도 없을 것”

동국대 학문구조 개편안 발표 앞두고 학내 구성원 반발 거세

특화 교육 정착 훼손 우려 목소리에 학교측은 “상승 효과 유도” 해명

동국대(총장 김희옥)가 학문구조 개편안(RE_START PROJECT)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학내 구성원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로 학과가 개편되는 학과생·교수·동문들의 반대 입장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국대는 올해 3월 ‘RE_START PROJECT’ 비전 선포식을 열고 학문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과정에서 학과간 통합 추진 계획이 알려지자 해당학과와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학교 측은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문예창작학과, 북한학과, 윤리문화학과 등의 학과 개편안을 만들었다. 이들 학과는 각각 국문과, 정치외교학과, 철학과로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학교 측의 ‘RE_START PROJECT’를 ‘교육 상품화’ ‘학과 구조조정’으로 규정하고 반대활동을 펼치고 있는 학생 연대기구 ‘우리 학문을 지키기 위한 동행’도 총회를 열고 최종 요구안을 11월 30일 발표했다. ‘동행’은 이번 개편안의 전면 철회와 학과 발전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윤리문화학과 출신 교사들도 2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학과 개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190여 윤리문화학과 출신 교사들이 중·고교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있다. 30년의 짧은 역사와 교직 선택 비율이 사범대보다 낮은 인문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작지 않은 성과다. 윤리문화학과 교사 동문들은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철학과로 통폐합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학교 당국의 일방적이고 대안 없는 구조 조정의 칼날이 일어날 경우 동국대 윤리 교사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역량은 타 대학으로 넘어갈 것이 분명하다. 교직에 진출하는 후배가 없는 동국대 윤리 교사들의 명맥은 끊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21일에는 윤리문화학과 총동문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학교 당국의 방침을 규탄했다.

문예창작학과도 국문과와의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 아고라 청원 등을 통해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문예창작과는 2001년 국문과와 분리 후 30여 명의 작가를 배출했다. 문창과는 이를 두고 10년 전 학과를 분리하면서 강조했던 특성화·전문화 교육의 성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문예창작학과 장영우 교수는 “이제 와서 문예창작과와 국문과가 통합되면 창작 교육 약화가 우려된다. 다시 합치는 것은 국문과와 문창과 그리고 학교 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북한학과도 통합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북한학과는 통일부 블로그에 학교 측의 학과 통합 사실을 알리고, 류우익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북한학과 학생들과 류 장관은 15일 전후로 면담 날짜를 조율 중이다. 우리나라의 북한학과는 1994년 동국대에 최초로 개설된 뒤 명지대 관동대 고려대 선문대 조선대 등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취업률과 사회적 관심 부재로 대부분 통폐합 되고, 현재는 동국대와 고려대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학과의 학부·대학원생과 동문, 교수들은 북한학과의 제2의 도약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29일 발표했다. 북한학과는 “연계전공 시도는 북한 전문가의 내실 있는 양성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통일 준비 전문가 육성에 차질을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북한학과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성찰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혁신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개편의 대상이 되는 해당 학과에서는 특성화 교육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개편이 진행되는 점과 취업률과 재학률이 개편 기준으로 작용한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순수 기초 학문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허남결 윤리문화학과 교수는 “사회적 수요가 없다고 개편을 추진한다면 향후 어떤 학과가 남게 될지 의문이다. 빨셈이 아닌 덧셈의 발전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초안 발표 후 꾸준히 학생과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더 이상의 공청회나 토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개편 기준으로 알려진 취업률과 재학률에 대해서도 여러 기준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동국대 교무팀 관계자는 “취업률과 재학률은 개편 기준 중 하나로 논의된 것일 뿐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로 결정했다. 12월 중 내부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다. 학과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통한 상호교류 확대와 상승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제26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성료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1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6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시상식과 개막식을 개최했다. 전시회는 불교중앙박물관에서 12월 15일까지 계속된다. 이날 시상식에는 ‘신중도’의 양선희 작가가 대상을, ‘옴마니반메훔 소통과 천수사화 소통’의 김승열 작가, ‘마애약사삼존불’ 김영찬 작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자승 스님은 “불교미술은 1700년 한국불교를 민족 예술로 승화시킨 선물”이라며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불자들의 노력을 종단에서 적극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사유지는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 불가”

지정 기준안 관련 사찰의견 수렴

조계종이 자연공원법 내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기준(안)’ 마련을 위한 사찰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조계종 사회부(부장 혜경)는 1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전통사찰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사회부는 최근 각 사찰을 방문, 현장을 확인한 뒤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을 위한 1차 시안을 도출했다.

검토결과 설악산 무량사의 경우 사찰 소유 토지가 없어 전체 지정이 곤란한 상황이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에서는 지정 대상을 사찰 소유 토지로 한정해 토지 소유가 종단 또는 사찰 명의로 공시된 경우 이외에는 지정이 어렵다. 무량사는 토지가 주지 스님 개인 소유로 돼 있다.

오대산 월정사는 적멸보궁과 사자암이 80m 가량 떨어져 있어 공원문화유산지구 집단화 지정이 불가능하다. 집단화 적용 대상은 본 사찰과 암자, 또는 본 사찰과 부속건물을 일단의 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사찰이 아닌 암자간의 집단화 적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안을 확인한 사찰들은 미흡한 점들을 지적했다. 월정사 박재현 종무실장은 “문화재보호법은 외곽 500m 기준인데, 자연공원법은 문화유산지구는 외곽 경계에서 최대 300m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또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폐사지도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회부장 혜경 스님은 “자연공원법은 유일하게 보호구역내에서 행위 금지가 아닌 점을 이해해 달라. 의견을 수렴해 환경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1면 조계종 원로스님들께 드리는 공개서한 4항에 이어 →

*이 광고는 본사의 입장과는 관계가 없으며 광고주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5. 제불여래의 법통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불여래의 법통성과 관련, 첫 번째 예를 든다면, 불제자라면 누구라도 잘 알고 계신 七佛通戒의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의 가르침입니다. 문제는 칠불통계에서 설시된 선악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입니다. 예컨대 징계와 관련한 선악판단의 기준은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 입니다. 첫 번째 징계 등 문제해결에 임하는 위원이 선심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징계 등 혐의자를 참회시켜 범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선이고, 반대일 경우는 불선, 즉 악 입니다. 또한 안으로 5법이 있어 징계혐의자를 거죄, 억념, 자백시키는 절차를 밟아 당사자로 하여금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선이고, 악명이 유포되게 하는 것을 악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경과 율에 보이는 출가사문과 수행자(도인)에 관한 제불의 설시입니다. 가) “타인을 해롭게 하는 자는 출가자가 아니며, 타인을 괴롭히는 수행자(도인, 사문)이 아니다.”(법구경 184게와 사분율), 나) “비난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계율에 의해 자신을 지키는… .”(법구경 제185게와 사분율). 이상 제불여래의 법통성에 비추어 종정 자격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탈 사면과 관련, 고산 대화상께 드리는 공개서한 – 제1신 –

고산대화상(이하 대화상으로 칭함)께서는 용성·동산 문도 가운데 94년 佛法沙汰와 함께 종단에 등장하시여 호계위원장과 총무원장의 직책을 수행하셨습니다. 현재는 종단의 전계대화상으로 재 추대되셨을 뿐만 아니라 차기 종정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산문도의 한 사람이자 소위 개혁종단에서 치탈처분을 받은 자로서 치탈처분 등과 관련, 당시 호계위원장이자 총무원장으로서 한국불교역사상에 그 유래가 없는 원로 중진승려들을 희생시킨 대화상께 개혁회의 치탈(멸빈)처분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공개서한을 드리오니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1. 대화상께서는 자신의 회고록 『지리산의 무쇠소』 표지에 “한번 하고자 하는 일은 그 누가 반대해도 하는 성정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해서 못하게 한다면 그만 두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중도에 폐한 일은 없었다. 이러한 의지로 강사와 법사와 포교사와 율사와 선사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고 씌어있습니다. 그리고 동 회고록의 날개 뒷면 안쪽에 제자들에게 들려준 경책의 글로 “남에게 용서를 구걸하지 않고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소납은 위 구절을 읽는 순간 대화상께서 석존의 법·율과 종헌·종법에 반하여 종단을 장악한 소위 개혁종단의 호계원장과 총무원장으로서 종헌과 율에 반하는 궐석심판으로 20여명의 원로 중진 승려들을 치탈하여 종단에서 추방하고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2. 석존께서는 출가비구는 “서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서로 말을 들어주어서 점차 깨우쳐줌(彼此相敎 共相受語 展轉開悟)”이 없는 삶은 설사 규정을 정하여 이를 지킴으로써 안락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리석을 자들이 같이 산 것이다. 그것은 마치 힌 염소(白羊)과 畜獸(혹은 怨家)와 같이 산 것과 다르지 않다. 외도의 벙어리 법(啞法)의 수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단자자(僧團自恣)의 경우를 보면 먼저 자신의 잘못해 대해 묻고 죄를 범했거든 상대와 대중에게 용서를 구하고 참회하도록 하라는 것이 석존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런데 대화상께서는 이와 같은 석존의 가르침에 반한 1항과 같은 소신을 버리지 않은 채 종정으로 추대될 날만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만일 대화상께서 종정이 되신다면 잘잘못을 떠나 종정께 용서를 구걸하는 자는 살아남지만, 율장에 명시된 비법비율(非法非律)의 갈마를 하신 고산종정을 향해 직언을 하는 승려는 다음 3항에서 보는 한 생명도 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 대화상께서 1961년 4월 본사 범어사에서 화엄경을 빌리러 갔다가 산문출송당한 사건과 관련, “부처님의 율법이나 조사의 청규나 경율론 삼장을 다 열람해도 이런 법칙은 어디에도 없다. 노소대중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백사갈마를 해서 모든 경중범죄를 처결했지, 젊은 사람 범죄했다고 젊은 사람들에게 맡겨서 처리하고, … 하는 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회고록 p. 239)고 서술하시고, ‘교무 진상스님 방으로 뛰어가 손에 쥐었던 ‘칼을 진상스님 목’에 대고, 바른대로 말해라.

네가 나를 제거할 생각으로 이 각본을 짜서 지시한 게지 …네가 율장을 뒤져서 엉터리 징계서류를 만들었지! 율장 어느 구절에 살인(미수)죄 등에 속한다는 말이 있느냐고 따지자 사죄하며 그것은 모스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해서 칼을 거두고, ‘올바른 승려가 되려면 없는 죄로 사람을 매장시키는데 앞장서지 말라’(이상 취의)고 쓰셨습니다.

4. 그렇다면 대화상께 묻습니다. 첫 번째 석존의 법·율과 종헌·종법에 반한 승려대회와 같은 불법집회를 통해 여법한 교시를 내린 종정을 비법으로 불신임하고, 불법집회에 참석한 출가와 재가중이 폭력행사를 통해 종헌기관인 총무원 청사를 점령한 것과 두 번째 동 불법집회의 결의에 의해 출범한 개혁회의 호계원장과 소위 개혁종단의 제2대 총무원장으로서 궐석심판으로 종단에서 총 20여명의 원로 중진을 치탈(멸빈)하여 종단에서 영구히 추방하는 징계결의를 하신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존의 법·율의 어디에 근거하여 그와 같은 징계를 하셨습니까. 더욱이 종헌상의 칠멸쟁법과 같은 종단 분쟁해결과 관련한 규정에 반한 궐석심판이라는 데서 궐석심판에 의한 징계는 종헌위반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성공한 쿠데타도 단죄하는 오늘날과 같은 민주사회에서 94년 개혁회의와 같은 쿠데타적인 종권찬탈과 치탈처분과 같은 회복할 수 없는 극 징계를 궐석심판에 의해 확정짓는 고등종교단체가 지구상에 조계종 말고 또 있다고 보십니까.

5. 94년 불법사태와 함께 고산대화상 등으로 구성된 개혁회의는 종전 승니법을 ‘불계중 4바라이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은 자’(현행 승려법 제46조 3항 멸빈사유)에 한해 멸빈(치탈)처분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또한 승려의 유흥장 출입, 음주난동, 이성관계 및 문예활동으로 인한 종단과 승려의 위신 손상과 품위 실추 등에 대한 제재규정도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종법개정과 삭제는 출가승단인 조계종을 재가승단으로 변질시킨 요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 절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세간의 법정에서 실형만 받지 않으면 묵인되는 종단으로 전락케 했습니다. 나아가 ‘정치운동 참여 금지 삭제’와 민주화, 환경보호, 통일 등을 위한 행위가 원인이 되었던 경우를 종무원의 결격사유(종무원법 제6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조계종을 사실상 재가승단이자 살인, 절도 등 중죄를 범해도 세간법의 실형만 받지 않으면 제재를 받지 않는 종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정치집단이자 반국가단체로 참여와 투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6. 그렇다면 제1신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대화상께서는 94년 종단 제도개혁 당시 종헌·종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승인하는 개혁회의 의원이자 출가승단인 조계종의 율사이셨습니다. 특히 동산 대종사와 석암 대종사로 계승되어 오는 계단을 전수받은 율사로서 석존의 법과 율의 어디에 근거해서 앞서 5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종헌상의 구족계와 광율(廣律)의 제반규정에 반한 종법개정을 단행하는데 동의하셨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하시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용인했습니까. 아니면 서상계를 받기 위해 기도하실 때 나타나신 석가모니불 문수보살 미륵보살께서 나투시여 心直名持戒요 心曲名毁犯(마음만 곧으면 지계요 마음이 굽으면 계를 범이라)고 재차 일러주셔서 계는 마음의 直曲의 문제라고 판단하시고 종헌과 율의 규정에 반한 종법개정에 동의하고, 종헌과 율의 규정에 반한 치탈 등 징계를 단행하셨습니까?

Ārāma 원 두 (조계종 전 서암 종정 사서실장 겸 원로회의 사무처장)

종교평화불교인 선언…불교 정체성 혼돈 우려된다

봉은사 지신 밟기 등 일부 이웃 종교인의 불교에 대한 광신적 공격과 정부의 종교 편향정책으로 고통 받던 불교계가 이에 대한 답을 내 놓았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금년 8월 23일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21세기 아쇼카 선언(초안)"(이하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이웃 종교에도 진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열린 진리관'과 이웃 종교와 불교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진리를 향한 동반적 관계라는 '종교 다양성의 존중'을 담고 있다. 이 선언은 전법(傳法)은 다른 종교인을 개종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과 안녕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전법의 원칙'과 자신의 믿음을 전하기 위해 공적 지위나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 활동'의 원칙도 포함하고 있다.

이 선언은 한국 불교가 종교 갈등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전통에 따라 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웃 종교와 더불어 고통 받는 생명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선언의 '열린 진리관'과 '전법선언' 등에 대해서 불교계 내에서 반론이 제기되고 있고 아직 여론 수렴과정에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이 선언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 지적할 수 있는 이 선언의 문제는 종교단체가 사회를 향해 내놓은 대사회적 선언임에도 다양한 종류의 듣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불교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선언이 가르침을 내리는 교시(教示) 또는 자기 종교의 신앙고백 같이 들리고 불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할 수 있다. 어느 때는 종교의 진리가 둘이 아니라고 했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서로의 차이와 다름'의 존중을 말하기 때문이다. "종교가 다른 것은 진리를 표현하는 언어와 문법이 다를 뿐"이라고 하는데 같은 나라에 살면서 언어와 문법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예기인가? 일반인에게는 더욱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될 뿐이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법으로 표현하는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고백 같이 들릴 수 있다.

또한 이 선언은 일반 불교신자들이나 불교로 전향을 고려중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 만일 종교의 진리가 서로 다르지 않다면 구태여 믿기만 하면 천당에 가고 복을 받는다는 이웃 종교를 마다하고 불교를 믿을 이유가 있겠는가? 만일 선교의지가 강렬한 이웃 종교인이 불교인에게 "너희 불교와 우리 종교는 다르지 않다고 하니 우리 종교로 개종해도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개종을 손쉽게 권유할 빌미를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둘째, 이 선언은 '종교 다양성의 존중'과 함께 "이웃 종교에 대한 인정과 관용이라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우리고 배우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용상에는 다원주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 종교적 관용과 다원주의에 관해, 그리고 이웃 종교들의 다른 종교와의 종교적 차이에 대한 입장을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선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다원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자기와 다른 종교에 대해 그 다름을 인정하고 참아주는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 1960년대부터 다원사회에 눈 뜬 종교들은 자기 종교와 이웃 종교의 차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됐는데 그에 대한 종교들의 입장은 절대주의, 포괄주의, 그리고 다원주의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절대주의는 자기 종교만 참되고 다른 종교는 그릇된 종교이거나 구원을 향한 인간적 노력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가진다. 포괄주의는 절대주의에서 변형된 형태로 자기 종교가 유일한 종교지만 구세주는 예수 이외에도 크리슈나, 이스바라, 붓다 등에서 현현될 수 있다는 융통성 있는 입장을 취한다. 다원주의는 자기 종교만이 절대적 게시의 결과가 아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구원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톨릭은 1962년 바티칸 제2공의회의 '非 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 2에서 다른 종교들도 "인생문제에 해답을 주려고 애써 왔다"고 다른 종교의 노력들을 평가했다. 또한 힌두교와 불교의 예를 들면서 불교에 관해서는 "불교에서는 여러 종파에 따라 이 무상한 세계의 근본적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신성과 화신으로 완전한 해탈의 경지에 이르거나 아니면 자기 노력이나 위의 도움으로 궁극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을 가르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직 포괄주의 입장이라고 해석되지만 다른 종교들과 대화의 길을 열었고 이후 가톨릭 교세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신장됐다.

한국의 개신교는 대부분 아직 절대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국제조직인 세계교회협의회(WCC)는 1990년 〈바르 선언: 다원성에 관한 신학적 관점〉을 기점으로 종교 다원주의 입장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지 않고도 구원 얻을 길이 있다고 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구원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WCC의 선언에 대해 개신교 내에서 많은 반발과 이견(異見)이 있다. 그러나 2013년 10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WCC 10차 총회에 한국 개신교 여러 분파들이 함께 참여한다면 개신교는 WCC의 간판을 내세워 대대적인 한국 선교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슬람은 유일신을 믿는 종교라는 점에서 기독교와 유사하나 종교의 탄생과정에서부터 유태교, 기독교 등이 존재하는 다종교 상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독교와 유태교를 인정하고 출발했다. 코란에 의하면 인류사회에 다종교 사회가 나타난 것은 "어느 공동체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지, 또 선행을 행함에 있어 앞서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마호메트가 최후의 신의 사자라고 본다는 점에서 다른 종교에 대한 이슬람의 입장은 다원주의가 아니라 포괄주의이며 비신자에 대해서는 절대주의적 입장이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나 무신론자는 용납되지 않는다.

1990년 이슬람회의기구(OIC)가 채택한 카이로인권선언은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이슬람의 대안으로서 이슬람의 다원주의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비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서 이슬람법인 샤리아의 적용을 받게 돼 있어 아직은 절대주의 또는 포괄주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주의를 확고하게 정착시킨 터키 공화국과 수십 년 간 금지됐던 바하이교의 활동을 다시 허락한 최근 인도네시아의 정책은 이슬람 세계에도 종교 다원주의를 향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용이란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러한 차이를 참아주고 존중하는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 선언은 차이와 상호존중을 말하면서도 진리가 다르지 않다고 차이를 부정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만일 종교의 진리가 다르지 않다면 구태여 이웃 종교를 마다하고 불교를 믿을 이유가 있겠는가? 또한 애써 불법을 전파할 전법(傳法)의 이유가 없게 된다. 진리로 가는 길은 여럿일 수 있지만 종교들이 추구하는 진리가 같은지 다른지는 누구도 일방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종교들의 진리가 다르지 않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고 다원주의가 아닌 포괄주의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불교는 이웃종교를 관용하는 불교의 전통을 지키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 다종교 사회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종교간 상호 이해와 존중을 위해 조계종 사부대중들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플랜카드를 매년 걸어왔다.

비불자에게는 신앙고백처럼 들려 불교의 정체성 무엇인지 의문

에서 불교가 이웃종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셋째, 이 선언은 현재 한국 불교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본다. 한국 불교는 아쇼카 대왕과 같이 강한 입장에서 이웃 종교를 불교 안에 포용할 입장에 있지 않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B.C.168~B.C.305 동안 인도를 통치했던 아쇼카 대왕은 최초로 인도를 통일한 후 정복전쟁의 처참한 상황을 목도하고 불교신자가 돼 불교의 관용 정신을 국가정책에 구현했던 인물이다. 그는 붓다의 정법, 즉 다르마(dharma)에 의해 국가를 통치했다.

그가 추구한 것은 개인의 종교적 구원이라는 차원보다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취하는 태도, 즉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인정과 사회활동에 있어서 인간정신을 고양시키는 것이었다. 그의 관용정책은 인도 천하를 통일한 강력한 통치력을 배경으로 했으며 강자 또는 다수파가 신념을 달리하는 소수파에 대해 강자의 지배적인 위치를 인정하는 조건에서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살도록 허가해 주는 관용의 여러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①허가(permission)의 개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관용에는 허가의 개념을 포함해 ②권력이 비슷한 양측이 갈등보다 공존을 추구하는 공존의 개념(co-existence), ③공통의 사회생활을 당사자들이 동등하게 합의하는 규범에 따라서 영위하기로 합의하는 관용의 형태인 존중의 개념(respect), ④서로 다르지만 윤리적으로 존경하고 매력적이라고 보는 존경의 개념 등 네 가지 개념이 있다.

한국 불교는 현재 이웃 종교들과 공존을 추구해야 할 형편이지 강자의 입장에서 이웃 종교를 인정하는 허가 개념의 관용정책을 추구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본다. 아쇼카왕의 정책은 불교의 자랑스러운 정신적 유산이지만 21세기 한국 불교의 정책적 모델로 삼기에 적절한지, 그리고 아쇼카왕의 정책을 어떻게 21세기적 상황에서 알맞게 적용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이 선언에서 제시 또는 암시하고 있는 불교 교리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불교와 이웃 종교가 다르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교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부처님이 자신의 가르침을 뗏목에 비유한 것은 자기 가르침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이를 부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로 유추 해석해도 되는가? 또한 이 선언은 불교에서 말하는 수레(乘)의 개념을 이웃 종교에도 적용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법화경에서 수레(乘)를 말씀하신 것은 미혹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일불승 등 부처님의 교법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러한 수레의 개념을 다른 종교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교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이 선언은 "차이를 무시한 채 결국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종교의 관점으로 수렴해 버리는 것은 이웃 종교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앞 부분에서 "종교가 다른 것은 서로의 진리가 달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표현하는 언어와 문법이 다를 뿐입니다,"라는 표현과 모순되게 보인다. 이 선언은 차이점의 존중을 말하고 있으나 동시에 진리가 다르지 않다는 점에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어 혼란스럽다. 부처님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여럿임을 보여주셨으나 과연 종교적 진리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을까? 과문한 탓인지 모르나 필자는 〈법화경〉의 "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萬法歸一]"라는 말씀은 들어 보았지만 "만법은 하나다[萬法是一]"라는 말은 듣지 못 했다.

21세기 아쇼카 선언은 다종교 사회에서 불교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매우 중요한 선언이다. 이상에서 지적한대로 이 선언이 대사회적 선언임을 감안해 여러 종류의 듣는 청중들을 진지하게 배려하고, 종교적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연구하며, 한국불교가 처하고 있는 종교적 상황을 예리하게 검토하고, 선언의 내적 모순점과 교리와의 모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보다 정리되고 완벽한 최종 선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정천구(서울디지털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11. 12. 17(토) 오후 1시부터 ~ 12. 18(일) 오후 6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1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국·전·통·따·주·기·공·덕·회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79기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12월 중
◆ 개강일시 : 2011년 12월 개강. **매주(월, 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참회 통한 쇄신은 여야 모두 배워야 할 가치”

주호영 국회의원(한나라당 · 대구 수성을)

주호영 의원(한나라당 · 대구 수성을)은 대표적 불자 국회의원이다. 개신교 장로인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특임장관에 임명돼 불교계와 정부의 소통을 이끌기도 했다. 올해 3월에는 전통사찰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이 주 의원 발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그는 불교계를 위해 일해온 숨은 일꾼이다. 11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칙과 대화를 중시하는 주호영 의원을 만났다. 주 의원은 최근의 안철수 열풍을 정당정치의 위기로 진단했다.

글=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최근 언론매체마다 연일 안철수 신당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10 · 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은 ‘바람’을 일으키며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주호영 의원은 ‘안철수 열풍’을 기존 정당들의 한계에서 원인을 찾았다. 주 의원은 “한마디로 정치 불신에 의한 정당정치의 위기다. 기존 정당들이 과거틀에 갇혀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이 못한 것이 아닌가 반성을 해본다”며 “안철수 바람에 나타난 국민들의 준엄한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우리 정치문화가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화와 다수결에 따른 민주주의의 원칙이 사라지고 물리적 충돌과 입법지연이 난무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설 직후 인재 영입 가시화 예상

변화와 쇄신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다. 특히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을 지내고 있는 주호영 의원은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인재영입에 있어 도덕성, 전문성,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헌도 등을 고려해 지역 · 연령 · 성비율 등을 안배한다는 큰 원칙이 정해져 있다. 한나라당의 인재 영입은 내년 설 직후부터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책임감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재를 최대한 많이 모시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 의원은 민주적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인재를 영입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나타난 의회 폭력사태에 대한 지적이다.

주호영 의원은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누구를 영입해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어렵다. 인재영입도 중요하지만 민주적 절차 확립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교계와 지속적 소통

주호영 의원은 2010년 8월 불교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들의 찬성 속에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불자로서 누구보다 불교계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주 의원이 꾸준히 소통한 결과다.

주호영 의원도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비서실장 활동부터 현재까지 여러 스님들과 수시로 연락하고 있으며 불교계의 어려운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런 노력의 하나가 ‘자연공원법’ 개정이다”고 말했다. 주 의원 발의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통 사찰에서는 못하나 마음대로 박을 수 없을 정도로 각종 중복 규제에 시달렸다. 1976년 법 제정 당시 산림보존에만 치중한 나머지 실제로 거주하고 생활하는 스님들과 공간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주호영 의원은 국립공원에 위치한 전통사찰들의 어려운 형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 산림이 울창한 부분과 현재 사찰 경내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구분했다. 또한 실제 수행과 신행생활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공원문화역사지구로 지정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했다.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불필요한 갈등과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원역사문화지구 입장료 징수 근거도 마련했다.

꾸준한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필 줄 아는 능력은 특임장관 시절부터 정평이 나있었다. 주 의원은 초대 특임장관을 맞아 업무의 기틀을 다지고 소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특임장관실 개청 전 17.7%에 불과했던 정부입법 통과율은 개청 후 69.6%(2010년 5월말 기준)로 4배 가까이 상승했다.

부처님 가르침 정치활동 큰 힘

주호영 의원은 어린 시절 집 근처에 있던 동림사를 놀이터 삼아 지냈다. 당시 동림사에 있던 정오 스님은 주 의원이 〈반야심경〉을 한 구절 외워오면 과자를 주기도 했다. 주 의원은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익혀 나갔다.

주호영 의원은 결사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주 의원은 “자성과 쇄신을 위한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의 5대 결사는 남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의 참회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어떤 일이라도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없다. 불교의 참회를 통한 쇄신은 여야 모두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가치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의 종교는 ‘무교’ 또는 ‘기천불’(기독교, 천주교, 불교)이 되기 십상이다. 한표라도 더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소신 있게 종교를 밝히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종교를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호영 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때도 당당하게 불자임을 밝히고 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잠시라도 남을 속이는 것은 오계 중 하나인 ‘불망어(不忘語)’를 어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종교를 속이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도 당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치에 임하는데 있어서도 큰 힘이 됩니다. 육바라밀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정치인에게도 훌륭한 지침이 됩니다.”

주 의원은 인욕바라밀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지계바라밀은 온갖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의지를 키워 준다고 밝혔다. 정진바라밀은 국민을 위해 한시라도 게을러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힘이 되고, 선정바라밀에 의한 마음 정화는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맑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 지혜바라밀은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지혜를 길러줘 정치 및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된다고 믿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종교 거짓으로 밝히는 정치가 많지만
‘불망어’ 계 지키려 당당히 불자라고 밝혀
자연공원법 개정 등 불교 발전위한 노력 경주
MB정부 특임장관 맡아 불교계-정부 이어

희망을 갖고 꿈을 위해 도전하라

주호영 의원은 평소 ‘많이 읽고[多讀], 많이 쓰고[多作], 많이 생각하는 것[多商量]’을 자주 언급한다. 아이디어라는 것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달리하면 기존의 내용이라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위해서는 평소 많이 읽고, 쓰고,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주 의원 스스로도 이를 지키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나폴레옹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으로 남는 이유가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현실의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사력을 다해 노력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호영 의원은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자신의 신념과 정치적 이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은 …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8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2002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5년 제17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 대통령당선인 대변인,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초대 특임장관 등을 지냈다.
주호영 의원은 현재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일 주 문



인드라망 월례법회

인드라망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12월 17일 오후 2시 신정동 인드라망 교육도량에서 12월 월례법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외환은행 협약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지현 스님은 11월 28일 외환은행 본점에서 외환은행 VIP 및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알리는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구산 스님 28주기 추모법회

순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12월 7일 송광사 대웅보전에서 구산 스님 제28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조계사 성도재일 등 모연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12월 10일~1월 10일 점등되는 성도재일 등을 모연한다. (02)732-2115



열린선원 합동천도재

태고종 열린선원 선원장 법현 스님은 12월 11일 열린선원 법당에서 한글법요와 전통작법으로 올리는 특별합동천도재를 봉행한다.



이연택 동국대 총동창회장

이연택 2014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장은 11월 30일 동국대총동창회에서 제26대 총동창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제21회 창하문학상 수상

임완숙 교사불자연합회 명예회장(중앙신도회 지도위원)은 11월 26일 한국문화재단에서 시상하는 제21회 청하문학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장에 세영 스님



조계종 초심호계원장에 세영 스님(신륵사 주지)이 선출됐다.

초심호계원은 11월 28일 제88차 심판부를 열고 前 호계원장 재원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라 세영 스님을 새 원장으로 호선했다.

초심호계원은 이날 9건의 징계사건과 1건의 징계외사건을 다뤘다. 한편, 새문안교회에 토지 임대를 하면서 이면 계약을 해 징계 회부된 수은 스님(파주 보광사 주지)에 대한 심리는 연기됐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원심회 공동체 만드는 것이 꿈

창립 23돌 맞은 엄재면 원심회 회장



"청각장애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조계사 장애인 포교단체인 원심회에서 엄재면 회장이 포교활동을 한지도 6년째다. 처음에는 봉사자들과 수화로 통역하면서 청각장애인들에게 부처님 말씀만 권하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원심회 회원들은 쉽게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수화는 7000여 단어로만 표현해야 하는 제한적인 의사소통 수단이기 때문이었다. 원심회 회원들에게는 한글이 필요했다.

"회원들 중 30~50대는 기본적인 한글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문서작업도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한글을 모르니 수화를 습득하고 구사하는 능력도 떨어질 수 밖에요. 불교포교에 앞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엄재면 회장은 2012년 3월 정식 개교할 예정인 원심회 한글학교를 9월부터 회원 12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회원들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이분들이 잘 교육받아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기본교육을 받고 포교사 고시도 응시하게 할 생각입니다."

원심회는 창립 23주년을 맞아 11월 13일에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두근두근, 두드림' 행사를 열었다. 한글학교 재원마련을 위한 행사였다.

원심회 한글학교는 엄 회장이 계획한 청사진의 일부이다. 엄 회장은 원심회 공동체를 구성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수행·교육·생활공동체를 만들어 원심회 회원들을 비롯한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원심회는 수행공동체를 위해 매주 수화법회, 수화명상, 경전공부반을 매주 일요일 진행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 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기초교리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원심회는 한글교육, 수화통역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종이접기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엄재면 회장은 "수행·교육 공동체가 형성되면 청각장애인들이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생활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취업 및 노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02)720-4528 원심회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2-912-927

이나은 기자

원로 불자가수 복지시설 설립

나운하 대한불자가수협회 회장



"창립기념 법회를 통해 앞으로 대한불자가수협회가 왕성한 활동을 펼쳐나가길 서원합니다."

대한불자가수협회(회장 나운하, 이하 불자가수협회)가 12월 20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대한불자가수협회 창립2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올해 4월 12일 제12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나운하 대한불자가수협회 회장(사진)은 기념법회를 앞두고 "그동안 가수협회의 미비했던 활동들이 기념법회를 계기로 유래 없던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나운하 회장은 가장 우선적으로 불자가수협회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젊은 불자가수영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나운하 가수는 취임이후 가수 윙크, 심신 등을 불자가수협회 회원으로 영입했다.

나 회장은 "가장 큰 서원은 생계가 어렵고 건강이 악화된 원로한 불자가수들이 노후에 편안히 지낼 수 있는 복지시설을 만드는 것"이라며 "불자가수협회가 발전하는 모습들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동국대, 美콜로라도대 MOU 체결

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원장 이종대)은 11월 22일 동국대에서 미국 콜로라도 대학 브레케지센터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양 대학의 학습과 연구를 위한 학생 교환 △상호 방문에 의한 교수·학자·관리자의 교환 △교육과 연구에 대한 정보와 출판물의 교환 △협력적 교육과 연구의 이행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정식에는 이종대 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원장과 김한창 연구교수, 차승재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를 비롯해 콜로라도 대학 브레케지센터의 댄 보오드(Dan Boord) 센터장, 미술사학과의 루이스 발도비노(Luis Valdovino) 교수, 박종필 교수, 한금현 객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종대 원장은 "영상문화콘텐츠라는 공통된 영역으로 특성화 되어있는 양 기관이 앞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역량을 더욱 극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댄보오드 브레케지센터장(왼쪽)과 이종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장

KBS '다르마' 불교언론문화상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제19회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 KBS의 다큐멘터리 '다르마(윤창규·최근영 PD)'가 선정됐다고 11월 28일 밝혔다.

TV부문 최우수상은 대구MBC '고려 초조대장경(마승락 PD)'이 우수상은 KBS '신학자 폴 니터의 한국 禪기행, 나에게 너를 묻다(안중섭 PD)'에게 돌아갔다.

라디오부문은 최우수상은 국악방송국 '영산재, 그 향기 누리 가득히(전성희 PD)'이 우수상은 BBS불교방송 '다시 태어난 삼국유사, 500년의 꿈(박주원 PD)'이 선정됐다.

신문부문은 최우수상은 법보신문 '연등회 왜 문화재 지정돼야 하나(권오영 기자)'이 우수상은 주간불교 연중캠페인 '장기기증은 또 다른 보시(편집국)'가 선정됐다.

불교언론인상은 강신철 前 한국불교언론인회 회장이 특별상은 백성호 중앙일보 기자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13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을 수상한 윤창규(왼쪽), 최근영(오른쪽) PD

조계종자원봉사단 '아산상' 수상

2만 봉사자 활동 중

조계종자원봉사단(단장 종선)이 11월 25일 아산생명과학연구원에서 진행된 '제23회 아산상 시상식'에서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다.

아산상은 1989년 재단 설립자인 아산(峨山) 정주영 초대 이사장의 뜻에 따라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해 왔거나 효행 및 가족사랑을 실천해 사회의 귀감이 된 개인·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아산상 수상자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이 각계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011년 6월부터 300여 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예비심사, 현지실태조사, 본심사와 아산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홍구)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1995년 창립된 조계종 자원봉사단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부설단체다.

현재 2만 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전국 복지시설, 병원, 공공기관 등에서 활동하며 긴급재난 발생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2011한국불교기자상 발표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조용수)는 11월 21일 2011한국불교기자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인 '선원빈기자상'에 '군승자질 속앓이 군포교'를 보도한 '주간불교' 김치중 기자를 선정했다.

기획해설보도부문에는 '세계불교를 가다'를 보도한 '불교신문' 홍다영 기자를, 취재보도부문에는 '사찰 도로명 주소 변경 문제 외'를 보도한 'btn' 신중일·정영석 기자를 선정했다.

2011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은 12월 5일 서울 종로구 '엘마레따'에서 개최하는 '2011불교언론인의 밤'에서 열렸다.

노덕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高音質 무선마이크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 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일반형)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대한통일불교 조계종
종 도 모 집

종도 강원교육 , 집체 교육
사미기본교육, 통신강의 가능
종도가 아니라도 강원교육 동참가능
불교를 배울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배울 곳이 있습니다.

스님 흉내 낸다는 소리 그만 들읍시다.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치문, 아함경, 방등경,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外 천수경, 반야경, 금강경오가해, 유식삼십송, 선문촬요, 정토삼부경, 원시불교, 부파불교, 불교계론, 기타 등등)

▣ 경남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444번지 자비선원 (구, 백운암)
▣ 전화 055)391-3014(선원장실), 3004.3024(종무소) 팩스 055)391-3016

신도조직 · 복지시설 갖춰야 사찰

정승국 교수, 불교사회복지포럼서 발표…"자원봉사활동에 큰 기여해"

신도회와 사회복지시설의 유무에 따라 불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이 크게 좌우되며, 이에 따라 불자들의 신행생활과 불교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사찰 신도회와 사회복지시설의 조직 · 정비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승국 교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는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12월 1일 A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13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불교사회복지포럼에서 '사찰의 지역사회 자원봉사 참여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포럼에서 정 교수는 "신도회가 조직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찰일수록 신도회가 조직돼 있지 않거나, 조직은 됐어도 활동이 미흡한 사찰에 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찰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승국 교수는 사찰의 사회참여 및 복지를 통한 포교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교구본사 및 말사를 포함한 주요 500개 사찰을 선정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조사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315개의 사찰 중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찰은 146곳으로 46.2%였다.

정 교수는 ▷주지 스님의 성별 ▷초하루 법회에 참가하는 월평균 신도수 ▷사찰 위치 ▷신도의 조직화 상태 ▷사찰 소재지의 지역 ▷사찰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 여부 중 어떠한 변수가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분석을 시도했다.

정승국 교수는 "사찰의 자원봉사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독립변수는 주신도회 조직화 상태와 사회복지시설 여부였다"며 "이 가운데 신도 조직화 상태가 자원봉사활동 여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변수다"고 분석했다.

반면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사찰은 '신도들의 인식 및 관심 부족(31.4%)', '자원봉사자 인원모집의 어려움(26.4%)', '재정 운영이 어려워서(22.4%)'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찰에서는 재정운영, 자원봉사 담당자 확보,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정 교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사찰일수록 자원봉사자 모집을 수월하게 하고 있었고 비구스님이 주지인 사찰일수록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는 데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승국 교수는 자원봉사를 실행한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정 교수는 "사찰홍보, 사찰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미지 개선, 신도수 증가, 신도 이미지 개선 및 헌신도 개선 등에서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정승국 교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이용권 관장(서호노인복지관), 조기룡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하지만 초하루법회 신도의 수가 많을수록, 즉 사찰 규모가 클수록 자원봉사의 긍정적 효과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큰 사찰일수록 자원봉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 교수의 견해다.

정승국 교수는 "자원봉사 업무담당자가 있는 사찰이 그렇지 않은 사찰보다 긍정적 효과를 낸다"며 "자원봉사를 전담하는 담당자 및 관리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수는 ▷자원봉사활동 기금조성을 통한 재정 문제 해결 ▷자원봉사자들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과정 구축 ▷신도회를 통한 신도조직화 등을 사찰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며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지역사찰의 신도회들을 자원봉사활동에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조기룡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는 '교구본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강화방안'을 주제발표했다.

조 교수는 "조계종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화와 역량제고를 위해 조계종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각오해야 한다"며 "교구본사가 직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확대해 중간 전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럼에 앞서 도법 스님(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은 '붓다의 가르침의 현대적 의의와 나눔결사'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다.

도법 스님은 "불교사회복지는 불교계복지기관수가 증가하는 등의 양적성장은 했으나 질적성장은 이루지 못했다. 정부보조금을 일정부분 지원받아서 불교세력을 넓히는데 쓰인다면 이는 오히려 불교복지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며 "도움이 절실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사람들이 원력을 세울 수 있도록 발굴하고 그들을 도와 질적 성장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완주 화암사 극락전'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보물 제663호 '완주 화암사 극락전'을 국보 제316호로 승격 지정했다.

'완주 화암사 극락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집으로, 이 건물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국내 유일의 하앙식(下昻式) 구조로, 1981년 해체 수리 때 발견된 기록에 의하면 정유재란 때 피해를 입고 그 후 선조 38년(1605) 중건됐다.

하앙구조는 보통 내단(內端)은 보나 도리에 고정해 지붕의 하중을 받게 하고 외단(外端)은 처마를 받치게 하여 두공을 중심으로 서로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일찍이 중국에서 발전되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흔히 사용된 구조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건물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유물 등을 통해서만 그 존재의 가능성을 추정해왔다.



국보 제316호로 승격된 완주 화암사 극락전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하앙식 목조건축으로 역사적, 학술적, 건축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완주 화암사 극락전을 국보로 승격 지정하여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보존 ·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국불교 근대성은?

10일, 한국불교硏 국제학술대회

일본강점기로 대변되는 한국불교의 근대기를 진단하는 학술행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민용)은 12월 10일 오전 9시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故 불연 이기영 박사 제15주기 추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동아시아 불교에 있어서 근대성과 불연 이기영의 불교 · 불교학'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김환수 美 듀크대 교수가 '불교식민주의'를, 김영진 동국대 연구교수가 '근대 중국 불교에서 전통의 경쟁과 개조'를, 허남린 加 브리티쉬콜럼비아대 교수가 '근대 일본에 있어서의 불교적 제국주의의 뿌리'를 통해 동아시아 불교에서의 근대성을 조명한다. 제2부 '불연 이기영에 있어서 근대 불교와 불교학'에는 조은수 교수(서울대) 등이 발표자로 참석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마성 스님의 부처님이 말씀한 평화(5)

평화는 불교의 궁극적 목표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열반(涅槃)의 증득에 있다. 초기경전에 언급된 열반에 대한 몇 가지 정의들을 살펴보자.

이른바 열반은 '갈애의 소멸'(taṇhakkhaya, 愛盡), '만들어지지 않은 것', 무조건적인 것'(asaṁkhata, 無爲), '탐욕 없음'(virāga, 無貪), '적멸(寂滅)', nirodha), '불이 꺼짐' 혹은 '적정(寂靜, santi)' 등으로 정의된다.

이를테면 "이것은 참으로 '갈애'(taṇhā)의 완전한 소멸이며, 단념이고 포기며, 그것으로부터의 해탈이며 초연함이다."(SN Ⅴ, p.421) 또한 "이것은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의 평정, 모든 번뇌의 포기, 갈애의 소멸, 탐욕에서 벗어남, 적멸, 열반이다."(SN Ⅰ, p.136)

"비구들이여, 무위(無爲, 무조건적인 것)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이것은 탐욕의 소멸(貪盡, rāgakkhayo), 증오의 소멸(嗔盡, dosakkhayo), 어리석음의 소멸(痴盡, mohakkhayo)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무위라고 부른다."(SN Ⅳ, p.359) 또한 "라다(Rādha)여, 갈애의 소멸이 곧 열반이다."(SN Ⅲ, p.190)

초기불교, 이상사회 건설 위해
사회구성원, 개인의 문제로 돌려
명상은 온 세상 평화에 기여해
자기완성하면 곧 국토완성

이처럼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열반이다. 한편 열반은 불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세속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단어는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적정(涅槃寂靜)의 적정(寂靜, santi)에 해당된다.

따라서 열반적정이야말로 개인은 물론 우리 인류가 갈망하는 진정한 평온(平穩) 혹은 평화의 세계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불교는 개인적으로 열반을 증득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다. 또한 불교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을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갖고 있다. 전자는 개인완성이요, 후자는 국토완성이다. 후자를 다른 말로 불국(佛國)의 지상건설(地上建設)이라고도 한다.

이른바 불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이 땅에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세속에서 말하는 평화임은 말할 나위없다.

사회과학에서는 보편적인 사회법칙(社會法則, Social law), 즉 사회현상의 법칙을 발견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사회법칙 발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불교에서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란 다음과 같다.

"파멸을 가져오는 권력이 포기되기를 노력하는 사회, 정복과 패배에서 멀리 떠난 평온과 평화가 승리하는 사회, 죄 없는 종교적 박해가 격렬하게 비난받는 사회,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 무력과 경제적 전쟁으로 수백 명을 정복한 사람보다 존경받는 사회, 증오는 자비에 의해 정복되고 악이 선에 의해 정복되는 사회, 적의 질투 악의 탐욕이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회, 연민이 억지로 행동하게 하는 사회, 최소한 살아있는 것[有情]을 포함한 모두가 공평, 존중, 사랑으로 교섭되는 사회, 물질적 만족의 세계에서 평화와 조화로운 생활은 궁극적 진리, 열반의 증득이라는 가장 높고 고귀한 목표로 주의를 돌리는 사회를 창조하는데 있다."[Walpola Rahula, What the Buddha taught (London: Gordon Fraser, 1959), pp.88-9]

그러면 이러한 이상사회는 어떻게 완성하는가. 초기불교에서는 사회고(社會苦)를 제거하고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문제 해결의 일차적인 관점은 사회구성원, 즉 개인의 문제로 되돌린다. 왜냐하면 불교는 언제나 개인으로 시작해서 개인으로 돌아온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만 깨달을 수 있으며, 집단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얀마의 우 빤디따 사야도는 "우리가 명상하는 것은 온 세상의 평화에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것은 자기완성이야말로 국토완성의 토대가 된다는 말이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심청정 국토청정(心淸淨 國土淸淨)"과 같은 의미인 것이다.



마성 스님(팔리문헌연구소장)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사주프로그램CD
명 리 보 감
命 理 寶 鑑



최고의 역학프로그램
1. 명리작명판
사주명리 + 작명 + 궁합 + 택일 + 고객관리
2. 명리통합판
(1.명리작명판) + 주역.육효 + 자미두수 + 양택
3. 기문통합판
(2.명리통합판) + 기문 + 육임 + 구성학 + 현공

사주명리.육효 동영상강의DVD제공하여 초보자도 공부하며 사용가능.
NAVER 통합검색 명리보감 검색 을 검색하세요. www.goodcycle.com
명 리 보 감 역 학 연 구 소
☎ 031)493-3581

“이주노동자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의 불교활동가 선정된 간헬라산스시리 스님



“아직은 부족한 한국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 한국국적의 스리랑카 스님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스리랑카 출신 간헬라산스시리 스님(꿈을이루는사람들 마하이주노동자쉼터장 · 사진)이 올해의 불교활동가로 선정됐다.

설법연구원(원장 동출)은 올해의 불교활동가로 간헬라산스시리 스님과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소장), 한주영(불교여성개발원 사무처장), 홍지연(대불련 지도위원장)씨를 선정하고 지원금 200만원을 각각 전달한다.

간헬라산스시리 스님은 2003년 스리랑카에서 한국 스님을 만나 한국으로 와 이주노동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 한국에서 2개월 넘게 머물면서 한국에 있는 동안 노동자들을 만나고 도와주는 일을 하다 보니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파주와 안산에서 봉사를 하던 스님은 2005년 4월 진오 스님(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이 운영하는 이주노동자 상담센터인 구미마하이주민센터로 왔다.

이곳에서 스님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 이주노동자들을 돕는 일을 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아플 때 병원에 동반해서 병원 통역하는 일부터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퇴직금, 산재처리와 관련해 경찰 · 법원 · 노동부의 통역업무는 모두 스님의 일이었다.

간헬라산스시리 스님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10월 구미경찰서에서 감사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또한 스님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운데 2009년부터 야간으로 구미1대학에 입학해 아동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2011년 졸업했다.

“한국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돕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2011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간헬라산스시리 스님은 2009년부터 귀화신청을 준비했고 한국 국적을 취득해 현재는 한국인의 신분으로 이주노동자를 도와주면서 스리랑카 노동자들을 위해 법회를 여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님은 “한국에 와서 신앙을 쌓기 힘든 스리랑카 노동자들을 위해 몸과 안정을 지원하고자 마하이주노동자쉼터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동출 스님은 2001년부터 기금을 출연해 활동가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해왔다. 간헬라산스시리 스님과 함께 올해의 불교활동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김영란 소장은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진행해온 경력이, 한주영 사무처장은 불교여성개발원의 실무 전반을 수행해온 경력이, 홍지연 지도위원장은 대학생 포교와 불교교육에 힘써온 공로가 인정돼 이번 상을 받게 된다. 전달식은 12월 6일 오후 4시 템플스테이 3층 문수실에서 진행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치마불교’ 보다 상업주의가 비판돼야

불교여성연구소 창립 기념 학술토론회서
조승미 서강대 종교연구소 선임연구원 주장

“한국 여성불교를 ‘치마불교’라 칭하는 것은 여성 폄하발언입니다.”

‘치마불교’는 여성신도가 대부분인 한국 사찰에서 기복신앙 위주의 문화를 폄하는 말로, 여성들의 신행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여성연구소(소장 조은수)는 여성의 신행활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여성들의 신행 현실을 재평가 하고자 12월 3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1세기 페미니즘 시대에)여성 신행의 재조명’이란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승미 서강대 종교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치마는 없다: 젠더화된 기복신앙과 한국 불교 가족주의 비판’ ▷조계종 교수아사리 명법 스님이 ‘여성불교의 관점에서 본 기복불교’ ▷한주영 불교여성개발원 사무처장이 ‘치마불교,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로 주제발표 했다.

조은수 소장은 “한국불교를 지탱해 온 것은 다름 아닌 여성 불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여성들의 신행 행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여성의 종교 행위의 다양성에 대한 몰이해와 한국사회와 불교계의 보수성에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부정적 평가는 교단 내에서 여성의 활동을 주변화시키고, 여성 인력의 유입을 차단해 교단 안에서 여성의 역량을

> 기복신앙 형태를 기반으로
> 한국종교권력 비정상적 거대해져
> 여성 신앙문제 ‘가족주의’가 발단
> 기복신앙 여성 주체로 문제 다뤄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승미 서강대 종교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불교의 기복신앙에 대한 비판은 한국 대부분의 종교에서 제기돼 왔다. 하지만 기독교가 기복을 샤머니즘, 전통종교 등으로 타자화시킨 것에 비해 불교는 이를 ‘치마’로 상징되는 여성적인 것으로 표현해 거리두었다”며 “한국불교의 기복 신앙론은 젠더화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특징은 한국 불교계의 여성성으로부터의 탈피, 자기만의 정체성규명, 합리 이성적인 심리태도에서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승미 연구원은 “사회적으로 한국종교의 기복신앙이 지탄받는 핵심은 따로 있다”며 “기복신앙형태를 기반으로 한국종교권력이 비정상적으로 거대해졌다”고 지적했다. 기복신앙이 치마로 상징되는 비합리적인 저급한 종교형태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기보다, 그것이 사회의 탈가족주의, 새로운 공익적 지역공동체 전망을 가로막는 하나의 권력화 된 시스템과 연관됐기 때문이다.

조승미 연구원은 “기복신앙 비판의 진짜 주제는 여성의 신앙문제, 종교본연의 정체성도 아닌, 우리 사회의 ‘가족주의’ 극복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한국사회의 여성은 한 집안의 종교 대리인 역할을 이행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종교 갈등이 바로 한국 종교문화의 특징이 반영된 것. 조 연구원은 “여성의 기복은 신앙이 아닌, 가족의 안위문제를 위한 가족주의 실천방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여성 불자들이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다’고 발언하는 신행수기문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 연구원은 기복신앙문제가 극복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사찰경제구조의 사유화, 폐쇄주의, 권위주의적 운영을 제기했다.

조계종 교수아사리 명법 스님은 “그동안 기복불교 논쟁은 교리적 판단에서만 의뤄져 주체의 문제가 빠져있었다”며 “기복불교 논쟁은 서양 오리엔탈리즘이 동양을 타자화한 것과 비슷하다. 이성적이고 근대적인 남성이 비이성적 · 전근대적인 여성의 종교성에 대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복불교 담론은 근대적 남성의 종교성을 주체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여성의 신행생활을 타자화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법 스님은 “기복신앙은 본래 복을 단순히 주고받는 교환적의미가 아닌 호혜적 관계였다”며 “단순히 여성들의 기복신앙 문화가 비판될 것이 아니라, 기복신앙을 토대로 상업주의화 되는 불교계가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조은수 소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제한과 편견없는 양성 평등한 여성 신행 문화가 재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불교계 사회적기업 프로보노단 출범

불교계 사회적기업 양성을 위한 프로보노단이 출범했다. 날마다좋은날(이사장 김의정) 사회적기업전문(특화)지원사업단(단장 이찬영)은 11월 28일 전법회관에서 불교계 사회적기업 프로보노 발족시키고 위촉식을 봉행했다.

프로보노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일을 말한다.

이번에 발족한 프로보노단에는 이상근 공인회계사, 조희원 변리사를 비롯해 사회적기업가, 변호사, 공인노무사, 경영컨설턴트, 중소기업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불교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업무와 경영활동에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이은정 기자**



아름다운동행이 11월 29일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한 모기장 구입을 위해 5000만원을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 말라리아 퇴치 동참

UN재단에 모기장 후원금 전달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모기장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UN재단에 모기장 마련을 위한 기금 5000만원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11월 29일 전달했다.

아프리카에서는 매년 말라리아로 100여 만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 중 90% 이상이 5세 미만의 어린이다. 말라리아는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못해 살충 처리된 모기장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UN재단은 Nets Go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금으로 아프리카에 전달할 살충 모기장을 마련하고 있다. 1만원이면 살충 모기장을 구입해서,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사용법까지 교육할 수 있는 금액이다. UN재단은 23일 대검찰청과도 지원 협약을 맺는 등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승 스님은 “1만원의 모기장이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해인사 총무국장 심우 스님(오른쪽)이 자승 스님에게 호국연무사 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해인사, 군법당 건립 기금 2000만원 전달

호국연무사 불사금 65% 모연

합천 해인사(주지 선각)는 11월 29일 논산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건립 기금으로 2000만원과 참기름 100병을 총무원에 기증했다. 자승 스님은 “대장경천년축제와 대종사 품서식을 치르는 와중에 군 법당 건립에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해인사 총무국장 심우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의 관심 덕분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이 여법하게 회향하게 돼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 늦게 군법당 건립불사에 동참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은 “현재 군법당 건립불사는 70%의 공정이 진행 중으로 불사금은 65%정도 모연됐다. 늦더라도 마음을 내셔서 동참해 주신 것이 중요하고 고맙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앞서 해인사는 11월 28일 해인사 선열당에서 연말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0만원과 쌀 100포(10kg)를 합천군에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 이것이 시절인연

11월 29일 동국대에서 열린 '프라이드 동국 지성콘서트' 에는 이제범 카카오톡 대표가 'e-세상의 연결과 공감' 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제범 대표는 최근 많아진 강연에 "이번 강연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강단에 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번 강연에서 카카오톡 회사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 시대의 모바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리=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10년마다 오는 기회

저는 오늘 강연을 통해 모바일과 카카오톡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역사적으로 컴퓨터 플랫폼은 10년 마다 변화했습니다. 현재는 데스크탑에서 모바일 인터넷으로 변화하는 시점입니다. 재미있게도 각 플랫폼들은 다음 플랫폼으로 연결되지 않고 새로운 플랫폼을 구성해 시장을 장악합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마이프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로 거대한 기업입니다. 이들은 인터넷 시장에서도 강자가 되려고 했지만 결국 구글과 NHN 등과 같은 신 벤처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의 패러다임도 새로운 벤처가, 새로운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게임, 커머셜 등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기존의 강자들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새로운 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못합니다. 포기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플랫폼이 바뀌면 큰 회사가 만들어지고, 큰 시장이 만들어 집니다. 모바일 시장이 만들어내는 회사는 PC회사가 만들어 낸 시장의 규모보다 클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PC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는 16억여 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 수는 41억여 명 입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스마트폰으로 바꾸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PC보다 모바일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2013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바일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할 것입니다.

PC사용자들이 1주일에 평균 3시간 정도 인터넷을 사용해 온 것에 비해 모바일은 24시간 동안 7일 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더 많은 사용자들이,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소셜커머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에 따른 광고와 비즈니스도 확대될 것입니다.

10년 마다 오는 큰 기회를 두고 카카오톡도 새로운 시작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현재 앱스토어에는 50만개, 안드로이드마켓에는 25만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많은 어플리케이션들 중 최고가 되려면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 대한 본질을 고민했습니다. PC는 정보를 검색하는 큰 시장을 만들어 냈습니다. 스마트폰은 통신기기입니다.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큰 시장을 만들어 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시장을 선점하면 그 외에 따른 많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거라 확신했습니다.

카카오톡 서비스는 2010년 3월에 만들어졌습니다. 2011년 11월에 3000만 회원가입을 돌파했습니다. 이 중 20%가 해외사용자입니다. 현재 216개국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동 지역 사용자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현황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안드로이드마켓 · 앱스토어 등에서 좋은 서비스만 만들어내면 세계로 진출하는 것이 전보다 훨씬 쉬어졌다는 점입니다. PC를 사용할 때는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마케팅 없이도 서비스 사용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소셜커머스 서비스에서 중요한 지표는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가 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수록 그 가치는 올라갑니다. 카카오톡의 메시지 사용 건은 2011년 11월을 기준으로 8억개의 메시지를 사용했습니다. 일반 이동통신사의 SMS의 사용료가 20원이라 가정하면 연간 4조원의 규모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언어를 제공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성장속도가 높거나 비즈니스 기회가 큰 나라를 선정해 국가적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는 일본 현지화 작업을 위해 7월 26일 일본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12개국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올해 초부터 사용자 100가지 기능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획자가 어떤 부분이 불편하겠다고 상상만 하지 말고, 사용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5가지 원칙

카카오톡은 2006년 12월에 설립됐습니다. 그동안 카카오톡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와 회사직원들은 많은 실패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실패 과정들을 통해 저희 회사는 5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4명이 2달 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처음 세우게 된 것은 2006년 12월에 첫 번째 프로젝트를 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저희는 글, 그림, 동영상들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는 비슷한 서비스가 기존에 많이 출시돼 시장을 섭렵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 서비스를 만드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만약 그 시간동안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후로 저희는 작은 팀을 구성해 모든 서비스를 2달 안에 개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팀은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로 4명이 한 팀을 이룹니다.

두 번째는 하나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구성된 팀이 서비스 하나를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상품화가 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중복되는 컨셉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바일 시대는 1+1=0.5이어야 합니다. 두 가지 기능을 함께 섞으면 1보다도 못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빠른 시간 안에 이 서비스를 왜 써야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두 번 다시 그 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한 서비스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을 섞게 되면 속도가 가장 중요시 되는 모바일 인터넷에서는 사용자들에게 서비스의 기능을 어필하지 못합니다. 모바일은 작은 화면에 다양한 기능을 담아야 합니다. 때문에 심플함은 가장 최우선시 돼야 합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저희는 개발 기간을 2달로 제한했습니다. 다양함을 넣다보면 시장에 상품을 내놓을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카카오톡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모바일이 급속도로 퍼지기 전에 카카오톡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으려 하기보다 핵심적인 아이디어에

모바일 인터넷 시장 점점 확대되는 추세
모바일은 마케팅 없이도 해외진출 가능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위해 도전함이 청춘

집중해 빨리 출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후에 고객의 반응들을 살펴가며 업데이트 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유연한 조직입니다. 회사 안에서 유연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는 3년 동안 40번이 넘는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모바일 시장이 급변화하기 때문에 전략도 빨리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략에 맞춰 조직도 변해야 합니다.

처음 카카오톡을 출시하기 전에는 카카오아지트라는 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사용자들이 빠르게 증가하자, 저희는 카카오톡에 인력을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는 상황에 맞게 빠른 판단을 내려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신뢰, 충돌, 헌신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구성원 모두가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충돌을 하고 충돌 끝에 내려진 결론에 대해서는 헌신하자는 뜻입니다. 한국사회는 계층화 돼있어 충돌을 합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충돌을 합니다. 저는 이 충돌을 중요시합니다. 한 사람의 천재적인 아이디어보다 여러 사람이 모여 충돌하며 낸 결론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독단자가 내린 결정보다 훨씬 리스크가 적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직장생활은 계층화돼있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는 호칭부터 계층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수평적 구조를 위해 직급은 없애고 직책만 뒀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은 저를 대표님이라 부르지 않고 이니셜인 'JB' 라고 부릅니다.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대표인 제가 어떤 의견을 내면 부하직원들은 반박의견을 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조직 전체에게는 굉장한 이익을 줍니다.



모바일 생태계 구축

카카오톡이 현재까지 단순한 서비스 기능만 해왔다면, 앞으로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비스에서 플랫폼으로 가야할까요. 플랫폼의 진화는 서비스 본질에 있어야 합니다. 카카오톡은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내가 친구들과 연결돼 메시지를 주고받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이런 친구와의 커뮤티케이션을 통해 친구들을 더 확장하고 메시지를 확장시켜 플랫폼으로 변화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지인들과 연결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그룹의 친구들과도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바일 서비스에서 실시간 메시지 플랫폼으로 진화하려고 합니다. 모바일이란 환경 속에서 보다 더 가치 있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2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플러스친구는 스타, 매거진, 기업, 브랜드를 친구로 등록하면 그들이 주는 정보와 혜택들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 중 가장 인기를 끄는 것은 외식업체입니다. 할인 쿠폰을 실시간으로 발송하고, 그 쿠폰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메일 서비스에서는 쿠폰 사용자가 10~15%에 불과했지만, 모바일 쿠폰의 사용자는 40%가 넘습니다. 또한 응모나 경매 이벤트에서도 참여율이 90%가 넘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플러스친구를 통해 웹툰 · 날씨 · 주가 · 기부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링크는 외부의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게임 등을 할 때, 카카오톡 접속하면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게임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 1000개가 넘는 앱이 연동돼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의 핵심은 어떤 플랫폼을 상상해서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선 함께할 파트너들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파트너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통해 플랫폼을 만들고 다시 리스크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가 이런 플랫폼을 만들려는 이유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카카오톡 혼자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도 있겠지만, 소셜커머스를 통해 K-Pop, 게임 등 다양한 컨텐츠들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다면 이는 한국의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고 훨씬 더 큰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일입니다.

다른 개발사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은 카카오톡이 모바일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기업의 철학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서비스가 플랫폼을 통해 많은 회사들과 함께 성장하고, 이로 인해 세상이 나아질 수 있다면 이것이 카카오톡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일주일 철야정진법회 안내



선릉역 부근에 위치한 보림선원 서울선원에서는 제76회 동계 철야정진 법회를 실시합니다. 일주일 철야정진 법회는 백봉선생님께서 학인들을 개오(開悟)시키기 위해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실시 하셨습니다. 생업에 종사하고 혈연을 돌보면서 시간과 공간을 짜네 공부해야 하는 학인들이, 일주일 철야 정진 기간 동안 좌선과 설법을 통해서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하는 거사풍의 공부 방편입니다. 특히 이번 정진에는 백봉선생님의 육성설법과 녹취집을 교재로 하며, 아울러 일심행 서울선원장의 법문과 함께 학인들과의 개별면담도 있을 예정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11년 12월 29일 (목) 오후 8시부터
  2012년 1월 4일 (수) 오전 7시까지
- 내 용 : 참선, 백봉선생님 설법, 선원장 법문, 면담
- 장 소 : 보림선원 서울선방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6-33)
  선릉역 7번 출구나와 200미터 커핀그룬나루 좌회전
  오른쪽 두번째 빌딩 2층
- 회 비 : 일주일 기준 10만원, 참석기간에 따라 자유로이
  납부가능 합니다.
- 접수 및 문의 : 010-6332-4096 / 02)3452-3033
- 준 비 물 : 간편한 참선복, 세면도구

* 개인사정에 따라 하루나 이틀 참석하거나,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틈틈이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좋은 공부인연 지으시기 바랍니다.

보 림 선 원 서 울 선 원 장 합장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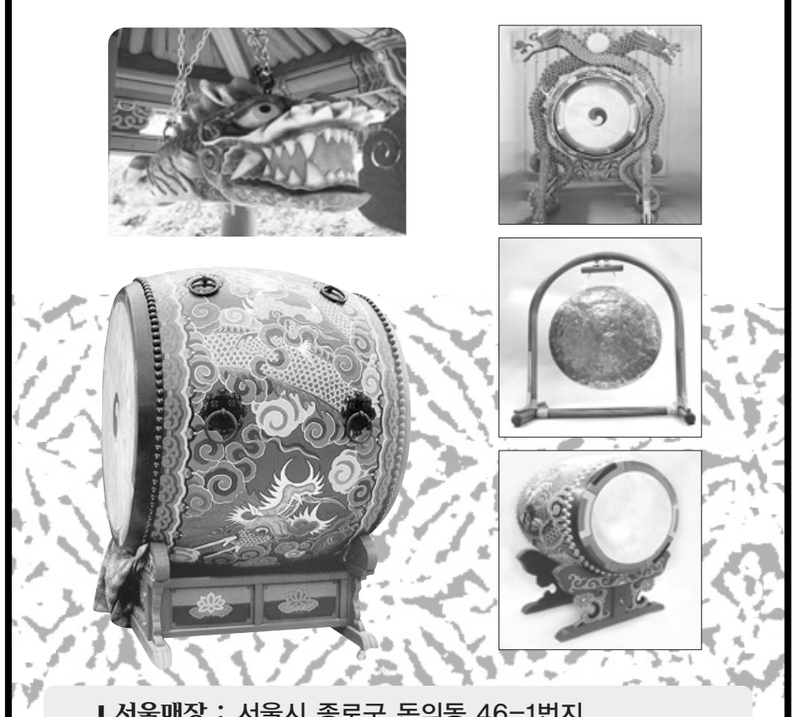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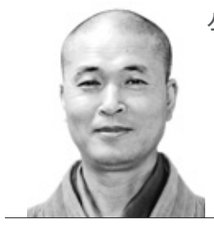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FTA 시비는 불법 아니다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비로자나불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흰 낙타는 왔는가?"
그 스님이 대답했다.
"왔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끌고 가서 풀을 먹여라."

問 如何是毗盧師 師云 白駝來也未 云來也 師云 牽去 餵草

비로자나불은 정법을 상징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어떤 법칙을 발견하면 그것은 비로자나불의 법칙을 발견한 것이다. 예컨대, 석수장이가 돌을 쪼개는 방법을 터득하였거나, 목수가 집을 짓다가 특이한 법칙을 발견하였다면 비로자나불의 법칙을 발견한 것이다.

조주 스님이 "낙타가 도착했으면 풀을 먹여라" 하고 말한 것은 당연한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곧 비로자나불이야 하고 말한 것이다.

누구든지 당연한 말을 하면 그가 곧 비로자나불이다. 특히 풀 먹일 때가 되어 "끌고 가서 풀을 먹여라"라고 한 일상적 당연한 말은 곧 비로자나불의 법이다. 그러나 FTA 합의가 옳다든지, 아니면 그르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비로자나불의 법이 아니다. 그 합의는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확실한 합의는 급히 서두를 필요 없다. 합의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스승 없이 깨달은 지(智)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가르친 적이 없지 않는가?"

問 如何是無師智 老僧不曾教闍黎

진정한 선사라면 가르쳐도 가르친 것이 없다고 말한다. 나도 없고, 가르칠 법도 없고, 가르침을 받을 자도 없는 것이 정법(正法)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최후에 말했다. "나는 한 마디로 설하지 않았다"하고.

조주 선사는 평생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폈다. 그러나 선사는 역기서 제자에게 가르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가히 정법을 말한 것이다. 지혜는 본래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다. 가르침은 중요하지 않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중요하다.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스승은 단지 진리를 알려줄 뿐이다. 지혜를 터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스승 없이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사상(禪思想)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가장 친절한 1구입니까?"
조주 선사가 말했다.
"떨어졌느니라."

問 如何是親切一句 師云 話墮也

선불교에서 일구(一句)는 핵심과 통하는 한 마디이다. 선(禪)의 요점이고, 도(道)와 통하는 외마디이다. 선객들은 선사의 이 일구를 듣고 즉석에서 깨닫는 경우가 많다. 선사의 한 마디는 그만큼 함축적이고 본질과 통하면서 폐부를 찌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주 선사는 그야말로 답답한 사람의 가슴을 뚫어주고, 본질과는 일맥상통하고, 도에 근접한 한 마디를 던진 것이다. '떨어졌다'는 말은 말 그대로 알아들으면 된다.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이고, 지옥에 떨어진 것이고, 남보다 뒤떨어진 것이고, 도에 천부당만부당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 한 마디는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에게 큰 빛이 되고 확실한 지침이 된다. 참으로 열심히 수행하고 도와 진리를 찾는 자라면 이 말에 머리가 트일 것이고, 3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가슴이 시원해질 것이다. 그는 비로소 저 언덕에 이른 것이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선사의 이 한마디가 참으로 대단한 위력이 있음을 안다. 무불선원 선원장

선경 해제
한국선과 선어록

승만경

여래장 사상을 천명한 경전

〈승만경(勝鬘經)〉은 〈승만사자후경(勝鬘師子吼經)〉 〈사자후방광경(師子吼方廣經)〉 〈승만대방편방광경(勝鬘大方便方廣經)〉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 등으로 불린다. 〈승만경〉은 초기 대승경전으로부터 다져진 대승의 교리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단계에 있으면서 반야사상을 바탕으로 한 여래장사상의 근본경전으로 간주돼 있다.

구나발타라가 5세기 중반에 번역한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에 의하면 그 교리에서 대승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본래부터 일체중생에게 여래의 성품이 동일하게 구비되어 있다는 여래장 사상에 대하여 설한다. 이에 중생의 본성은 청정하기 때문에 그 본성이 드러나면 법신이 출현하고 성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체중생이 그대로 여래장이라는 것을 세 가지 측면 곧 여래의 3종자성의 입장에서 교리가 전개된다. 첫째는 여래법신이 편만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여래장이 존재하는 근거이다. 둘째는 여래진여가 무차별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중생과 여래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여래종성이 일체중생에게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여래장의 발현을 가리킨다.

승만부인이 10대수 세워 실천 발원하고 반야사상 바탕…일체중생 그대로 여래장 〈유마경〉과 함께 재가득도의 신앙 표방 붓다, 제석천에 승만부인 설법 수지 당부

때문에 이 여래장사상은 불성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선종에 수입돼 달마로부터 비롯된 조사선의 사상적 배경인 본래성불의 근거가 됐다. 이것은 반야공관과 결합돼 무분별과 무집착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에서 깨침의 전개와 구현을 겨냥하게 됐다. 때문에 여래장은 돈오성불의 바탕으로서 그 본질은 곧 자성(自性), 인(因), 과(果), 업(業), 상응·결합(相應·結合), 행·현현(行·顯現), 분위차별(分位差別), 변일체처(遍一切處), 불변이(不變異), 무차별(無差別)의 10가지 의미를 그 속성으로 한다. 나아가서 그에 대한 비유로는 시든 꽃잎 속에 나타나 있는 화불(化佛), 갖가지 벌들의 꿀, 나락의 껍질 속의 쌀알, 쓰레기 속에 감추어진 진금, 땅속에 파묻혀 있는 보물, 열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씨앗, 누더기옷 속에 싸여 있는 보상(寶像), 빈천한 여인이 잉태하고 있는 왕자, 모형틀 속에 들어 있는 금상(金像) 등 아홉 가지를 언급한다.

경전 전체는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 여래진실의공덕장(如來眞實義功德章)은 파사익왕과 말리부인은 아유사국으로 시집간 딸인 승만부인에게 보리심을 내도록 편지를 보낸다. 이로써 승만 부인과 그 권속들은 부처님을 친견하여 수기를 받는다.

제2 십수장(十受章)은 수기를 받은 승만 부인이 열 가지 서원을 세운다.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계율을 지니는 것, 어른에게 오만하지 않는 것, 중생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 질투심을 지니지 않는 것, 인색한 마음을 지니지 않는 것, 재물을 남에게 보시하는 것, 중생을 위한 사섭법을 행하는 것, 불쌍한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것,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것, 정법을 지키겠다는 것 등이다.

제3 삼원장(三願章)은 중생을 안온케 하는 큰 지혜를 얻는 것, 중생을 위하여 끝까지 가르침을 설하는 것, 신명을 바쳐 정법을 수호하겠다는 것 등 세 가지 대원을 세운다. 제4 섭수장(攝受章)은 정법을 섭수하는 의의와 그에 대한 비유, 그리고 정법을 섭수하는 것이 곧 육바라밀임을 설명한다. 이에 승만부인은 부처님으로부터 정법을 섭수하는 것은 곧 이익과 복덕과 과보가 수반되는 것이라는 찬탄을 받는다. 제5 일승장(一乘章)은 정법을 섭수하는 것이야말로 그대로 대승임을 설명한다. 성문·연각·출세간의 선법도 모두 대승을 의지하여 자라나고 머무르는 것임을 설명한다. 나아가서 잠재적인 네 가지 번뇌를 끊고 일승의 법에 나아갈 것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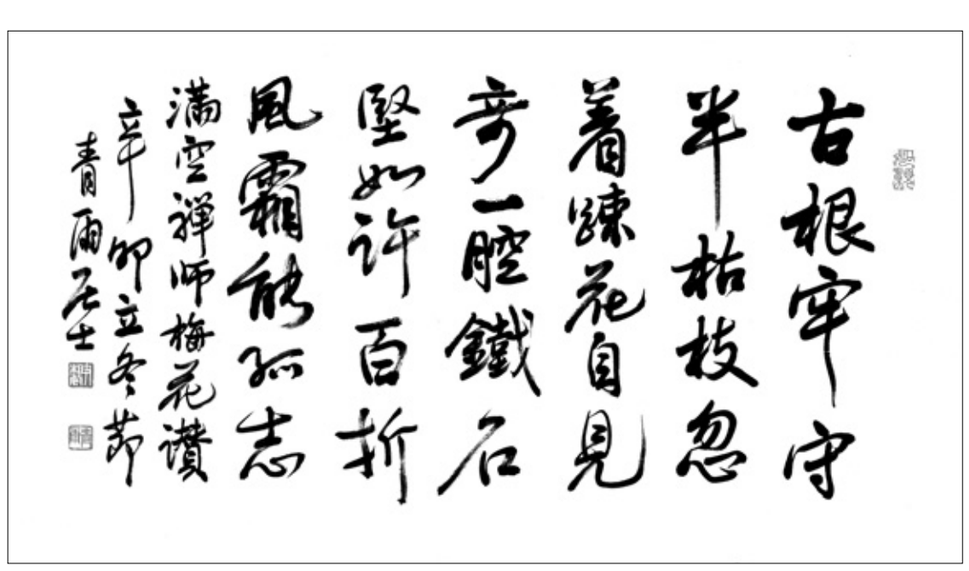
제6 무변성제장(無邊聖諦章)은 성스러운 진리는 성문이나 연각의 유한한 공덕을 초월한 것으로 여래·응공·등정각이 성취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제7 여래장장(如來藏章)은 성스러운 진리는 곧 여래장을 가리키는 것이라 설명한다. 제8 법신장(法身章)은 유위법의 성스러운 진리 네 가지와 무위법의 성스러운 진리 네 가지를 말하고, 이 가운데 무위법의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야말로 여래·응공·등정각의 법신이 터득하는 경계임을 설명한다. 제9 공의은복진실장(空義隱覆眞實章)은 모든 번뇌를 벗어난 공여래장은 오직 여래만이 터득하는 경지임을 설명한다. 제10 일제장(一諦章)은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집성제·도성제를 벗어난 것만이 제일의제라고 설명한다. 제11 일의장(一依章)은 위에서 말한 제일의제는 곧 멸성제임을 설명한다. 제12 전도진실장(顚倒眞實章)은 상견과 단견은 전도된 견해이고, 열반의 상·락·아·정이 청정한 견해임을 설명한다. 제13 자성청정장(自性淸淨章)은 여래장은 여래의 경계로서 본래부터 번뇌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성품임을 설명한다. 제14 진자장(眞子章)은 진정한 선남자 선여인은 대승에 들어가고 깊은 진리를 성취하며 깊은 지혜를 따르는 자임을 설명한다. 제15 승만장(勝鬘章)은 승만부인 및 그 권속들이 부처님으로부터 찬탄을 받고는 집으로 돌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대승법을 전도한다. 부처님은 제석천과 아난에게 위의 15장에 걸친 가르침은 모두 대승법이므로 잘 수지하고 독송할 것을 부탁한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윤상민의 서화산책 매화찬

백번 꺾는 풍상에 절개 지키네



古根牢守 半枯枝忽 着疎花自見 奇一腔鐵石 堅如許百折 風霜能孤志 (고근뢰수 반고지홀 착소화자견 기일강철석 견여허백절 풍상능고지)
묵은 뿌리 굳게 지켜 반쯤 마른 가지에 몇 송이 꽃이 피어 신기함을 보이네 온 몸의 철석 같은 굳음이 이러하여 백번 꺾는 풍상에도 그 절개 지키나니

牢: 굳을 뢰, 우리 뢰
忽: 갑자기 홀
疎: 성길 소
腔: 속빌 강
鐵: 쇠 철
孤: 외로울 고

청	신	만	풍	견	기	착	반	고
우	묘	공	상	여	일	소	고	근
	입	사	능	허	강	화		지
거	동	매	화	고	백	철	자	뢰
사	절	찬	지	절	석	견	홀	수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2학년도 신·편(학점은행제)입생 모집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어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 되어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하여 불교의식과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신입학, 수료과정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상주권공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 1~7	30
각배	각배과정	목	오후 1~7	30
영산	영산과정	금	오후 1~7	30
불교무용(작법)	바라춤/나비춤	수	오후 1~7	30
불교의식(실기)	시련/대령/관욕 상단/영단	월	오후 1~7	30
불교의식(이론)	불교의식	화	오후 1~4	재학생 졸업생

학 점 은 행 제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영산재의례절차I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 1~7	30
범패실습I	각배과정	목	오후 1~7	30
영산재의례절차II	영산과정	금	오후 1~7	30
작법실습	작법과정	수	오후 1~7	30
영산재의불교 예술적특징	불교음악&무용	화	오후 1~4	30

편 입 학				
모집학과	교수요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7	약간명

■응시자격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등 교역자 및 일반인
◈학점은행제과정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기 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편 입 학 과 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제출서류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원서대 및 전형료 50,000원
◈학점은행제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분, 반명함판 사진 3매
◈편 입 학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전형일정 : 2012년 1월 16일 ~ 2월 24일
■원서교부 및 인터넷 접수처 : 본 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접수
■합격자발표 :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특 전
1.재학생 중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시 종단이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합동득도 수계산림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2.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 수료 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자격을 부여 (단, 입학시 승려에 한하며 재학중 출가자는 제외)
4.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5.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선발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옥 천 범 음 대 학
2011년 동계방학 특강안내

과목	생전예수재	법 고
교수	마일운 스님 (영산재보존회 회장)	이기봉 스님 (옥천범음대 학장)
기간	12월 19일~ 2012년 1월 17일(5주) (매주 월요일 , 수요일)	12월 20일~ 2012년 1월 18일(5주) (매주 화요일)
시간	오후 3시~5시 (2시간)	오후 1시~5시 (4시간)

※ 과목별 수업요일과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특강 수강신청서 1부 (행정실)
접수문의 : 02) 392-3234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학장 이 기 봉 합장

사찰 경관은 양식·재료·기술의 조화 여부에 달려



동국대 교내법당인 대각전의 디자인은 현대사찰에서 전통사찰의 계단을 재해석한 좋은 사례다.



재료와 축조방식이 무질서하게 조합된 계단

계단(2) 나쁜 사례

계단의 치수

계단의 높이는 기단이나 석단의 높이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 사찰은 산간 경사지에 조성돼 공간 사이의 높이 차이가 심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통일신라 전후에 세워진 화엄사찰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부석사 화엄사 범어사 해인사의 경우 공간을 연결하기 위한 계단이 많고 그 높이 또한 매우 높아 다른 산지사찰과 뚜렷하게 비교된다.

미국의 조경학자 로렌스 할프린(L. Halprin)은 옥외계단의 디딤돌치수는 디딤돌 높이(r)의 2배에 디딤돌의 폭(t)을 합한 수치, 즉 2r+t가 25인치(약 66cm)일 때 가장 좋다고 했다. 일본 건축자료집성에는 2r+t가 63cm 정도 될 때 양호하다고 했다. 이것을 보면 옥외계단 디딤돌의 치수는 대체로 2r+t가 63~66cm 정도가 휴먼스케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계단 디딤돌의 치수에 관한 이 수식은 디딤돌의 높이와 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만약 폭이 30cm일 경우 높이는 16.5~18cm가 돼야 오르내리기에 편한 계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계단의 치수에 비해 경사가 심하고 지형차가 크게 나타나는 우리나라 산지사찰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인다. 부석사는 디딤돌의 높이가 20cm 내외일 때 폭이 30cm 내외인 경우가 많고, 해인사는 높이가 22cm 내외, 폭 30cm 내외의 계단이 많으며, 범어사는 높이가 20~24cm, 폭은 30cm 내외의 계단이 많다. 이것을 보면 산지사찰 특히 화엄사찰은 계단 디딤돌의 폭이 30cm 정도이며, 높이는 20~24cm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단 디딤돌의 치수는 폭에 비해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아 계단의 전체 길이는 길고 높이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산지사찰에 축조된 계단의 특징이다.

계단에 표현된 상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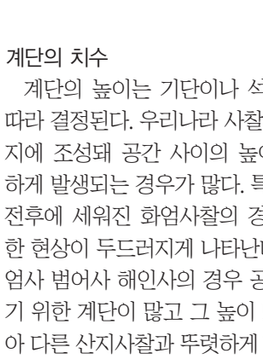
사찰경관은 불교사상과 교리의 현현이다. 따라서 사찰의 모든 경관은 경전의 내용을 형식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계단의 조성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관성은 예외일 수 없다. 계단수를 108개로 한 것은 108번뇌를 상징하는 것이고 48개로 한 것은 48대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33개로 한 것은 33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수의 적용은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계단이 속의 공간으로부터 성의 공간으로 이행하는 하나의 통과의례적 개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불국사 극락전으로부터 대웅전으로 오르는 계단수를 48개로 한 것이나 연화·칠보교 단수를 33개로 한 것은 바로 법수를 통해서 상징성을 구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법수를 통해서만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동국대 교내법당인 대각전의 경우 건물내부의 계단을 수미산세계로 오르는 과정으로 생각해 계단을 도입하고 법수를 목재로 조각해 설치했는데, 이러한 디자인은 현대사찰에서 전통사찰의 계단을 재해석한 좋은 사례다. 계단 디딤돌 입면에 연꽃잎을 새긴 것 또한 불교적 상징성을 보여주는 디자인적 해결방법으로 생각된다. 향후 도심사찰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대각전에서 시도한 이러한 디자인적 접근방법이 발전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해본다. 이것이 바로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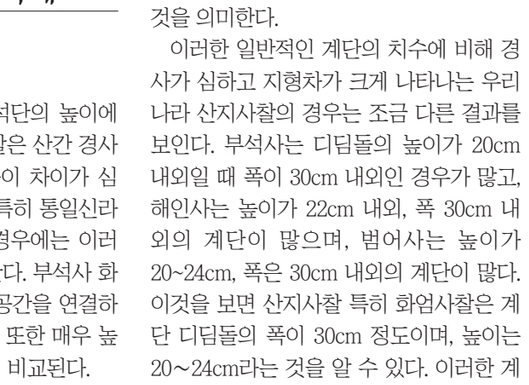
좋지 않은 사례

우리나라 전통사찰에 만들어진 계단은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것들이 많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들도 보이는데, 그러한 좋지 않은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식·재료·기술상의 문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양식상의 문제는 그 사찰의 경관성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으로 과도한 디자인을 적용한 경우, 전통사찰 계단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요소를 잘못 해석해 이상한 양식을 만들어낸 경우, 원래 있었던



부석사 안양루 계단



불국사 극락전에서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48계단



모르타르로 점합한 자연석 계단은 전통사찰의 이미지를 훼손한다.



한 사찰의 화강석 계단의 줄눈이 보여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108·48·33계단 불교적 의미 담겨
과도한 디자인 오히려 부조화

계단의 디자인과는 다른 디자인을 적용해 사찰의 원형성을 해치는 경우 등 다양하다. 과도한 디자인을 적용한 경우는 산지사찰에서 화강석 계단의 소맷돌에 화려한 문양을 넣거나 난간대 받침을 화려하게 조각해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디자인이 일견 특별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으나 산사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것이어서 좋은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디자인요소를 잘못 해석한 경우로는 법수석을 지나치게 강조해 법수석의 전통양식과 아주 다른 형식을 만든 경우를 꼽을 수 있다. 특히 계단의 높이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법수석의 높이를 과장할 경우 건물의 아름다움을 반감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좋지 않다. 원형성을 해치는 경우는 장대석 석단에 부속된 계단을 색상의 차이가 확연한 화강석을 말끔하게 가공해 처리한다든지 하부에 콘크리트 기초를 하고 판석을 붙이는 등 전통양식과는 다르게 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사찰이 지닌 진정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좋지 않다.

재료상의 문제는 기존의 재료와는 전혀 다른 재료를 사용해 원형성을 해치는 경우, 재료의 사용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기존의 재료와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시간이 만들어낸 디자인의 변화로 볼 수도 있겠지만 원형성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궁극적으로 좋지 않은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 다음으로 재료의 사용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석단의 재료, 계단의 재료가 서로 달라 부조화된 경관을 만드는 것으로 계단을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기술상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계단을 축조하는 방식이 아닌 특별한 방식을 선택하거나 잘못된 방식을 선택해 전통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특별한 방식을 선택한 경우로 통석을 깎아 계단을 축조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축조방식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 공을 들인 계단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그 사찰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축조방식을 따르는 것이 진정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므로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만약 현대사찰에서 이러한 축조방식을 시도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이나 그것도 사찰의 장소성이나 전체적인 경관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한편, 잘못된 축조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통사찰에서 콘크리트 구체를 치고 그 위에 화강석 판석을 덮어 시공하는 것, 자연석 계단을 놓으면서 돌을 모르타르로 접합하는 것, 화강석 계단을 놓으면서 줄눈을 모르타르로 처리하는 것과 같은 기술은 전통사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므로 피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통사찰에서 나타나는 시공기술의 우수성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좋지 않은 시공방법을 선택해 사찰의 경관을 해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LEADER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3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대법회

- 국 제 포 교 사(승려, 재가법사) 품수식 -

출가승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생교화 ,인간방생의 사명아래
승가의 본분을 이루고자 봉사와 헌신의 땀을 흘려 보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환경에 오염되어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포살과
참회의 기도로 더더욱 정진하곤 합니다만, 왠지 부족함을 늘 느끼곤 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300여 종단을 불문 어느 종단의 스님이든
모두가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이라도 새롭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겠다는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具足戒를 주실 三師 七證 大元老 큰스님들을
모시고 상좌부 불교 승려로 거듭나는 남방불교 비구, 비구니 수계를
50분의 큰스님들과 5백여 스님들의 독경에 맞추어 봉행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 법석, 국제 금강 계단을 마련했습니다.

연방 승가회 계첩(戒牒) 수여

■ 일 시 : 2012년 2월 10일. 수계의식 7박 8일
■ 장 소 : 미얀마 양곤 연방 승가회 원로원 (종교성내)
■ 참가신청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02) 733-5670. 5665
이력서 1통, 승려증 사본1통, 사진3매, 여권을 우편으로 우송.

* 법종단 차원으로 어느 종단, 어느 스님이든
모든 스님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 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한국주재미얀마문화원, 미얀마 관광청
후 원 : 미얀마연방공화국 종교성, 미얀마 연방 승가회

천축사 무문관 수행은 눈 밝은 납자들의 무언의 계승

현대 불교수행의 상징 천축사 무문관(天竺寺 無門關)

불교의 본령은 수행이다. 수행이 돼야 포교가 된다.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는 물론이요 중국과 한국 그리고 동남아에서 수행의 치열함이 있을 때 불교가 발전했다.

현대에 이르러 한국불교는 타종교에 비해 포교가 안 된다고 한다. 앞으로 불교인구가 줄어 위기를 맞는다는 견해도 있다. 젊은 층의 신앙분포를 보면 타종교가 앞선다. 타종교의 열성적인 노력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불교의 수행이 그들을 능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반문해 본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대중들의 절대적 호응을 받았던 시대를 보면 그 저변에 치열한 수행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면으로 볼 때 불교에서 수행은 절대적 가치라고 말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난 10월 5일 도봉산 기슭에 있는 천축사 무문관이 폐관 30여 년 만에 복원됐다. 예전과 달리 비록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해 치열한 수행의 이미지는 아니지만 현대 불교수행의 상징성이 복원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천축사 무문관은 1964년 육영수 여사의 보시로 건립되기 시작했다. 다음해 12월 27일 낙성된 무문관에 제선 · 홍근 · 혜원 · 관응 등 모두 22명의 납자가 6년 결사에 참여했다. 모두가 부처님과 같이 6년을 수행해 깨달음을 얻고자 했다. 시작은 쉬웠으나 마지막까지 남기는 어려웠다.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 자신의 의식을 옥죄었다. 예전에는 그냥 흘려버린 바람과 빗방울 소리 하나가 정답게 느껴졌다. 모든 인연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수행이었지만 단절은 또 다른 번뇌를 만든다. 세상과 담을 쌓으면 평상시 관심 없던 일들도 스멀스멀 머릿속에서 빠져나와 번민의 씨앗이 됐다.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어서 원하지 않으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자신만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게 했다. 결국 싸움에서 패배한 수행자는 하나 둘 그곳을 나갔다. 1972년 4월 28일 6년 결사를 마치고 보니 회향한 수행자는 관응 · 경산 · 지효 · 현구 · 석영 등 5명이었다. 중도에서 그만둔 17명의 수행자의 근기가 약한 것이 아니라 5명의 수행자 근기가 높았던 것이다. 세상과 등지고 6년이란 시간 동안 자신을 성찰한다는 것은 평범한 근기로는 할 수 없는 일임이 증명됐다.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해 11월 16일 시작된 제2차 결사는 성운, 무불 원공 등 5명의 납자가 입제했다. 제1차 결사를 통해 무문관 수행의 어려움이 알려졌기 때문에 참여자가 적었다. 그래서 정예의 수행자만이 온 탓일까. 이들은 1978년 11월 10일 6년의 수행을 마치고 회향했다. 이들을 끝으로 그 후 3차 결사는 이어지지 않았다. 결국 1979년 천축사 무문관은 폐쇄됐다.

12년에 걸쳐 두 번 행해진 무문관 수행은 인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한국 현대불교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불교의 변질에도 지속된 수행전통과 광복 이후 승풍을 회복하려는 움직임과 사상적 맥락이 같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일본불교의 영향에도 한국불교가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은 올곧은 납자들의 수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문관의 수행처럼 외부와 단절한 채 수행한 것으로 한암과 효봉이 유명하다.

먼저 한암은 1921년 건봉사 결사를 끝으로 1925년 잠시 봉은사 조실로 있다가 1925년 스스로 맹세하기를,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춘삼월에 말 잘하는 앵무새는 배우지 않겠노라"하고 오대산에 들어가 선 염불 간경 의식 수호가람 등 승가오칙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은 후 27년 간 동구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효봉은 38세가 되던 1925년 음력 7월 8일 외금강산 신계사 보운암(普雲庵)에서 석두(石頭)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늦은 나이에 출가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깨달음에 대한 갈망이 컸다. 출가 다음해인 1926년부터 용성과 수월 등 선지식을 친견하고 법을 묻는 등 정진했지만 뜻을 이룰 수 없었다. 마음이 급했던 효봉은 결단을 내렸다. 1930년 43세가 되던 해 금강산 법기암(法起庵) 뒤편에 토굴을 짓고 '일일일식 장좌불와(一日一食 長坐不臥)'의 필사적인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그 후 1년 6개월의 수행 끝에 1931년 여름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수행을 현대에 계승한 수행자가 성철이다. 그는 1955년 전쟁이 휴전과 종단의 정화라고 하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대구 팔공산 파계사 암자인 성전암에서 10년 동안 철망을 치고 신도들의 접근을 막고 동구불출의 수행을 했다.

천축사 무문관 수행은 없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불교 정체성이 무엇인지 끊임 없이 탐구한 눈 밝은 납자들의 무언의 계승이다.

광복 후에도 한국불교 상황은 녹녹치 않았다. 3년간 실시된 군정기간 동안 한국불교계는 미국을 통한 서양문물의 유입과 기독교 선교라는 새로운 변화와 함께 친일불교의 척결이라는 이중고를 해결해야 했다. 독립운동 경력을 가졌던 불교계 인물들은 교정혁신을 위해 기존 종단의 간부들을 해임시키고 8인의 위원으로 '조선불교혁신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남한의 60여 승려가 참여한 대위원회를 개최해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이들은 일제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 31본산제를 폐지하는 한편 13도(道)에 교구를 두고 교무원을 신설했다.

새로운 집행부가 된 교무원은 1946년 8월 모범총림을 시설해 선, 교, 의식 등으로 도제를 양성하려 했다. 이 안은 중앙종회에서 결의돼 1946년 10월 합천 해인사에 재단법인 가야총림이 설치됐다. 그리고 11월 6일 송광사에 주석하고 있던 효봉을 조실화상으로 위촉했다.

송광사 회주로 있던 효봉은 이미 1946년 7월 15일 하안거 해제일에 삼일선원에서 '약미발명사(若未發明大事)면 서불하산(誓不下山)'이란 발원과 함께 동구불출(洞口不出) 오후불식(午後不食) 장좌불와(長坐不臥) 묵언(默言)의 청규를 정해 3년 결사에 정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보단 한국불교 전체를 생각하고 송광사에서 해인사 퇴설당으로 옮겨왔다. 그의 수행력을 익히 알고 있던 인곡 · 순호 · 구산 · 법홍 · 석호 · 금담 · 혜진 등 사방의 수행자가 모여 대회상을 이루었다. 이후 해인사에서는 사유 토지를 분할해 재단법인을 만들어 한국불교의 혜명상속(慧命相續)과 우리 승단의 청규호지(淸規護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그리고 납자들이 운집하자 총림의 규약을 제정하면서 결사는 한층 더 공고히 진행됐다.

이런 총림과 달리 성철은 개인적인 결사를 주도했다. 1947년 문경 희양산 봉암사에서 선종 본래의 종풍을 회복하고 옛 총림의 법도를 이 땅에 되살리고자 결사를 주도했다. 이곳에 뜻을 같이하는 도반과 젊은 수좌들이 운집했다. 그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참여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청담 향곡 자운 월산 혜암 법전 등으로 이들은 해방 후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교단의 초석을 세웠다. 이들에 의해 교학연찬, 참선수행, 대중포교라는 근본적 의미를 상실한 교단과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기복적 형식의 의례 그리고 한국불교 속에 스며든 일본불교의 수행풍토가 시정될 수 있었다.

효봉과 성철의 수행은 모두 한국전쟁 때문에 불가피하게 무산됐지만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결사운동이었다. 이런 결사의 생활은 지금까지의 승가생활을 크게 변화시켜 한국불교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천축사 무문관 수행은 한국불교 정화운동 가운데 진행됐다. 일본불교의 영향을 척결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불교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실추됐다. 그런 과정에서 12년 동안 진행된 수행은 앞선 수행과 사상적 맥락이 같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무문관이기 때문에 30여 년 만에 복원은 단순히 건물의 복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은 비록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해 명상과 묵언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이라 하지만, 언제가 눈 밝은 납자가 있어 다시 한 번 치열한 수행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김경집/진각대 교수

천축사 무문관 30년 만에 복원
현대 불교수행의 상징적 의미 내포
22명 남자 깨달음 얻고자 6년 결사
무문관 수행 승풍 회복 노력과 일치

한암과 효봉 스님, 외부 단절 수행 대표적
효봉 스님은 수행자들과 총림 규약 제정
동구불출 현대적 계승한 성철 스님은
봉암사 결사로 종풍 회복 주도하기도



최근 복원된 무문관은 시민들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천축사 무문관이 30년 만에 복원돼 10월 5일 개관법회가 열렸다.



무문관 개관법회에 참석한 불자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허리찜질,족욕,좌욕,반신욕,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2012년형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 전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2020년까지)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중소기업청 청업진흥원 '청의적 기업가상'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엇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조계종이 친일파에 의해 만들어졌다?

지암 이종욱을 재조명하다



조계종의 산파 지암 이종욱
박희승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 6000원

"그의 친일행적은 실은 특이한 것이었다. …(중략) 이종욱의 이러한 적극 친일이 실은 독립운동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이었다고 한다. 해방 후 밝혀진 바인데, 이종욱은 적극 친일을 하는 한편 임정과 계속 연락을 가지면서 군자금을 밀송하곤 했다고 한다."(본문 219쪽)

친일파 연구로 일생을 바친 시인 임종국은 저서 〈실록 친일파〉에서 지암 이종욱 스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암 이종욱(1884~1969) 스님은 누구인가. 지암 이종욱 스님은 한국불교의 상징인 조계종과 조계사를 재건한 주역이다. 하지만 이보다 '불교계의 대표적 친일파'로 사람들에게 더 알려져있다.

10여 년 동안 지암 이종욱 스님을 연구해온 저자 박희승 조계종 문화부 차장은 최근 〈조계종의 산파, 지암 이종욱〉을 펴내 스님의 일대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조명했다.

저자는 조계종 불학연구소 연구과장 재직 당시,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으로 국가훈장을 받은 이종욱 스님이 친일파로 비판 받는데 이에 대한 종단의 의견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 후로 지암 이종욱 스님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지암 이종욱 스님의 친일파가 전면화 된 것은 임혜봉에 의해서다. 1993년 임혜봉은 저서 〈친일불교론〉(민족사)에서 "이종욱의 친일은 조선불교계 친일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친일행적과 조선불교 조계종의 성립, 그리고 종명의 제정과 그 존속 여부 등은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은 현 조계종이 일제 당국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저자는 "지암의 일제협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제강점기 전반부에 눈부신 항일운동을 했던 지암이 3년간 감옥살이 후 월정사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 사찰과 교단활동에 뛰어들었다. 조선불교도의 숙원이었던 총본산 건설을 성사시켜 조선불교조계종을 재건하고 종정 한암 스님의 지시로 종무총장 자리를 맡아 종단을 책임졌다"며 "이 과정에서 지암은 종단의 책임자로 일제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암은 일제강점기 말기 법명 종욱 앞에 출생지 '광정리'에서 따온 '광전(廣田)'을 앞에 붙여 '광전종욱(廣田鍾郁)'이라고 창씨개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저자는 "지암을 친일파로만 비판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가 없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일제강점기의 많은 친일파처럼 지암은 자신의 출세나 부귀영화를 위한 행위는 찾아볼 수가 없다"며 "그는 조선불교도의 오랜 염원인 총본산 건설과 교단 재건을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오욕을 감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총본산 태고사(現 조계사) 건축공사 장면

저자는 "조계종 원로 큰스님들이신 석주 · 고송 · 관응 · 범룡 · 천운 스님 등 20여 명을 직접 찾아 당시 증언들을 들어본 결과 한결같이 지암은 친일파가 아니라 일제에 협력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항일운동을 했던 애국자였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지암 이종욱 스님은 파고다공원의 3 · 1만세운동에 직접 참가했으며, 한성임시정부 수립에 불교계 대표로 참여한 뒤 중국으로 건너가 상해임시정부 내무부 참사, 국내특파원으로 연통제 국내조직 총책,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 대동단과 김가진 이강공 상해망명사건 주도, 청년외교단 애국부인회 대한적십자사 조직, 대한불교 독립선언서 대한의용군승단 주도, 불교계의 상해임시정부 지원 등 많은 항일운동을 펼쳐왔다.

저자는 "조계사와 조계종의 재건자인 지암을 통해 한국불교 근현대사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길 바란다"며 "앞으로 이런 사실에 대해 공정한 재평가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Open the Mind, See the Light"

(마음을 열고, 광명을 보라)

붓다 정통 법맥 선사 중 최초로 禪의 바른 안목을 서구에 전파

"What was your original face before your parents gave birth to you?"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진제 스님(동화사 · 해운정사 조실)은 최근 부처님 정통 법맥을 이은 선사 최초로 영문 법어집을 출간했다. 〈Open the Mind, See the Light〉는 올해 9월 15일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열린 '세계평화를 위한 간화선 대법회' 법문과 언론 보도, 국내에서 설법한 각종 법문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영문 법어집은 선(禪)의 바른 안목이 서구사회에 전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진제 스님은 산중스님들의 전유물로 내려오던 간화선 수행법을 일반인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선의 대중화 · 생활화에 앞장서 왔다. 이 책은 한국의 간화선 수행법을 지구촌에 전파해 인류 각자의 내적 평화를 통해 세계평화를 실현하려는 진제 스님 원력의 결실이다.

동양정신문화의 정수인 간화선 수행법은 세계 여러 나라 중 한국에서 가장 활발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화 60년 동안 간화선 수행의 전통이 메말라버렸고 일본은 형식적으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간화선 수행의 원형이 살아있는 유일한 나라로 꼽힌다.

〈Open the Mind, See the Light〉는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 현각 스님이 번역하고 세계적인 불교학자 로버트 버스웰 교수(美 UCLA)가 감수를 맡았다. 눈 밝은 선지식의 가르침에 목말라하던 외국인 수행자들에게는 단비 같은 법문집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제 대선사는 앞으로도 영문 법어집 2만 권을 인쇄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등 6개국 2000 여 주요대학 도서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Open the Mind, See the Light
진제 대선사 지음
매경출판 펴냄
2만원

진제 대선사는 "앞으로 과학에 뒤떨어진 종교는 도태할 것이며, 21세기에는 선(禪)이 세계를 휩쓸 것"이라며 "물질이 풍요로워도 마음의 평화는 따라오지 않는다. 마음의 갈등을 해소하는 길은 오직 참선 뿐이다. 선 수행으로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자연히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3~11/29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화해	틱낫한	불광출판사
3	엄마수업	법륜	휴
4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도법	불광출판사
5	죽어야 나를 보리라	대행	한마음출판사
6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안성두 외	운주사
7	네가 던진 돌은 네가 꺼내라	기후	이자리
8	붓다를 죽인 부처	박노자	인물과사상사
9	불영이 감춘 스님의 비밀 레시피	일운	담앤북스
10	서른에 법구경을 알았더라면	김윤환	작은씨앗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서평

삶은 긍정하는 만큼 행복해진다



청춘의 위로와 긍정
이상복 지음
책만드는 집
1만원

세상을 긍정하기

여러 곳에서 '긍정 마인드'를 이야기 한다. 서점가의 '출세론'을 다룬 책들이나 잘나가는 강사들의 강연내용, TV 광고에서도 긍정을 이야기한다. 세상을 긍정하는 사람은 인생을 긍정하고, 긍정된 인생은 행복으로 귀결된다는 것. 누가 모르나? 다 알지만, 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인간 행동의 이중성 아니겠는가?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을 강조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귓속을 각 지게 파고들지 않는다. 무뎌질 대로 무뎌진 긍정 마인드를 긍정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는 어느새 긍정을 강조하는 이야기 뒤쪽에 앙칼지게 눈 뜨고 도사린 '부정'의 얼굴을 봐 버렸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긍정과 부정 사이에, 거짓과 진실 사이에, 지옥과 극락 사이에, 오른쪽과 왼쪽 사이에 살고 있다. 석가모니가 중도를 가르치고, 예수가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치고, 공자가 수신의 도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지만 세상은 미끄럽기만 하다. 그래서 위로받고 싶어 하는 서로의 속내를 아파하면서도 짐짓 외면하기도 한다.

부정을 긍정하기

혼신을 바쳐 살아 온 한 생의 초겨울(60대 나이)에 '유방암 4기'를 선고 받았다면 분명한 불행이다. 그런데 그 불행을 긍정했다. 찾아온 불행조차 부정하지 않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은 즐거웠다.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내가 긍정하는 그 방향으로!"

이런 외침은 온 몸의 세포들에게도 메아리쳐 갔을 것이다. 그 밝은 음파에 암세포는 조금씩 물러났다. 타고난 천성으로 부정마저 긍정했고, 그래서 행복한 이야기를 책으로 풀어냈다. 세상에 긍정 바이러스를 퍼뜨리고자 기획된 서술은 아닌듯하다. 날 좀 봐 달라는 하소연은 더욱 아니고, 베스트셀러를 꿈꾸는 상술도 감지되지 않는 그런 책이다. 그저 담담할 뿐인, 느낌을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은 이야기들.

저자 이상복 교수는 정서장애 및 행동장애 관련 연구에 몰두하며 후학을 가르친 '선구자'다. 대학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강의하면서 살아 온 날들을 되돌아보니 거기에 '긍정 마인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다. 불우한 어린 시절, 매사에 '통 크게 사시는' 큰어머니의 뿌리가 바로 긍정임을 은연중에 배웠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몰두했다. 그랬더니 좋은 사람들이 늘 곁에 있었다. 때맞추어 기회가 주어졌고 당차게 도전해 이루어 냈다. 실패마저 부정하지 않는 자세가 아니었다면 불행의 그물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긍정을 긍정하기

그렇게 긍정으로 임해 온 저자의 업경(業鏡)에 비구니 스님이 등장한다. 운문사 강백 일진 스님이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스님이 암환자인 저자에게 이런저런 충고를 하는 대목에서 스님이 '엄마'로 변했다.

"정말 엄마같이 잔소리가 많으십니다."

"그럼 엄마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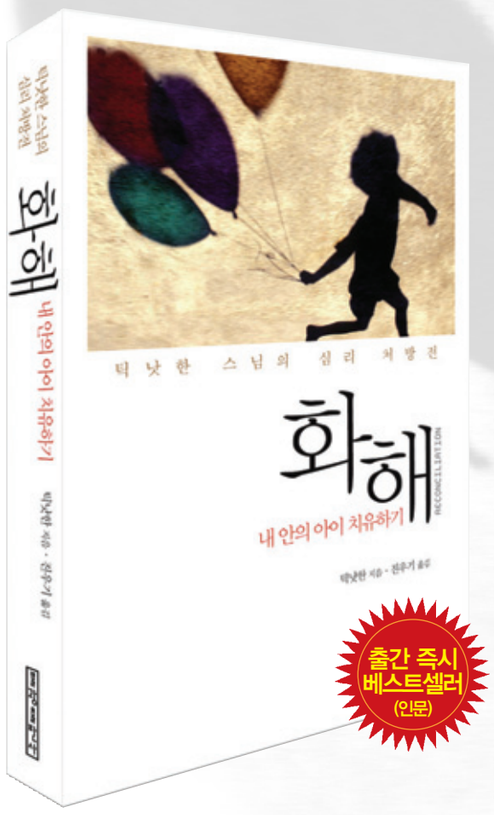
이 대화로부터 저자의 삶은 긍정에서 긍정을 초월하는 '대긍정'으로 전환됐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을 이야기 하지만 '긍정을 긍정하는 지혜'는 말하지 않는다. 진리를 허공에 띄워놓고 그저 바라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진리는 허상일 뿐이듯, 긍정을 초월하는 긍정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긍정할 줄 모른다. 그래서 타인에게 위로받고 싶어 목이 마를 뿐이다.

진짜 자기를 위로할 사람, 그 역시도 자기 자신임을 긍정하라!



임연태 · 시인 본지논설위원

〈화〉 이후 9년, 틱낫한 마음 치유 이야기의 결정판!



틱낫한 스님의 심리 처방전
화해
내 안의 아이 치유하기

'너무 오랫동안 나를 내버려둔 건 아닐까?'
내면 아이를 찾아가는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길잡이
꼭꼭 숨겨 두었던 마음속 짐을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머물다 쉬어 갈 수 있는 책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인문)

틱낫한 지음 | 진우기 옮김 | 240면 | 13,000원

불광출판사 Tel. (02) 420-3200 Fax. (02) 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 www.facebook.com / bulkwang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15분 명상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



명상! 하고 싶지만 왜지 어려운가요?

잭 콘필드 지음 | 추선희 옮김
156면 | 12,000원
부록 : 명상유도 CD

초보자를 위한 본격 명상 입문서

스티브 잡스의 통찰력과 창의력
마이클 조던의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기획력과 업무력 향상
평온한 마음과 면역력 증강
– 당신도 얻을 수 있다

참사랑의 불을 지피는 회초리를 부탁해!



싸리나무 이야기(2)

세월이 흘러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이 지났다. 박 어사가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었다. 그래서 잘 만한 집을 찾아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했다. 그런데 그 집에도 남자는 장사 차 출타하고 여자 혼자만 있는 집이었다. 여인은 반갑게 어사를 방으로 맞아들여 저녁상을 차려 와서 밥을 먹는 어사 옆에 앉아 교태를 부리면서 시중을 들었다. 그리고 상을 물리자 건넌방에 어사의 자리를 마련하고 잘 자라는 인사를 여러 번하고 방문을 닫았다. 어사는 먼 길을 걸어오느라 피곤해서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가만히 방문 여는 소리가 나더니 속옷 차림의 주인 여자가 어사의 이부자리 속으로 기어드는 것이 아닌가. 어사는 몇 달 전 싸리 회초리로 맞은 생각이 불현듯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주인 여자에게 호령했다.

"남편 있는 유부녀가 이게 무슨 짓이요! 오륜을 저버린 파렴치한 행동을 도저히 용서 못하겠소. 냉큼 밖에 나가 싸리 회초리를 꺾어 오시오."

여인은 어사의 위엄에 기가 질려 시키는 대로 회초리를 만들어 왔다. 어사는 여인의 종아리를 세차게 내리쳤다. 그때였다. 갑자기 다락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손에 시퍼런 도끼를 들고 방으로 뛰어 내려와서, 방바닥에 엎드려 어사에게 말하길,

"손님, 저는 저 년의 남편입니다. 저 년의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소문을 듣고 진위를 확인해서 이 도끼로 요절을 내려고 며칠 째 다락에 숨어서 동정을 살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오늘 하마터면 귀한 분을 해칠 뻔했습니다."

한 여인의 회초리가 어사 박문수 목숨 구해
30·50자루 회초리 수만큼 문장력은 늘지만
오늘날은 어른도 애도 없고 회초리도 없어

박 어사는 온 몸이 오싹했다. 전에 싸리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으며 훈계를 받지 않았던들 오늘 이런 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까. 산중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 더욱 찡하게 고마웠다. 그 여인은 박 어사의 먼 조상이며, 훗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람으로 현신해 교훈을 준 것이라고 한다.

싸리나무 회초리가 그립다.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는 세상이니 더욱 그립다. 막장드라마는 계속 막장으로 가고, 회초리는 설 곳이 없다. 온갖 물건을 다 파는 백화점, 다이소에도 회초리는 없다. 엄마, 선생님, 회초리를 부탁해요.

'삼십절초(三十折楚) 오십절초(五十折楚)의 문장'이란 말이 있다. 이는 과거에 급제한 뛰어난 문장을 칭송하여 이르는 말로써 30자루, 50자루의 회초리가 꺾일 만큼 어려움을 견뎌낸 후에 얻어진 훌륭한 글이란 뜻이다.

김홍도의 '서당도'에는 회초리로 학동의 종아리를 친 훈장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쳐다보는 모습이 있다. 아이는 한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대님을 다시 묶고 있다. 서안 옆에 회초리가 보이니 아마 훈장님께 종아리를 맞았나 보다. 옆에 있는 다른 아이들, 다음 차례에 나도 맞으면 어쩌나 하는 은근한 걱정도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생각할 일, 아이들은 그저 아이들일 뿐.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실감난다.

'너 이놈, 다음에는 더욱 열심히 해야지' 하고 화를 내는 것인지 웃고 있는지, 훈장님의 묘한 표정도 재미있다. 서당에서 글공부하는 모습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엮어낸 이 그림은 단원 김홍도의 대표적인 풍속화다. 배경은 일체 생략해버리고 사선구도의 짜임새 있는 화면 구성과 굵은 선으로 단순하게 처리된 옷 주름 등에서 김홍도 특유의 필치를 엿볼 수 있다.

비록 스승으로부터 매를 맞은 제자와 그 동료들이지만 불만에 찬 내면의 반발이나 영악하게 계산된 표정관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저 맑고 훈훈한 정이 느껴진다. 이는 스승의 제자 사랑과 제자의 스승에 대한 믿음에 가식 없는 참사랑이 교감되고 있기에 그러지 않을까?

옛날 부모들은 아이를 서당에 맡기면 봄 가을에 싸리나무 한 짐을 지게로 져 훈장댁에 갖다 드렸다. 싸리 회초리로 자식의 종아리를 때려 달라는 부탁이었다. 물론 그 많은 싸리나무를 다 맷감으로 쓸 수 없어 빗자루를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다. 서당에서 나오는 싸리 빗자루는 값을 절대 깎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학생 체벌을 전면 금지키로 하면서 각계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체벌은 '교육이라는 명분아래 사라져야할 폭력'이라며 반대하는 의견과, '결국 교실 수업의 파행을 초래'하게 된다는 우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싸리나무는 낙엽이 지는 활엽관목으로서 높이는 1~2m 정도다. 가지는 탄력 있게 휘며, 잎은 3출 겹잎으로 마주나며 잎자루를 가지고 있다. 작은 잎은 둥근 달걀 모양으로, 가장자리는 매끈하며 길이는 2~4㎝ 정도이다. 꽃은 늦여름에 피는데, 홍자색의 작은 나비모양의 꽃이 총상꽃차례(긴 꽃대에 꽃자루가 있는 여러 개의 꽃이 어긋나게 붙어서 밑에서부터 피기 시작하여 끝까지 핀다. 꼬리풀, 투구꽃, 싸리나무, 아카시아의 꽃 따위가 있다.)를 이루면서 달린다. 열매는 납작한 원형을 하고 있는데, 속에는 1개의 씨가 만들어진다. 주로 산지에 많으며 한국 각지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싸리나무 씨를 먹고 백 살이 넘도록 살았다거나 싸리나무를 오래 먹었더니 힘이 몹시 세지고 튼튼해져서 겨울에도 추위를 모르고 살았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차력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산속에서 무술 수련을 하는 사람들도 싸리나무 열매나 뿌리 껍질을 많이 먹었다.

싸리나무 씨와 뿌리껍질을 먹으면 뼈가 무쇠처럼 튼튼해져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에 잘 걸리지 않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심하게 부딪혀도 여간해서는 뼈를 다치지 않는다.

싸리나무 잎에는 알칼로이드, 플라보노이드, 아스코드빈산이 많이 들어 있다. 껍질과 줄기에는 탄닌, 사포닌이 들어 있다. 싸리나무 회초리로 맞아 종아리가 터지고 피가 나도 곪거나 덧나지 않는다. 싸리나무 가지에 소독, 치료성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우상 〈소설가 · 동국대 문창과 겸임교수〉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2년 나가는 삼재조심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묵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스님 20%할인)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최동순의 한국구술인물사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3)

선학원에서 정치 현실 목격하다

주황색 가사와 주황색 모자, 그리고 검은 승복의 주인공 진관 스님. 시국법회나 불법 수호의 장소라면 언제나 나타나는 스님이다. 불법을 수호하는 나라연 금강역사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1980~90년대 민주화 운동 현장을 사수한 인물이며 불법 수호에 한 길을 걷고 있는 승려이다. 현재 불교인권위원장이다. 종로 조계사불교대학 건물 한 켠에 그의 집무실이 위치해 있다. 눈을 지긋이 감은 그는 계룡산 갑사에서의 행자 시절을 회상한다.

"50명이. 스님들이 막 그래서 인제 에 어찌 이 입산허러 왔느냐 딱 그 어 스님이 얘기허길래. 예, 앞으로 불교 발전을 위해서 또 이 나라에 불교의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인제 거그서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이 "야 저놈 봐라, 저놈 봐라." 막 이렇게 그 것도 좀 너 "노래 잘 부를 수 있냐?"

진관은 갑사 주지 스님이 계신 큰 방에서 이미자 노래를 불렀고 꼬마들은 박수를 치고 웃었다. 대환영 받았다. 규칙이 삼엄한 큰절의 대중방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대단한 이슈였다. 첫 번째 소임은 밥 짓는 역할이었다. 그러다가 땔감 나무를 해 오는 부목 역할로 이어졌다. 그가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것 때문에 염불을 하라는 명이 떨어졌다. 부목 역할은 산에 올라가 염불 연습하라는 일종의 배려였다. 〈회심곡〉이나 경허 스님 〈참선곡〉 〈천수경〉을 모두 외웠다. 뒷산 폭포에서 크게 음을 틔우는 연습을 했다. 여기서 진관은 '신묘장구대다라니' 염불을 고성으로 했다. 음정을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렸다. 몇몇 염불행자들과 고성으로 염불하기 내기도 했다. 누가 음을 더 높이 올릴 수 있는가를. 그렇게 진관은 득음해가고 있었다.

"책은 뭐 보면 안 된다고 자기네들이 했으니까는 자기네들은 이미 다 외우고 있으면서도 책을 보지 말라고 그러대. 이렇게 해서 (갑사) 거그서 인제 에 승려가 되는데 4월 그 때 몇 년인지는 모르고 4월 15일날에 승려가 되요. 거그서 최초로 승려가 되는데 거그서 고 이름이 참 진(眞)자 너그러울 관(寬)자를 지어주었어요."

행자에서 법호를 받은 진관은 사미로서 본격적인 중노릇이 시작된다. 그러나 염불승으로 나아갈만도 한데 운수행각의 성품이 마음속에 내재했는지 또 갑사를 떠난다. 왜 갑사를 떠나게 됐는지 이 부분을 진관 스님은 구술하지 않았다. 대전 어느 절에 유숙하려 했으나 방이 없었다. 저쪽 한 켠에 방이 있었지만 자신의 딸이 자고 있다는 말에 바로 나와버렸다고 한다. 당시 많은 대처승들이 절을 지키고 있었으며, 그것 역시 당연시 되던 시절이었다. 진관은 대전에서 다시 하동 쌍계사로 향했다.

"윤기원이라고 엄청난 아주 유명한 스님인데 그 스님이 나를 이제 문 이렇게 열고는 보고 저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객실에서 잤는데 그 날 아침에 나보고 불공을 좀 해주라는 거야 불공을. 아 객이 인제 불공을 허라고 허허허 불공을 허는데 어떤 불공이냐 생남불공이야. 생남불공을 나보고 아 거기 스님들이 많은 데 (나보고) 해주라고 그러잖아."

진관은 갑사에서 배운 염불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정성을 다했다. 생애 최초로 생남불공을 했다. 그는 회상한다. 그 집은 분명 아들을 얻었으며 지금쯤 유명 인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웃으면서 말한다. 거기서 다시 부산 동래 옆 기장의 관음사로 가게 된다. 주지는 향곡 스님이었다. 그런데 그 관음사에는 계룡산 갑사에 있던 스님들이 기거하고 있었다. 반가운 얼굴들도 있었다. 그러다가 진관은 1967년 대구 동화사로 오게 된다. 향곡 스님이 관음사에서 동화사 주지를 발령받은 것이다.

"향곡 스님이 에 인제 화두를 줬는데 오늘날 말하면 간화선이지 간화선. 그 화두를 주었는데 그 화두가 '만법이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가[萬法歸一 一歸何處]' 이런 화두예요. 화둔데 이 화두를 타기 전에 계룡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 나 인제 그 〈맹자〉 이것을 봤기 때문에 절집에 있어서 한문은 어느 정도 다 통했던 거예요. 한문은 경전에 있는 거 이게 그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는 거죠."

향곡 스님(1912~1978)은 1947년 봉암사 결사에서 내려졌던 화두를 진관이 참구하도록 했다. 성철 · 청담 등 이 시대 선각자들이 불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고 호소하며 결사에 임했던 당시의 화두였다. 이 화두는 또 훗날 많은 선수행자들에게 내려졌다. 봉암사 수행결사가 선방 문화, 나아가서 조계종 교단 자체를 유지하고 변혁하도록 한 원동력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종로구 안국동 40번지에 자리한 선학원

노래 잘 불러 염불승 생활
선학원 생활하며 사회 걱정

진관은 경전을 배우러 강원에 들어가지 않고 선방에 들어 선승을 선택한 내력을 말한다. 그는 이미 한문을 배웠기 때문에 경론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러나 19살 되던 해 동화사 선원 생활을 끝내고 해인사 강원을 찾는다. 향곡 스님 문하를 떠나 봉암사 결사를 주도했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듣는다.

계룡산 갑사에서 배웠던 염불을 해인사에서 이어갔다. 염불승 역할을 하면서 비구계를 받았다. 사미승에서 비구승으로 승격되었다. 1968년 해인사 안거를 마치고 그는 상경하게 된다.

"선학원이라고 하는데 들어갔어요. 선학원에는 고 시기에 선학원에는 또 어떤 스님이 있었느냐면은 벽암 스님이라고 벽암 스님이 거기 선학원에 인제 원장으로 계시고 그 스님이 또 동국대학에 또 이사 이사로 또 있고 또 선학원에 보니까 어 그 대의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원로 스님이 있었고 청담 스님이 거가 있었고…."

진관 스님은 선학원에서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 선학원은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안국동 로터리 근처에 있다. 선학원은 남전 스님, 석두 스님 등이 설립한 단체이며 건물은 1921년 낙성되었다. 선학원의 설립 취지는 불조의 선풍을 계승하며 일제에 저항하는 불교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우연하게도 그 근처는 당시 야당 정치의 중심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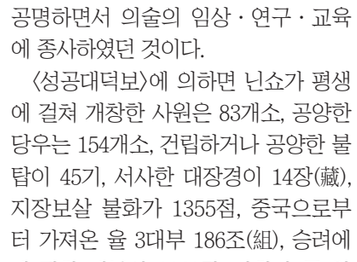
"1968년 8월 이후에 〈민주전선〉이라고 하는 〈민주전선〉을 신민당, 요 안국동 로타리에 신민당 당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그걸 돌리는데 에 돌려서 인제 에 거기서 장준하 선생 또 뭐 김영삼 뭐 인제 요런 정치인들이 안국동 로터리에서 그 인제 돌렸어요. 그 또 옆에 윤보선 집이 있었고. 윤보선 집. 윤보선 선생 집은 늦게 윤보선 대통령 만났지만은 고 때는 윤보선 대통령 뭐 만날 그것도 못 되죠 째비가 못되니까 그래서 고 1968년 음 에 에 인제 8월 이후로 이후로는 인제 서울에서 거주하니까 내가 살으니까 장준하 선생 집회가 있으면 그 자리에 가고, 〈사상계〉 잡지를 보고…."

진관 스님은 서울 선학원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신민당 기관지인 〈민주전선〉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백낙준과 장준하가 사재를 털어 만든 〈사상계〉 잡지도 접하게 된다. 어릴 적 고향 마을의 서당 훈장님이 나라를 걱정했던 것과 같이 진관 스님도 국가와 사회를 걱정하는 대열에 동참한다. 염불승이었던 진관 스님은 그렇게 장준하의 연설을 들으며 서울 생활을 이어간다.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 일체중생의 구제보살 닌쇼(忍性)(2)

생신의 여래 닌쇼 보살


카마쿠라의 고쿠라쿠지(極樂寺) 사원

닌쇼는 고쿠라쿠지에 4개원을 본 딴 시설을 건설하고 민중 구제에 나섰다. 이어 1272년 55세에 중생 구제를 위한 서원인 10종 대원을 세웠다. 이생(利生)의 구현을 위한 이 원은 의지할 곳 없는 자 · 가난한 자 · 장애자 · 병자 · 노인 · 노쇠한 말과 소에 이르기까지 길가에 버려진 생명에게 손길을 주는 일을 비롯해 길을 만드는 일 · 약초의 재배 · 식림에 힘쓰는 일,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병자에게 주고 자신은 질박한 식사를 할 것 등이다. 닌쇼가 이러한 서원을 세우고서 2년 후에 카마쿠라에 대기근이 찾아왔다. 닌쇼는 2달 여에 걸쳐 죽을 쑤어 민중들에게 나누어 주며, 요양소 시설을 비롯해 나병환자들이 머물 숙소를 확장하여 차별 없이 병자들을 입원시켰다. 또,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해 주었다. 특히 마병사(馬病舍)를 지어 발원한 대로 동물도 치료해 주었다.

마병사 지어 동물에게도 자비행
무연사상에 바탕두어 누구든 치료

〈원형석서(元亨釋書)〉에는 1287년 닌쇼가 71세 때의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고아 · 빈궁자 · 병자의 구제시설 외에도 구와타니(桑谷, 카마쿠라의 한 지명) 요양소를 설치하여 친소를 가리지 않고 병자를 입원시켜 늘 그들의 병상에 다가가 용태를 묻고 곁에서 간호하였다. 20여 년간 이곳을 거쳐간 환자는 4만 6800명을 헤아리고, 그 가운데 사망자는 1만 450명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무엇보다도 무연(無緣)의 사상에 바탕하고 있다. 무연은 친족 등 세속의 인연이 없거나 끊는 것을 말하지만, 적극적으로는 내편 · 네편, 가진 자 · 못가진 자를 초월해 모든 중생을 불법에 인연을 맺게 한다는 의미도 있다.

닌쇼의 사회 활동은 대승의 보살정신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스승 에이존의 가르침에 잘 나타나 있다. 에이존은 〈법망경보살계〉의 보살에 대해 "가난과 고통으로 차별받는 현실 속에 들어가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것에 의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자"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스승의 보살도에 대한 가르침을 닌쇼는 스스로 실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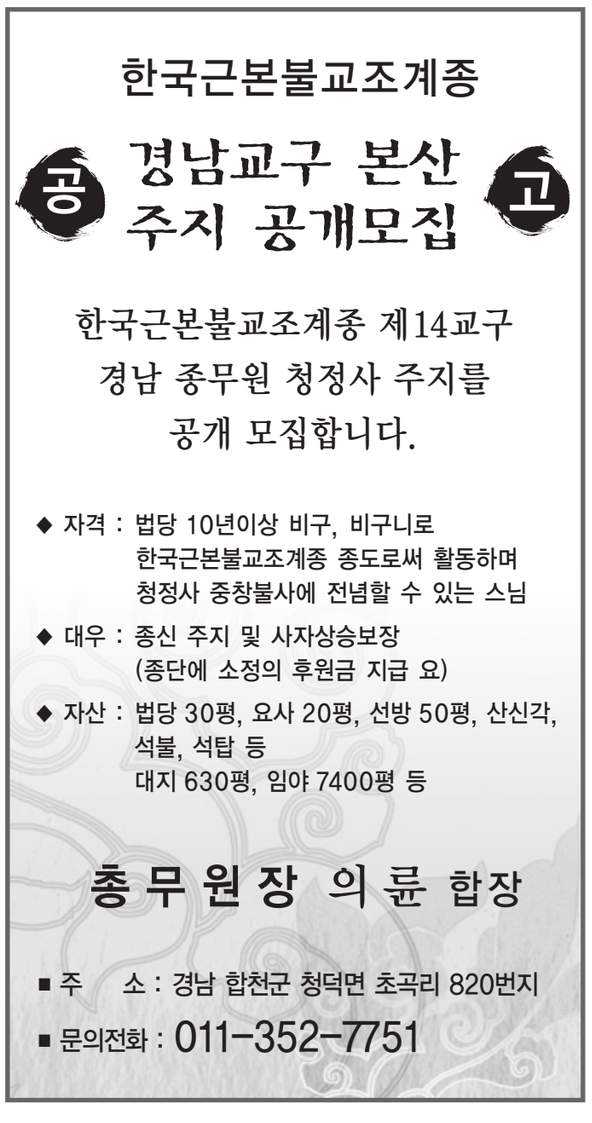
닌쇼의 평생의 활동은 조직적이고 대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병자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치료가 행해졌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단지 당시에 진언율종의 승려이자 의사였던 카지와라 쇼젠(梶原性全)이 닌쇼의 구제 사업에 관계하고 있음을 통해 어렴풋이 알 수 있다. 그는 중세의 2대 의학서로 알려진 〈돈의초(頓醫抄)〉50권과 〈만안방(萬安方)〉 62권을 남겼다. 이 의학서에는 당시 최첨단 의술이었던 송(宋)의학과 함께 풍부한 임상경험에 입각한 의료 내용이 기록돼 있다. 카지와라는 편찬 목적을 "세상의 의사들이 이윤만 바라는 것은 하늘의 명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당시의 세태를 비판하면서 "자비심을 가지고 치료하게 되면 그 업이 비록 서투르더라도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하는 불교의 정신을 전하고 있다. 여기에는 나병의 증상 및 치료 등에 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저자인 카지와라는 닌쇼의 자비 정신과 헌신적인 간호에 공명하면서 의술의 임상 · 연구 · 교육에 종사하였던 것이다.

〈성공대덕보〉에 의하면 닌쇼가 평생에 걸쳐 개창한 사원은 83개소, 공양한 당우는 154개소, 건립하거나 공양한 불탑이 45기, 서사한 대장경이 14장(藏), 지장보살 불화가 1355점,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율 3대부 186조(組), 승려에게 전한 계본이 3360권, 나환자 등 천민에게 보시한 의복이 33000벌, 다리를 놓은 곳이 189개소, 도로를 놓은 곳이 71개소, 우물을 판 곳이 33개소, 건립한 욕실 · 병원 · 비인숙(非人宿)이 각각 5개소 등이라고 한다. 오늘날 생각해도 엄청난 활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생전에 대중으로부터는 생신의 여래, 사후에는 천황으로부터 닌쇼 보살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위법망구 정신에는 남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울진 불영사 주지 일운 스님 (조계종 종회의원)



일운 스님은 … 1953년 출생. 묘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1969년 운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 1976년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1976년 봉녕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1982년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한 스님은 이후 대만에서 불교를 공부했다. 스님은 1991년 6월 대만 불학연구소에서 불교학과 석사과정 졸업하고 1992년 5월 묘엄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다. 1994년부터 불영사 주지를 맡고 있으며 1997년부터 비구니 선문회 부회장, 2006년부터 14·15대 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경남 울진의 대표절경 하면 불영사계곡을 빼놓을 수 없다. 산세가 인도 천축산과 비슷하다는 천축산 자락의 웅장한 바위와 그 사이로 흐르는 푸른 물의 조화는 천혜의 절경으로 불린다.

그 계곡길을 굽이굽이 따라가면 고즈넉한 불영사의 풍경이 길손을 반갑게 맞이한다. 불영사는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말사로 진덕여왕 5년(651년) 의상(義湘) 대사가 창건했다. 금강송 군락지의 숲길을 뒤로 그림 같은 연못 속엔 천축산과 전각들의 그림자가 비친다. 불영사의 연못은 창건 당시 아홉 마리 용을 주문으로 쫓아냈다는 설화가 있을 만큼 깊고 넓다. 이 연못에 서쪽의 부처 모습을 한 바위가 항상 비쳐 불영사(佛影寺)로 불리는 것이다. 산으로 둘러싸인 자그마한 평지에 오밀조밀 많은 전각이 자리한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이다.

하지만 불영사가 현재의 이런 모습을 갖게 된 것이 불과 10여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이는 몇이나 될까?

불영사 입구에서부터 펼쳐진 15km에 달하는 계곡은 맑고 장엄한 명승지이다. 1985년 계곡에 난 36번 국도가 포장되면서 불영사 계곡은 휴양지로 각광받았다. 기암절벽의 천축산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경관에 한여름 야영객은 수천 명에 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세납 39세인 젊은 주지 스님이 부임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절 입구에 일주문을 세우고 일주문 내 야영장을 철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밭을 간다'는 뜻을 지닌, 심전(心田) 일운(一耘) 스님이다.

스님은 수행과 청정가풍을 통해 신라고찰인 불영사를 정법수행으로 새롭게 바꾸길 원했다. 스님은 계곡의 야영장을 모두 철거하고 경내를 깨끗하게 정비해 절 면모를 일신했다.

무엇보다 자신이 대중살이에 철저했다. 새벽 3시부터 밤 10시까지 대중들과 일체를 함께 했다. 매일 500배를 하고 오후에는 불식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삶을 통해 보이고자 했다. 현재도 스님은 출타 중일 때나 절에서 소임을 볼 때나 항상 스님들과 함께 대중생활을 한다.

스님의 철저한 대중살이는 불영사 공양간을 보면 딱 드러난다. 불영사는 사찰의 모든 살림을 비구니 스님들이 담당한다. 스님들이 직접 채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한다. 흔히 말하는 공양주 보살이 없다.

스님의 솔선하는 모습에 하나둘씩 먼 곳에서 온 여성들이 발심 출가했다. 이탈리아에서 생물 교사를 하다 불영사에서 한 달을 지낸 뒤 출가한 여웅 스님을 비롯해 대만 여성 6명, 러시아 여성 1명이 불영사에서 출가했다. 스스로에게 만큼이나 제자들에게 엄격한 일운 스님 밑에서 출가한 비구니는 53여 명에 달한다.

불영사를 우연히 찾은 이들은 불영사의 이런 모습을 보고 물심양면의 후원을 자청하고 나섰다. 이는 비구니선방으로 유명한 천축선원 중건의 원동력으로 이어졌다.

1978년 천축선원으로 출범한 불영사 비구니 선원은 1996년 일운 스님이 대웅전 동편에 54평 규모의 선원과 30여평의 지대방을 신축하며 총림에 버금가는 수행·참선 도량으로 거듭났다.

불영사 중흥에 앞장 서 온 일운 스님은 조계종 제14대, 제15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이기도 하다. 선원분야 직능대표인 스님은 비구니계를 넘어 사부대중들에게 수행가풍을 널리 알려왔다. 옥복연 젠더연구소장과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등 여성불자들이 11월 20일 불영사를 찾아 일운 스님과 만나 대담을 나눴다.

정리=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 절 입구를 알리는 일주문이 세워지고 야영장이 철거되면서 1400년 고찰의 면모를 지니게 됐습니다. 일주문으로 시작된 중창불사는 현재 천축선원을 비롯해 극락전·무위당·청운당 등 수채의 건물로 이어졌는데 그 동안 불사의 원동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추석을 앞둔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계곡에 야영객이 남기고 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태풍으로 인한 다리도 반쯤 떠내려가 있었습니다. 일단 일주문을 세우고, 경계를

>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영사 일궈
> 수행가풍 세우는 것이 곧 포교
> 불영사선 50여 상좌 직접 절 소임 봐
> 포단에서 살고 포단에서 죽자 실천

두기 위해 울진군에 야영장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일주문을 세울 때의 일입니다. 당시 마을 주민들은 일주문을 세우면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울진군에서도 불영사 주변에 야영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겨울에 천막을 치고 일주문 세울 준비를 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는 한편 주변 정화에 나섰습니다. 일주문이 세워지면서 불영사의 면모가 일신하기 시작되면서 천축선원을 짓고 불사를 하나씩 해나가다보니 25여 동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후 지역민과 사찰이 함께하는 행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찰음식축제와 울진군민을 위한 산사음악회, 초·중·고 어린이백일장 등인데 이번 5월에는 염불만일결사를 시작했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자기완성 즉 자아완성 자기를 알기 위한 수행입니다. 마음을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 하고, 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범부 중생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생명있는 모든 존재들은 불성이 있어 절대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경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교가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줘야 할까요. 어떤 시대여야지 세계가 평화롭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망상을 하기 때문에 밥을 먹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진정한 인생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자본주의 물질주의 세상에서 재물, 명예 등 다른 것의 획득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만 합니다. 그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며 경쟁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자기로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교는 다섯 가지 계율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고 내 생명과 남의 생명을 중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모르고 짓는 죄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내 곳간의 쌀은 다 썩어 가는데 남의 곳간 쌀만 보는 상황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자신을 돌아보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만일결사를 하게 된 이유는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있는 존재들은 다 부처가 될수 있고, 불성(佛性)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으며 그 불성인 마음은 중생의 본래 청정한 마음이며, 마음을 매순간 염불에 집중하여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비롯한 탁한 마음을 정화하여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탈하고 매순간 영원한 자유인(부처님)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사는 지구촌이 어떠한 고통도 없는 행복하고 깨끗한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나 본질을 위해 사는 삶을 갖자는 것입니다. 내 주변부터 정화하고 그와 함께 내 가족부터 불교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 한건지 얘기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오후 불식과 매일 500배를 십여 년 간 해오고 있는 것인가요?

항상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 망상을 제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번뇌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화두에 집중해야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계속 집중해서 하려면 끊임없는 자비심(보리심을 바탕으로 한 자비로운 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 자비심의 에너지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에 늘 자신을 살피는 철저한 자기 수행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본래 마음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접하고 3일 만에 출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스님은 봉녕사 묘엄 스님의 전강제자입니다. 은사 스님으로부터 감명 받은 것이 있다면?

은사 스님은 평생을 후학 양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항상 하심을 강조하시고 스님의 생활 자체가 법속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스님은 상좌만 50여명이 넘습니다. 법랍과 세랍에 비해 상좌수가 많은데 특히 상좌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샵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200질 한정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질 | 금장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올케이스 | 전질2도 인쇄
현대불교
현 불 샵 02)2004-8215

창사 18주년 기념
부처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미얀마
(대한항공 직항) 1월 15일 출발, 1월 19일 출발.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99만원 추가경비 없음
◇ 미얀마 성지순례 출발확정 : 1월 26일, 2월 7일, 2월 24일
◇ 미얀마 완전정복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1,840,000원
특급호텔 : 양곤–세도나, 바간–뜨레져, 만달레이–세도나, 헤호–뜨레져
전일정 : 특급호텔 및 아름다운 리조트, 가이드+기사팁 포함, 마차투어, 유류세(260,000원)불포함
미얀마 성지순례 3월 출발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 1,650,000원 (유류세 별도)
◇ 골프투어 5일 (요금문의)
인 도
◇ 완벽 8대성지 아그라 타지마할 9일 2,540,000원
◇ 완벽 8대성지 아그라 타지마할 10일 2,590,000원
전일정 : 5성급호텔, 일급호텔, 한식요리사, 고급버스, 가이드+기사팁 포함 등등, 추가경비 없음.
스리랑카 특급일정
전통불교성지순례 6일 담블라 | 시기리야 | 아누라다푸라 | 캔디 | 풀룬나루와 | 콜롬보
■ 『떳다! 특가』 라오스 문화탐방 성지 순례 1,399,000원 부터
■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씨엘립 앙코르왓" 1,049,000부터
■ 하와이 5~6일 (요금문의)
■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6일 (요금문의)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02)365-7747

비구니 의원 수 증대는 시대 요청



후학들에게는 항상 포단(참선할때 앉는 좌복) 위에서 모든 것(번뇌망상과 생사문제)을 해결하자고 강조합니다. 승가는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 성직자로 품격을 갖춰야 하며. 안으로부터 철저한 위법망구의 정신을 가져야 하고 포살(布薩)과 자자(自恣)를 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불교는 권위적 · 보수적 종교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비구니스님들이 비구스님들보다 소극적으로 활동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대의 아픔을 등한시하면 부처님 제자로서의 도리가 아닙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의 한가운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려면 스님들이 더욱 분발해야 합니다. 청렴결백, 근면성실, 꼼꼼한 절살림 운영 등 사찰운영에서 보여주고 있는 비구니 스님의 능력을 종단운영에 활용해야 하며 비구니스님들도 사회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불교발전의 필수 조건일 것입니다.

비구 · 비구니를 떠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불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화두가 될 것입니다. 이 화두를 타파하는 과정에서 비구 비구니의 화합은 자연스럽게 이뤄지리라 봅니다.

–종단 내부 분규나 정치권의 압력 등 한국불교의 위기 상황마다 비구니스님들이 불법수호를 위해 역할을 해왔지만 오히려 권리가 제약된 면이 있습니다. 그 개선방안으로 조계종 중앙종회 종회의원 의석 증대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비구니 종회의원 회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이 10명인데 이는 1994년 종단 개혁 당시 확보한 것입니다. 종단이 출범한지가 꽤 됐으며 그동안 정화를 통해 많은 안정을 이뤘습니다. 정화 당시 비구 스님들이 큰 역할을 하셨지만 비구니 스님들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지역 곳곳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회의원은 직능대표를 제외하고 각 지역 교구에서 비구 스님들이 2명씩 뽑히고 있습니다. 이에 비구니 스님 1명씩도 대표로 뽑아 각 교구에서 3명씩 늘리는 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출가자의 수는 비구와 비구니 수가 비등합니다. 또 시대가 변해 포교일선 등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 발전을 위해, 현실에 맞는 종단 운영을 위해서는 비구니 종회의원 증대는 꼭 필요합니다.

–지난 7월 21일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이 종헌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에 비구니 종회의원 의석수 개선 방안을 제안했지만 종회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7월 경 종헌종법개정특위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골자는 비구 비구니를 떠나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종회에서 거론이 되지 못하고 의견에 그쳤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의석수 개선방안은 기존 비구 스님의 자리를 비구니 스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본사 말사 중에서도 비구니 말사들이 많습니다. 지역의 여러 애로점을 반영하기 위해 비구니 종회의원 수를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지역 포교 현장에 비구니 많아
시대흐름 반영 위해 불교 변해야
그 첫번째는 비구니차 인식 변화
비구니 종회의원 증대는 시발점

–불자여성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 즉 자비심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모든 사람과 삼라만상(森羅萬象)의 우주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와 나는 동일체(同一體)이기 때문입니다.

■불영사는?

불영사는 조선 태조 6년(1397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중건했으나 다시 소실돼 연산군 6년(1500년) 양성 법사(養性法師)가 중건했다. 다시 임진왜란 때 모두 소실됐으나 응진전은 화마를 피했다. 그 이후 광해군 1년(1609년) 진성법사의 중건을 시작으로 여러 스님들의 손으로 중수됐다. 현재 당우는 대웅보전, 명부전, 극락전, 응진전, 의상전, 칠성각, 산신각, 천축선원, 황화실, 설법전, 응향각, 설선당, 청운당, 청풍당, 희운당, 향운당, 법운당, 단하당, 청납당, 법종루 등이 있고, 창건 당시 유적인 무영탑(無影搭)과 돌거북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가 있다.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검색이 됩니까



동국대 선학과 교수

쌍둥이도 세대차를 느낀다는 말이 있다. 세상이 얼마나 급속히 변하는 가를 실감하는 말이다. 어느 시대이건 젊은이는 그 시대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언젠가 과제물을 흑판에 열심히 적고 있는데 유독 한 학생이 눈에 띄었다. 필기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왜 적지 않느냐' 고 물었더니 '적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차! 시대에 뒤떨어진 질문이구나!' 바로 알아차리게 되었다.

검색이란 '책이나 컴퓨터에서 자료를 찾아내는 일' 이라고 사전에는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다수의 경우 책 보다는 컴퓨터에 의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컴퓨터에서의 검색은 몇 초 내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 연기 같이 구름 같이 사라지고 만다. 문제는 몇 초 동안에 내 머리에 입력이 되느냐 하는데 있다. 머리에 저장하려면 저마다 기억력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 십 번씩, 아니 어느 경우에는 일생동안을 익혀도 잘 암기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책을 사서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서관의 책들은 만인이 이용함으로 깨끗하게 보아야만 하고 오직 자기 책이 있어야 나름대로의 독서법에 따라 이런저런 옆잡이를 하며 공부하다 보면 다음에 볼 때는 더욱 쉽게 익혀갈 수 있다고 지도하고 있다.

요사이 검색이란 말이 주변에 만연해 있다. 부모 보다 앞서고, 친구, 연인, 노을 보다 앞서는 말이 되었다. 그렇게 흔한 검색이 부모님의 사랑을 대신 할 길이 없다. 친구의 진한 우정도 대신할 수 없으며, 저녁노을의 벅찬 환희를 대신할 방도가 없다. 왜 그럴까. 검색에는 숨결이 없기 때문이다. 검색은 감동이 없기 때문이다. 감동은 맥박의 고동소리에서 감지할 수 있다. 연인이 만나 콩닥거리는 고동소리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미 연인 사이가 아니다. 하나의 비즈니스의 대상일 뿐이다.

그리움이란 비단 세모에만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리움은 밀물 보다 빠르게 몰려왔다가 썰물 보다 속히 빠져 나간다. 계절에 무관하게 그리움이 순간순간 밀려오고 가는 것은 단순한 자연의 순환법칙 같은 것이 아니다. 그리움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양분이기도 한다. 그리움이 매몰된 인간 세상을 생각해 보라. 그 세계는 오직 정글의 법칙만이 존재할 것이다. 그 세계야 말로 강자가 약자를 포식하는 힘의 논리만이 적용될 것이다.

인간 세상에 만나면 헤어진다는 원리를 벗어날 길이 없다. 생명 있는 것들은 소멸된다는 사실 앞에 거역할 자 누가 있겠는가. 그러기에 태생적으로 유한한 인간은 그리움을 안고 사는 것이 아닐까 한다.

조선 초기에 명재상 허조(許稠)가 있다. 허조는 세종시대의 재상으로 날마다 새벽닭이 울면 세수하고 의관을 갖추고 앉아 책을 읽었으며 하루 종일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또한 나랏일을 의논할 적에는 자기의 신념을 지켜 남들의 눈치를 보며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다. 부모님 기일에는 반드시 어머니가 손수 지은, 젊었을 때 입던 푸른 빛 단령(團領)을 입고 애도의 눈물을 흘렸다. 단령이란 벼슬아치가 평소에 입는 잡무복으로 깃을 둥글게 만들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마음 깊이 사무쳤던 것이다.

어느 날 밤이었다. 밤늦도록 책을 읽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 물건을 챙기고 있었다. 허조는 그 광경을 보고 놀라기는커녕 장승 마냥 우두커니 보고만 있었다. 도둑이 나간 뒤에야 집안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수런거리기 시작했다.

그리움은 밀물·썰물보다 빠르게 몰려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양분 되기도 해
인간세상 만나면 헤어짐 막지 못하니
태생이 유한한 인간은 그리움 안고 살아
검색되지 않는 것들을 소중히 살펴야

허조가 집안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보다 더 심한 도둑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느 여가에 바깥 도둑을 걱정 하리오".

집안사람들이 머리를 숙였다.

현대인이 망각하고 사는 것 가운데 하나는 마음의 도둑이다. 각자의 마음에 깊이 똬리 잡고 있는 마음의 도둑은 검색이 됩니까. 아마 그에 대한 답은 손사래로 대신할 밖에 뾰족한 묘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오라가 없어 못 잡는 것도 아니고 수사 인력이 모자라서도 아니다. 또한 국제 간에 인터폴(Interpol)이 결성되지 않아서도 아니다. 마음의 도둑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도 잡지 못하는 데는 인간이 버리지 못하는 욕심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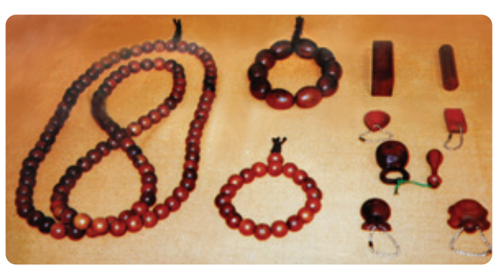
어느 날, 몸과 마음이 가뿐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무거운 욕심의 짐을 부려버렸기 때문이다. 이 가벼운 마음을 지속하지 못하고 탐심을 켜켜이 쌓아 가면 육신이 찌뿌드드하고 마음이 맑지 않다고 주변에 하소연을 하기도 한다.

검색되지 않는 것은 비단 마음과 그리움 뿐이랴. 뜨거운 감격의 눈물도 검색되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벽조목
(벼락맞은 대추나무)

귀의 삼보하옵고
벽조목은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신비의 마력을 지닌 위력물로
각종 부적 호신구를 만들어 인간사에서
모든 팔난을 막는 신비로운 것으로
널리 상용하여 왔습니다.

이 벽조목으로 현대 감각에 맞는 것으로
단주, 염주, 인장 목걸이 등을 만들어서
널리 공급하고자 하오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의 02)743-8234
김 정 덕 합장

야생보이차와 침향의 명가
錦原堂 다茶보普향香

다보향 침향(선향)
"제향(諸香)의 왕" 침향 - 순수한 천연향이므로 밀폐된 공간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공기를 흡수하여 정화, 항균작용, 해충근절방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 집중을 필요로 하는 공부방, 서재, 연구실, 사무실.
- 집안의 거실과 침실, 주방.
- 독서실, 요가원, 수련원, 수행과, 기도실.
- 환자들을 위한 병,의원, 한의원, 치료원.
- 심신의 안정과 氣의 원활한 순환이 필요할 때.



침향(선향) ▷50,000원

야생보이차
야생보이차는 해발 1,200m이상 고산지대에서 높이가 2,5m이상 되는 야생교목에 직접 사람이 올라가 일일이 정성스럽게 잎을 채취하여 만든 아주 귀한 차입니다.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철저한 검사와 정식통관, 검역절차를 거쳐 제품화된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차입니다.



병차 330g ▷99,000원
산차 50g ▷39,000원
산차 50g ▷ 38,000원
100g ▷ 65,000원
200g ▷110,000원

◇ 특 징 ◇
- 야생보이차는 젊은 여성 - 체중조절과 피부미용.
- 나이든 중년 여성 - 속이 냉하고 손발이 차고 변비가 있을 때 속이 편해지고 손발이 따뜻.
- 직장인 - 잦은 술자리 회식 등의 숙취 해소에 도움.
- 학생 등 - 머리를 맑게 해 줍니다.

판매원 : 마하몰 02)732-1520 www.mahamall.co.kr
금원당 다보향 070-8758-8847 www.dabohyang.co.kr

지관(止觀)은 염불 · 간화선 · 위빠사나 등
모든 수행의 핵심 법문!



법공양시 특별 할인!

지관수행
수습지관좌선법요
(修習止觀坐禪法要) 강의
천태지의 저 | 송찬우 역해
신국판 | 흑백 | 456쪽 |
2011년 11월 25일 발행
18,5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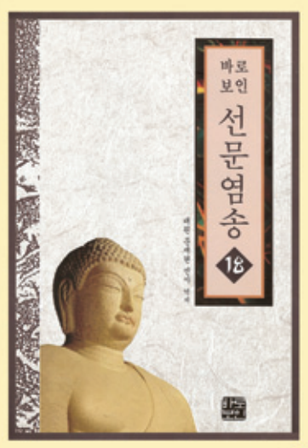
모든 남 · 북방 수행법의 이론과 실제 결들인 수행 지침서
'지samatha' 를 통해 선정을,
'관vipassana' 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

〈수습지관좌선법요(修習止觀坐禪法要)〉는 처음 발심한 사람이 수증(修增)하고 입도(入道)하는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지관법문을 총론적으로 밝힌 책. 천태종을 창종한 천태지의(538~597) 대사의 저술.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대강백 탄허 스님으로부터 교(敎)를, 명예원로의원 성수 스님 문하에서 선(禪)을 닦은 동현 송찬우 교수(중앙승가대)가 이론과 실제를 겸들여 상세한 해설을 덧붙여 수행 지침서 역할을 하도록 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8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18권 출간!
협산선사, 투자선사, 취미선사, 조과도림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치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밥 먹는 일이 삶과 죽음 가르는 큰 일



이순신 식사대계食事大計

이 강산 침노하는 왜적 무리를
거북선 앞세우고 무찌르시어
이 겨레 구원하신 이순신 장군
우리도 씩씩하게 자라납니다.

요즘에야 부르는 아이들이 없을 테지만, 오래전 아이들은 초등학교에서 이 노래를 배워 고무줄놀이를 할 때 많이 불렀다. 이순신 하면 흔히 충무공, 성웅, 23전 23승, 한산대첩, 명량해전, 노량해전, 노적가리, 강강술래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는 말을 떠올린다. 그러나 무엇보다 알뜰히 살펴야 할 사료가 〈난중일기〉다. 한치 앞을 헤아릴 수 없는 전쟁터에서, 백의종군 길에서도, 거르지 않고 담담하게 또는 비통하게, 하찮아 보이는 조그만 일까지도 낱낱이 적바림해 남겼다. 우리는 난중일기에서 잘못되어 가는 세태를 보면서 북받쳐 오르는 울분을 참지 못

〈난중일기〉 이순신 연구 으뜸 자료
조그만 일도 낱낱이 기록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루는
뜨거운 의지의 이순신 투영

하고, 헐벗은 부하들에게 기꺼이 옷을 벗어 주었으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 목 놓아 울고, 진중에서도 병들어 누운 어머니를 떠올리며 가슴앓이를 하고, 때론 다른 장수 욕을 하는 부하들 푸념을 들어주고, 오랜 싸움에 지쳐 몸져눕기도 한 사람. 그러나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뜻한 바를 꼭 이루고 마는, 뜨거운 이순신과 만난다.

아들 이순신
아버지 이순신

"일찍 식사를 하고 어머니를 마중하려고 바닷가로 나갔다. …아직 배가 오는 소식이 없다고 했다…. 얼마 뒤 종 순화가 배에서 내려 어머니 부고를 전했다. 뛰쳐나가 가슴을 치고 슬퍼하니 하늘에 뜬 해조차 캄캄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이루 다 적을 수가 없어. 뒷날에 적었다." -정유재란이 터진 정유년(1597) 4월 13일 일기

임진란을 시작으로 6~7년 조선 전토를 유린했지만 오직 이순신에게는 당하기만 하던 일본군은 충남 아산으로 쳐들어가 그 식솔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어 셋째 아들 면이 맞서 싸우다가 죽는다. 나이 스물한 살.

"…겉면에 '통곡慟哭' 두 글자가 씌어 있어 아들 면이 적과 싸우다가 죽었음을 알고 나도 모르게 간담이 떨어져 목 놓아 울었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이치에 마땅한데, 네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어찌다 이처럼 이치에 어긋났는가? 천지가 캄캄하고 해조차도 빛을 잃었구나. 슬프다. 내 아들아! …너를 따라 죽어서 지하에서 같이 지니고, 같이 울고 싶지만, 네 형, 네 누이, 네 어머니가 의지할 곳이 없으므로 아직은 참고 목숨을 이을 수밖에 없구나! 마음은 죽고 껍데기만 남은 채 울부짖을 따름이다. 하룻밤 지내기가 한 해를 지내는 것 같구나." -정유년 10월 14일 일기.

이순신(李舜臣 1545~1598) 그이는 누구인가? 본관이 덕수德水, 자는 여해汝諧, 나중에 충무공이란 시호를 받는다. 마른내라고 불렸던 인현동에서 태어나 14살 때 집안이 기울어 외가인 아산으로 내려가서 자랐다. 28살에 무과에 응시를 했는데 말 타다가 떨어져서 부러진 다리에 나무목을 대고 다시 말을 타지만 급제를 하지 못한다. 4년 뒤인 32살 때 무과에 급제하고 함경도 동구비보 권관(종8품)으로 벼슬길에 오른다. 나이 47살 정읍현감(종6품)으로 있던 이순신을 서애 류성룡이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정3품)로 무려 일곱 단계나 올려 천거한다. 파격! 조정에선 말들이 많았다. "절대 안 된다. 이 무슨 수작이냐?"며 반대가 거셌지만 반대를 무릅쓴 류성룡의 강력한 천거로 전라좌수사가 된다. 전라좌수사가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탈영범과 군령을 훔치는 자들을 엄한 벌로 다스려 기강을 바로 세우기였다. 1년 2개월 뒤에 임진왜란이 터지고, 한산대첩에서 승전을 거둔 이순신은 그 이듬해 모든 중심진을 한산도로 옮기고 나서 삼도수군통제사가 된다.

정유년(1597) 이순신 나이 53살 정월. 군공을 날조해서 임금을 기망하고, 적장 가토 기요마사 목을 잘라오라고 조정출항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선조임금 국문을 받고 사형선고까지 받았다. 그러나 우의정 정탁의 변호로 간신히 풀려나 백의종군하다가 다시 삼도수군통제사에 올라 겨우 남은 13척 배로 왜 대전단과 맞서 크게 이긴다. 명량대첩. 이순신은 이듬해 1598년 마지막 해전, 노량해전에서 전사한다. 선조는 이순신이 백성과 부하들 흠모를 받기에 언제 자신을 덮칠지 모른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마지못해서 선무공신 1등에 녹훈하고 좌의정에 추증한다. '충무'란 시호는 이순신이 전사한지 47년째 되는 인조 21년(1644)에 내려지고, 또 150여 년이 지난 정조 17년(1793)에야 영의정으로 추증된다. 그 뒤 두 해가 지난 정조 19년(1795)에 〈이충무공전서〉가 편찬된다. 오랜 세월이 흘러 1959년,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11년이 지나 〈난중일기〉 임진 초 〈석관첩〉 곧 이순신 장군이 임진란과 정유재란 그 난리를 7년 동안 거치면서 남겼던 기록들을 국보 제76호로 지정하기에 이른다.

식사대사食事大事
생사대사生死大事

홀로 사시는 법정스님은 늘 혼자서 끼니를 해결하셨다. 때론 끼니때가 번거롭기도 하신지 "식사대사가 생사대사" 또는 "식사대계"란 말을 즐겨 쓰면서 밥 먹는 일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큰일이라며 농담을 하셨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농담으로 알았

둔전을 일궈 백성과 군사들
먹을 거리 걱정 해소
전쟁터에선 죽을 각오로 맞서
일본조차 이순신 칭송

다. 그러나 곱씹어 살필수록 그 말씀이 단순한 농담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깊게 따져보지 않더라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점에서는 석가나 예수도 비켜갈 수 없다. 그래서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은 누구든지 자기 식솔들을 잘 거두어 먹여야 한다. 기업이나 사회 그리고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이순신이 삼도수군통제사에 올랐을 때 나라에서 먹을거리, 병선, 무기를 공급해 주지 않았다. 함선도 만들고 무기도 만드는 일, 병사를 먹이고 입히는 일을 알아서 해야 했다. 권율 의병장 곽재우 원균 이억기 같은 당대 장군들 모두 7년 전쟁을 함께 치렀지만, 백성을 먹여 살리고 전쟁비용을 마련하려고 산업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달랐다. 바닷가 고을을 돌면서 그곳을 수군 전속으로 복속시켜 바닷가에 버려진 땅들을 아주 넓은 둔전(屯田)으로 일궈냈다. 둔전은 백성들에게 임자 없는 땅을 갈고 일궈서 거둬들인 곡식을 절반은 백성들이 갖게 하고, 나머지는 군대에 바치게 한 제도이다. 게다가 바다에


이순신 장군의 충절을 기려 세운 석천사

서 전복이나 미역을 따고 생선도 잡으며 바다와 육지 산물을 함께 개발해 전쟁 한복판에서 국내외 해상무역에도 나서 무기를 만들고 선박을 건조하며 병사들을 키웠다. 이렇게 1593년부터 3년 5개월 동안 왜적을 완전하게 막을 수 있었던 배경에 커다란 농장, 어장, 공작소가 운영돼서 돌아간 한산도 통제영, '수국(水國)'이 있었다. 그 덕분에 백성들은 밥걱정을 덜었다. 군사들은 식솔들이 왜적 손아귀에 떨어지게 된다면 굶어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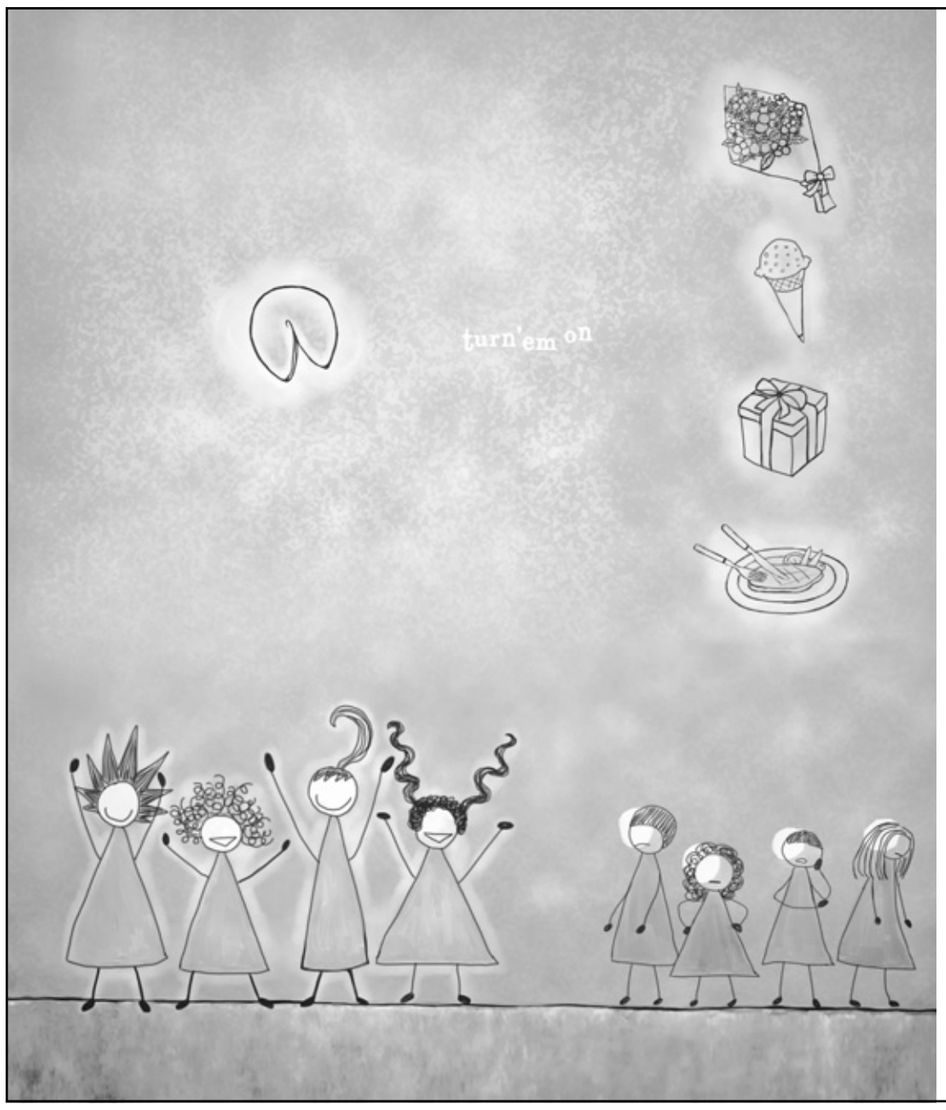
원균이 1597년 정유년, 칠천량해전에서 그동안 이순신이 일궈놓은 막강한 조선 수군을 완전히 초토화 시킨 뒤에 백의종군을 마치고 삼도수군통제사로 복귀한 이순신에게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배 12척뿐. 부서지고 깨진 배 한 척을 수리해 13척 배로 일본 수군 330척을 상대로 명량해협에서 사즉생死則生 각오로 일자진으로 맞섰다. 물러섬이 없는 군사력 밑바탕에는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 식솔들이 다 죽는다.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식구를 살리고야 말겠다'는 죽을 각오로 두려움과 맞선 병사들이 있었다.

일본 작가 시바 료타로는 "이순신은 당시 조선관리 가운데 유일하리만치 청렴한 인물이었고 지휘통솔력, 전술능력, 조국에 대한 충성, 용기에 있어서도 기적과도 같은 군인이었다. 세계 역사에 이순신만한 사람은 없다."고 칭송했다. 역시 일본 역사가 아리모토는 "세상 모든 영웅은 우러러 보이지만 이순신은 고개를 숙이게 만든다"며 "기독교인인 내게 이순신은 십자가를 선택한 예수를 떠올리게 하는 분"이었다고 말했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나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지닌 뜻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 밥 먹는 일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큰 일이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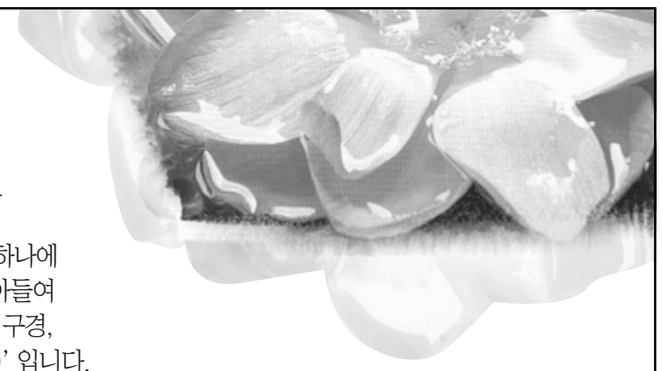
변택주(연구소통 소장)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한마음선원소식

〈월 1회 발행〉

이 지면은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과 전국 및 해외 지원의 신도들을 위해 별도로 제작되었으며 해당 독자들에게 배송됩니다. '한마음선원 소식' 이 실린 신문의 구독을 원하시거나 거부하실 경우 본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004-8200, 8212

"한마음선원의 포교 열정에 감사합니다"

조계종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 퇴임식서 선원에 감사패 전달



한마음선원이 조계종 포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조계종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11월 3일 봉행된 퇴임식에서 한마음선원을 비롯한 4개 사찰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시상식에는 본원 주지 혜원 스님이 참석해 감사패를 받았다.

혜총 스님은 "대행 스님 원력으로 이뤄진 한마음선원의 후원과 동참 덕분에 제5대 조계종 포교원의 종책 구현이 가능했다"고 치하했다.

한마음선원은 대행 큰스님의 포교 원력의 실천을 위해 조계종 포교원 종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후원과 동참을 아끼지 않았다.

한마음선원은 지난 6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있었던 '제3차 어린이청소년포교 중심도량 현판 전달식 및 우수 중심도량 지원물품 전달식' 에서 서울 도선사 등과 함께 우수 도량으로 선정됐다. 같은 달 16일 한마음선원 합창단은 태릉선수촌 오륜관에서 열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대법회' 에 참석해 맑고 청량한 공연을 펼치는 등 불교계의 여러 행사에서 그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원은 매년 봉축행사에 열정적이면서도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참가해 사찰 및 단체들에 귀감이 돼 왔다. 봉축위원회는 매년 한마음선원의 이런 노력을 높이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대행 큰스님은 2011년 11월 17일 열린 '제22회 포교대상' 에서 비구니스님 최초로 대상을 수상했다.

한마음선원과 대행 스님은 그동안 포교활성화를 위해 현대불교신문 창간, 심성과학연구원 설립, 뜻으로 풀이한 한글경전 보급 등 불교의 현대화 · 과학화 · 생활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불교중흥을 위해 각종 불사에 힘을 아끼지 않고 무연유연 중생들을 위한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글=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다시 보는 대행 큰스님 말씀

〈한마음요전〉 중에서 발췌

"다가온 경계에 쩔쩔 매지 말라. 다가온 경계를 붙들고 끙끙거리지 말라. 그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여 두 번 괴로워 할 것인가. 경계가 닥치니 괴롭고 그 경계에 얽매이니 또 괴로운지라 무엇 때문에 괴로움을 자초하려는가."

"모난 돌을 쪼는데 정을 쓰듯이 경계란 것은 나로 하여금 둘 아닌 도리를 알게 하는 것이다. 주인공이 나를 둥글게 다스리기 위해 이심전심으로 상대를 통해 나를 치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경계가 닥쳐온들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일이니 남을 증오할 것도 배신할 것도 없다. 오직 주인공에게 감사하는 환희의 웃음 띤 얼굴만이 공부하는 이의 모습일 것이다."

"다리 많은 지네가 잘 가다가 문득 제 꼴을 보고는 '아니, 다리가 이렇게 많은데도 어떻게 해서 서로 엉키지도 않고 잘 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다리가 서로 엉켜서 갈 수 없다고 한다."

부처님 뜻에 따라 살 것을 서원합니다

한마음선원 5000여 신도 동시 수계법회 성료

아침부터 찬바람이 불며 겨울이 다가왔음을 알리던 11월 20일.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에는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신도들로 성황을 이뤘다. 이 날은 5000여 명의 신도들이 부처님 뜻에 따라 바르게 살 것을 서원하는 '2011 한마음선원 수계법회' 가 봉행되는 날이다. 수계를 받을 신도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7000여 명이 선원을 가득 메웠다.

수계법회에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부터 가족들의 부축이 필요한 고령의 보살까지 다양한 신도들이 참석했다. 수계자들은 삼보를 청하는 청송을 통해 불보살님들의 자비광명으로 수계를 증명할 것을 청하고 대행 큰스님을 증사로, 주지 혜원 스님을 계사로 모셨다. 신도들은 또 삼귀의를 행하고 오계를 받들어 자성불을 발현할 것을 다짐했다.

대행 큰스님은 동영상 법문을 통해 "오계를 받고 이를 실천하면서 가피를 받는 것은 영혼을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지극히 정성을 다해야 하고, 한번 받았다고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수계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계율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은 안 받아도 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이 길잡이, 보디가드를 해주면서 방향을 잡아준다. 의식만 있는 사람은 마음의 길잡이, 주장자가 없는 것이다. 한마음으로 둥글게, 둘로 보지 말고 살아야 한다. 옛날 얘기도, 미래 얘기도 듣지 말고 현재에 우리가 땅을 밟고 살얼음판 위에서 산다는 것을 느끼라. 그러면 5계 받은 것이 대성공으로 이뤄질 것이다"고 밝혔다.



수계법회에 참가한 한마음선원 신도들

스님의 법문이 끝나고 주지 혜원 스님이 오계를 설하자 신도들은 모두 함께 지계의 다짐을 하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연비와 수계 의식에 임하였다. **박기범 기자**

"수계 받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10년째 수계법회 동참해 온 조정순 보살



"10년째 수계법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수계를 받고 나니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군포에 거주하는 조정순(60) 보살은 1995년에 첫 수계 후 거의 매년을 빠짐없이 수계법회에 참석하고 있다. 수계를 받고 나면 세파에 찌든 마음을 청소할 수 있어 삶의 목표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보살은 남편을 잃고 남편의 49재를 지내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한마음선원에 매주 꾸준히 나와 법회에 참석하는 그는 현재 직장인 법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조정순 보살은 "수계를 받을 때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다. '이 계를 받아 지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인연과 업식에 얽매이는 마음에서 벗어 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어야 불자로서 당당하게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큰스님 가르침대로 마음공부 하겠습니다"

김유석 · 왕치 부부



김포에 사는 김유석(41) 거사는 아내 왕치(26)와 23개월 된 아들 연효와 함께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서 선원에 도착했다. 김포에서 안양 본원까지 거리가 꽤 멀기 때문이다. 선원에서의 수계는 두 번째 받고 있지만 김 거사는 티베트까지 가서 불교공부를 하는 등 마음공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유석 거사는 "수계를 받고 나니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아 좋다. 앞으로 수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 같다"며 "마음공부가 제대로 되려면 매년 연비를 받는다거나 해서 스스로 마음이 게을러지지 않게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거사는 공생실천과정에 참여하면서 마음공부야말로 자신이 가야할 길이라는 확신을 얻게 됐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수계를 받은 그는, 이후 가족을 모두 데리고 선원 법회에 꾸준히 참석 중이다. **박기범 기자**

한마음과학원 공생과정 불교시민단체에 소개 돼

한마음과학원(원장 대행)은 10월 31일 템플스테이회관에서 열린 '생활수행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불교시민사회 1차 대화마당' 에서 생활프로그램 개발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행사에는 김용환 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해 한마음과학원의 공생실천과정 등을 소개했다.

'한마음 공생실천과정' 은 생활 속에서 내게 닥쳐온 여러 인연들을 통하여 자기 마음을 지켜보고 마음 공부의 실천을 통하여 공생의 도리를 체득하게 한다.

박기범 기자



"한마음이라 힘들지 않아요"

한마음선원 본원에서는 월동준비를 위해 배추 5000포기와 무 2000개 규모의 김장을 11월 26~27일 이틀에 걸쳐 진행했다.

선원 사부대중들은 12~13일 한마음음악제에 이어 큰 행사를 연이어 치르느라 모두들 힘들었지만 본원 스님들과 신도들은 이른 시간부터 김장 울력에 참여, 한 해의 겨울을 준비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

박기범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피로를 풀어주는 능인라벤더 향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15,000원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효사비결' CD프로그램 발매 안내

"저, 고복자 효사는 일생적 완성품인 본 '효사비결'을 육임나라(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매하오니 전국 현인 기사 이인 여러분의 많은 애호 있으시기 바랍니다."

一. 신규 장착 내용

1.육임운명판단법(일생사)

전화 걸어온 자의 일생사를 정확히 미리 알아 먼저 판단하여 지적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고귀명수' 2011보정판을 새로 장착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방문자의 각 성질/방문자의 신분직업/질병요수/생애적 숙명 · 불성사 · 재해육친/전체적 운명/일생적 특이사항/초 중 말년 운세/각 나이 때 겪는 사건/육친 불구자 유무/배우자 복분 및 용모 성질/선천 부귀빈천(재물복 형제복 전택복 자식복 노복복 부부복 질액복 이동복 관직복 노후복 용모복)/후천 변화 가능 종사업명시/국가고시(사법 행정 외무)합격자 명시/초중말년 가정사/각 나이 때 침범하는 귀신 부정 음택(산소)탈 명시 및 해소방법/매년 태세지에 따른 출산아 친소 여부/일생 원조 또는 해악인 명시/남녀 각 성(性) 기능力 등등이 한눈에 잡힙니다.

2.육임시보래정판단법(당면사)

방문자/전화 걸어온 자의 당면사를 정확히 미리 알아 먼저 판단하여 지적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육임산책' 2011 증보판을 새로 장착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방문(전화)자의 우리에 대한 신뢰도를 '신뢰' · '고집' · '설득' · '불성'으로 표기하고 방문자의 당면 요체를 거르고 걸러놓은 초사(初射)/왜 왔는가?를 먼저 말할 수 있도록 써 놓은 시보(時報)/현재 어떤 정황인가?를 미리 알게 해놓은 내정(來情) /지금 어떤 귀신(작사 방해귀발병귀부정빌미 산소탈)의 침범을 받고 있고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그 해소방법이 당장 효과가 나는가? 아니면 언제라야 효과를 내겠는가? 를 미리 알고 먼저 판단하여 지적할 수 있도록 해놓은 형이상법 /방문자의 전체적 당면운세에 대해 교시해줄 수 있는 문구/방문자의 비밀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확실하게 적중되는 비구(秘句)들이 한눈에 잡힙니다.

3. 12 띠별 성부(成否) 단정법

방문자/전화 걸어온 자가 물어오는 항목, 모망계획사/공명승진사/구재구물금전사/구직직장사/시험합격사/결혼성사여부사/출산임신남여아사/가정흥쇠사/이동보직이사사/소송관재사/질병치유사망사/매매사/출행여행사/도난분실사/가출귀가사/올지말지대인사/면접가능여부사/채용인선악길흉사/투자득실사/승패사/가격고하사/풍흉경작사/묘지길흉사/청우날씨사 등등에 '된다' '안된다' '좋다' '나쁘다' '하라' '마라'의 답을 달고, 다시 방문자의 12띠 별로 되는 것이 안되고, 안되는 것이 되는 변화 현상 까지 다시 색인하여 기존 것의 착오부분을 말끔히 해소시켰습니다.



二. 개선시킨 항목

전국에서 기존 것을 사용하시는 여러분의 의견을 두루 취합하여 더 쉽게, 더 정확하게, 더 간편하게, 더 효과 있게, 그야말로 비싼 명품답게 손색없이 만들어 냈습니다.

1. 이리저리 화면을 옮겨 보지 않아도 되게끔 하루 실시간에 맞춰 자동적으로 떠 있는 첫 화면에서 시작하고 끝나도록 구성시켰습니다.
2. 방문자/전화 걸어온 자의 일생사 핵심내용은 첫 화면 오른 쪽에, 당면사는 왼쪽에 배치하여 한눈에 해당인의 일생사와 당면사가 즉시 파악되도록, 그리고 그 내용을 먼저 지적할 수 있도록 착목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3. 이 일생사와 당면사의 핵심 내용 글귀를 좌우 각 칸에 적시했고, 그 적시 글귀에 대한 보충설명 및 첫 화면 해당 칸에 나타난 작사귀 병귀 빌미부정 산소탈 등의 명칭 설명과 수법 방법을 그 해당 칸 단추만 클릭하면 바로 뜨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육임을 처음 쓰는 분이나 초보자도 어려움 없이 쉽게 써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이처럼 첫 화면에 일생사와 당면사를 배치시켰고 해당 칸 마다의 육임 핵심사안 글귀별로 그 보충설명이 단추 안에 들어 있어 육임법의 요체 학습까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육임은 정확도가 보장됩니다.
   다만 방문자가 묻는 사안별로 해당인의 띠에 따라 변화가 있게 되는데 지금껏 이 부분을 명기해놓지 못했던 관계로 다소의 '부적중'의 우려가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같이 방문자의 띠별로 변화되는 것 까지 일일이 표시하여 그 정확도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육임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비로소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이 '육임운명판단법'과 '12띠별성부변화법'이 너무나 방대하여 몇 천년 육임사 이래 중국 일본 우리나라 그 누구도 해놓지 못한 것을 제가 5년에 걸쳐 완성해 책, 즉 '활용서'에 이어 본 'CD프로그램'으로 까지 장착해낸 것입니다.
6. 이번에 또 잘한 것은 이 '항목별 12띠별 성부단정'을 첫 화면 좌측 당면사 하단에 배치시켜 방문자/전화 걸어온 자가 한 번에 몇 가지를 물어도 아무 구애 없이 바로 바로 정확히 그 '되고' '안되고' '좋고' '나쁘고' '하라' '마라'를 확정해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것에는 이번 것처럼 12띠별 변화가 표시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 부분 화면배치가 뒤 쪽에 배치되어 있어 여기에 들어가고 나오는데 따르는 불편이 컸습니다.
7. 수법(修法)으로는 귀신치병고법(古法)/가택부정진압법/옥추비법/귀신침(針)법/천기법/신명법과, 작사귀해소법/병귀해소법/산소탈해소법/초년 · 중년 · 말년 가정우환해소법을 적시해 놓았습니다.
8. 위 육임 '일생사' 와 '당면사' 핵심 적시문마다 단추를 달아 그 요체를 자세히 부연시켜 육임학습도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三. 출생연월일시 입력기능, 업데이트기능 무료 관리, 인증기능 삭제, 시간표시이동 개선, 오자 탈자 시정, 고객관리 매뉴얼 보강, 보기 요령

1. 기존의 것에는 방문자/전화 걸어온 자가 한 번에 여러 항목을 물어 이를 답변해 줄 때 그 시간 표시까지 차객되었으나 이번에는 최초 시간 표시 및 해당 국수는 그대로 있게 하고 프로그램 안에서만 차객되게끔 하여 최초 시간과 국수를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을 없앴습니다.
2. 육임운명판단 일생사가 첫 화면 우측에 당면사와 함께 자동적으로 뜨게 되지만 여기에 해당인의 출생 연월일시를 기입해 넣으면 우측 일생사만 다시 해당인의 출생일 것으로 교체되어 즉시 뜨게 됩니다. 그러므로 출생연월일시가 부정확 하거나 몰라도, 또는 알면 아는대로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나 보다 능동적인 판단이 가능해졌고 또 그것이 적중합니다. 참으로 적절한 묘리를 살려놓은 것입니다.
3. 오자 탈자를 바로잡았습니다.
4. 고객관리 매뉴얼을 개선시켜 오랜 후 다시 온 고객에 대해서도 전 상담내용과 판단 결과를 쉽게 찾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본 '효사비결' CD프로그램 보기 요령을 달아놓아 편리할 것입니다.
6. 업데이트 관리를 철저히 시행합니다. 앞으로는 교환이 없고 3개월 마다 1회씩 제가 보충해 보내드리는 CD를 여러분의 거소에서 받아 늘 새롭게 쓰시게 됩니다.
7. 인증기능을 없앴고, 이곳 저곳 무제한 적으로 설치해 놓고 쓰실 수 있습니다.

四. 차별화

1. 이번 이 '효사비결' CD프로그램은 기존의 '효사활인천역집' 시리즈에 비해 월등한 제품이 되어 있다는 것은 위의 신규 장착 설명으로 그 차별성을 아셨을 것입니다.
2. 또 기존의 것에 대해 수 차례 공지, 광고, 개별통보를 통해 단종 고지를 해 드렸고 지난 5월 1일자로 인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3. 다시, 수 차의 교환시기를 알려드려 많은 분들이 교환 신청을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접수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아래의 상향된 가격으로 교환 하셔야 합니다. 어쨌거나 이번 것의 크게 향상된 효과성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五. 기타 장착 육임서 및 사주 등 각 오행술 수록 명세

본 '효사비결' CD프로그램에는 고귀명수에 의한 '육임일생사', 효사육임산책에 의한 '육임당면사 및 육임항목별 12띠별 성부단정'과 '육임대계전서'/'육임래정비법혁신판 수정보완본'/'태아분만길일길시선택비법'/'육임사주감정법'/'육임궁합법'/'육임1년신수비결'/'육임택일법'/'육임지두생활비법'/'육임생활상담록' 등 고가의 육임활용서 10종이 수록, 종합되어 있고, 그 외 효사숙 사주(사주팔자, 사주풀이, 사주비법) /매화역수/월영도/작명/궁합/궁합사주/택일/주역/당사주/토정비결/정통부적/꿈해몽/동의보감/로또운세 등 16종이 수록, 종합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에도 이렇게 종합된 활인천역자 임상용 CD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더욱이 다양, 자세, 정확, 착목, 간편, 효과, 형이상이 보장된 것은 단 하나, 제가 직접 쓰고 만든 이것 뿐입니다.

六. 교환 및 신규 구입 조건과 요령교환 조건과 금액, 신규 구입 가격은 이렇습니다.

1. 기존 사용자 교환 : 효사활인천역집 Ⅲ 250만원
   효사활인천역집 2010완결판 180만원
   효사활인천역집 2010완결보정판 150만원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120만원
2. 신규 구입 : 650만원
3. 한국육임학회 회원 : 570만원
4. 개문자(開門者) : 500만원 (개문장소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fax 제시자)
5.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나라(주)
6. 문의 및 입금통보 : 02)738-8680
7. 출장 카드결제 환영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2시간동안 무료
"육임효과활용강의"가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아래 약도를 참고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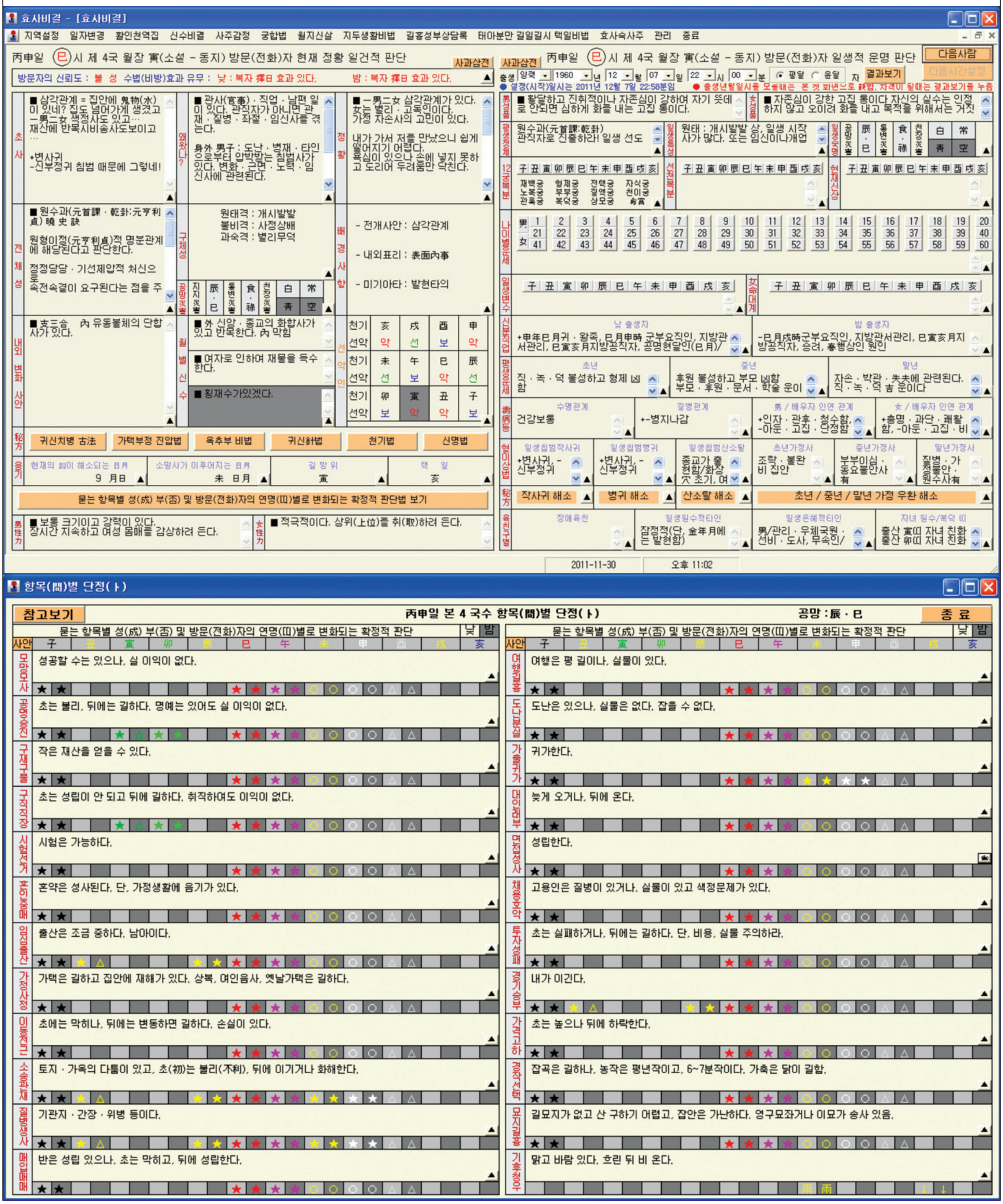
-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403호
- 지하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전국 현인 기사 이인 여러분의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下 元 신묘년 무술월
고복자 **효 사** 배상

'효사비결' CD프로그램 안내 PC 화면

육임을 몰라도 해당칸에 나타난 내용만 보시고 말씀하시면 적중합니다. 칸칸의 단추를 누르면 체출 근거가 자세히 써져있습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 민족의 영산에 피다



가람배치가 수려한 구례 화엄사(상)

화엄(華嚴).

동국역경원에서 펴낸 〈불교사전〉(운허 역)에는 "〈화엄경〉을 가리키는 경우와, 이 경에 의해 세운 화엄종을 가리키는 경우와, 또 그 교의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화엄'이라는 말 자체는 아름다운 꽃으로 치장된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로 이해되지만, 〈화엄경〉이라는 경전과 그 경전이 담고 있는 사상과 그 가르침을 근간으로 형성된 종파로서의 '화엄종' 등의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불교신자들에게 화엄이라는 말은 〈화엄경〉의 줄임말 정도로 이해되거나 매우 아름답게 치장된 모습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의 내용을 음미하는 21일간에 설해진 경전이 〈화엄경〉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최초 설법이다. 고은의 '소설 화엄경'과 장선우 감독의 영화 '화엄경'도 대중적 관심을 끌었고 '입법계품'의 53선지식을 찾아다니는 선재동자의 구법 이야기도 널리 알려져 있다. 법정 스님의 〈신역 화엄경〉(동국역경원, 1990년) 해제의 한 대목을 읽어 보자.

〈화엄경〉의 원이름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이다. 대방광은 부처를 수식한 말, 즉 무한 광대한 부처란 뜻. 다른 경전은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만 이 화엄경은 보살이 '부처님을' 설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 보살이 부처님의 광대한 덕행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화엄이란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다는 뜻. 장미나 모란처럼 한 동안 피었다가 져버리는 그런 꽃이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다. 청정하고 올바르고 덕스러운 보살의 행에 비유한 것. 세상에 덕이 될 수 있는 꽃은 결코 시들지 않기 때문이다.

〈화엄경〉은 60권 본(이를 60화엄이라 함), 80권 본, 40권 본으로 유통된다. 물론 한자로 된 것들이다. (중략) 화엄경은 맨 처음부터 이와 같이 하나로 통일된 경전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각 장이 독립된 경전으로 유통되다가 뒷날 현재와 같은 화엄경으로 집대성 된 것이다. 화엄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시기는 대강 4세기경이고 장소는 중앙아시아 쪽이 아니겠느냐고 추정하고 있다.

화엄사 가는 길은 찬란했다. 늦가을 오후 햇살을 받은 단풍이 길바닥에 붉은 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것만 같았다. 더러 말라버린 잎들도 있지만 아직 화엄사 계곡은 '단풍화엄'이었다.

"어쩜 단풍이 저렇게 고울까?"

지혜장이 감탄사를 이어가는 동안 차는 매표소를 지나 주차장에 닿았다. 주차장 주변도 온통 단풍잔치였다. 새로 놓은 다리를 건너니 바로 일주문 앞이다. 일주문의 오른쪽에는 붉은 단풍나무가 왼쪽에는 빨간 우체통이 서 있다. 나름 절묘한 조화다. 살짝 빛바랜 단청과 막돌로 쌓은 담장이 정겹다. 단풍나무 아래 절의 역사를 알리는 안내판이 서 있다.





회엄사 부도밭

화엄사(華嚴寺).

화엄사는 6세기 중엽(544 백제 성왕) 인도에서 온 연기(緣起) 조사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신라의 자장율사와 의상대사, 고려의 대각국사 의천 등 여러 고승에 의해 중창돼 조선 세종 6년(1424)에는 선종대본산(禪宗大本山)으로 승격되기도 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5000여 칸의 건물이 전소되고 주지였던 설흥대사는 300여 명의 승려를 이끌고 왜군에 대항하다 전사하는 고난을 겪기도 했다. 석조물을 제외하고 현재 남아 있는 전각들은 모두 임진왜란 이후에 세워진 것들이다.

일주문, 금강문, 천왕문을 차례로 지나 보제루 앞 마당에 들어서면 높이 쌓아 올린 대석단을 중심으로 아래로는 승방과 강당 등의 수행공간이, 위로는 대웅전과 각황전을 비롯한 예불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 눈여겨 볼 것은 각황전과 대웅전을 중심으로 절

연기 조사 창건 '화엄종찰'의 터전 다져
의상·도선·각성 등 시대별 고승이 중창

묘하게 조화된 가람배치의 아름다움이다. 또한 사사자삼층석탑과 공양석등에 전해 오는 연기조사와 어머니의 효 이야기도 발목을 끌고, 각황전 앞의 석등과 모과나무 기둥이 독특한 구층암 등도 화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들이다.

일주문은 양쪽에 문짝을 달고 있다. 문턱을 넘어서니 앞으로는 금강문이 보이고 오른쪽은 기념품가게, 왼쪽은 안내소다.

"와, 여기 깔린 돌 좀 봐. 화강암인데 무지 넓다."

양쪽에 물길을 둔 진입로는 넓이가 네발걸음에 길이가 여섯 발걸음 쯤 되는 넓은 돌 판이었다. 그래서인지 금강문까지의 경사가 지루해 보이지 않았고 평지를 걷는 느낌이었다.

진입로 중간 지점에서 오른쪽에 서 있는 비는 벽암국일도대선사비(碧巖國一都大禪師碑)다. 비는 귀부와 비신 이수 등이 양호한 영태를 유지하고 있다. 비신을 받치고 있는 거북은 몸을 좀 움츠린 듯한 모습이지만 두툼한 등껍질과 굳게 다문 입은 강한 인상을 풍긴다. 이수의 구름문양은 화려한데 여러 마리의 용이 조각되지는 않고 중간에 커다란 용두가 강조돼 있다. 나팔수 씨가 백일홍 나무 아래 놓인 안내판을 내려다보며 읽었다.

화엄사 중창의 주역인 벽암각성(碧巖覺性; 1575~1660)의 탑비이다. 그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참전해 크게 활약했고 승군을 이끌고 남한산성을 축성하는 등 조선후기 사회에서 불교계의 위상을 높이는데 공헌 했다. 또한 전란 후에는 화엄사를 비롯해 해인사, 법주사 등의 여러 사찰의 중수를 주도해 조선후기 불교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이 스님이 대웅전 등 여러 불사를 했고 제자인 계파 스님이 각황전을 새로 지은 걸로 알고 있어."

벽암 스님은 오늘날의 화엄사를 이룩한 주역이다. 전쟁 중에는 사명대사로부터 명장이라 칭송받았으며 전후에는 남한산성 축성을 지휘했다. 인조2년(1624) 팔도총섭에 임명돼 승군을 독려해 3년 만에 남한산성을 마무리했다. 인조는 벽암 스님에게 '국일도대선사'라는 호칭을 내렸고 3년 뒤에는 '대화엄종주'라는 호칭도 하사했다.

금강문의 석축은 오래된 것 같지만 올라가는 계단은 새 돌이다. 절은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켜켜이 쌓이는 곳인가 보다. 옛 건물에 새로 기와를 올리고 옛 길에 새로 돌을 갈기도 한다. 그래서 옛날에 다듬은 돌과 새로 다듬은 돌이 어우러져 한 채의 집을 받들고 있다. 어쩌면 돌이 아니라 시간이 집을 받들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금강문 안에는 금강역사와 문수동자 보현동자가 양쪽으로 나뉘어 모셔졌고 가운데가 통로다. 오른쪽에 나라연금강이 두 주먹으로 공격 자세를 취하고 서 있고 그 옆에 문수동자가 사자를 타고 있다. 왼쪽의 밀적금강은 방저적인 자세로 서 있고 보현동자가 코끼리를 타고 앉아 있다.

전각마다 주련 해석한 동판 부착 이해도와
24개의 기둥이 받친 보제루 '용도와 미학'

"두 역사나 동자 코끼리와 사자 등이 매우 질박하게 조성돼 무섭거나 경건하지 않고 편하고 친근해 보이네요."

천왕문도 새로 만든 돌계단을 밟고 올라서면 중앙에 통로가 있고 좌우에는 천왕들이 두 분씩 나눠 서 있다. 앞쪽의 주련에는 사천왕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묘사돼 있다. 화엄사는 기둥에 걸린 주련 내용의 원문과 뜻풀이를 동판에 새겨 기둥 아래쪽에 붙여 두었다.

"이렇게 주련을 읽으니까 건물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 맞아요. 천왕문에 사천왕을 찬탄하는 글이 적힌 것처럼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관음전에는 관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글이 주련에 담기게 마련이지. 이렇게 주련의 내용을 해석해서 붙이는 절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다행이지."

"아무래도 한국 사람은 영어만큼이나 한자도 공부해야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천왕문을 지나니 앞쪽에 제법 높은 돌계단이 버티고 있다. 그 위로 백골을 드러낸 보제루가 고향집에서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서 있다. 지혜장은 한 걸음에 계단을 올라가고 싶은 충동이 솟구쳤지만 참았다. 지혜장의 눈이 오른쪽 석축 아래에 고정됐다. 석축 위는 새로 지은 운고각(雲鼓閣), 그 아래 모과나무에 굵은 모과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우람한 당간지주 한 쌍이 서 있는 풍경이 한 폭의 그림이었다. 키가 2.9m인 당간지주는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고 모서리의 각을 없애 매우 안정감 있게 보였다. 그리고 그 앞에 키가 훤칠한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발치에 놓인 표지석에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식수 1964년 9월 7일'이라고 적혀있다.

"기둥이 완전 숏다리네."

보제루(전남지방유형문화재 제49호 · 사진)의 1층은 어른 키 정도 되는 높이의 굵은 기둥 24개가 2층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이다. 대개의 누각은 1층 기둥이 높아 그 아래로 사람이 다니는데 화엄사 보제루는 그렇지 않았다. 뒤쪽 마당 높이에 맞춰 2층을 1층처럼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원래 마당 쪽(보제루의 뒤쪽)으로는 벽을 치지 않고 개방했었다. 안마당에는 쌍탑이 서 있고 석축 위에 대웅전이 있다. 대웅전에서 법회 등의 행사가 열릴 때 보제루에도 사람들이 앉아서 법당을 향해 행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화엄사 보제루를 보면 절집의 모든 건물은 용도에 맞추면서도 미학적으로 최고의 기법을 동원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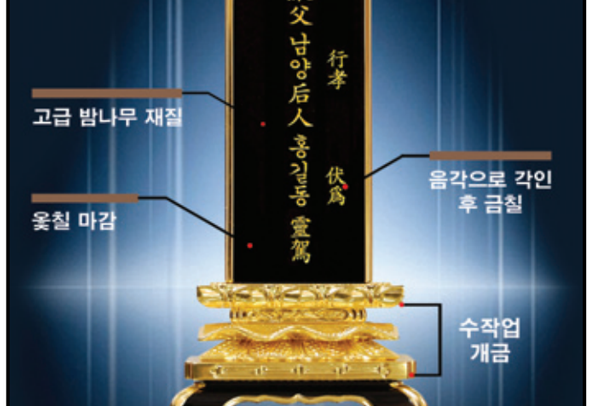


글=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1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 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4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아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 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여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용 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용
영일상사

정지천 교수의 건강칼럼

김치가 氣를 소통시킨다

건강 · 장수를 위한 상용 음식으로 불가리아에 요쿠르트가 있다면 한국에는 김치를 손꼽을 수 있다. 김치는 얼마나 효능이 뛰어나기에 평생 먹어야 하는 것이며, 체질에 따라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는 성질이 서늘하기 때문에 열을 내려 주고 가슴이 답답한 것을 풀어 주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위장과 대소장의 기를 잘 통하게 하여 대변을 잘 나오게 한다. 실제로 배추는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위장을 깨끗이 청소해 주며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어 장운동을 잘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몸이 차고 비 · 위장이 냉한 사람이 배추를 많이 먹으면 '냉병(冷病)' 이 생길 수 있다.

무를 먹으면 소화가 잘된다고 무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 실제로 무는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맺힌 것을 풀어 주어 가슴을 탁 트이게 하는 효능이 있다. 특히 두부를 먹고 체한데 좋고, 밀가루 독을 잘 해독해 주므로 국수류를 먹을 때 함께 먹으면 좋다. 무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 디아스타제를 비롯해 단백질과 지방 분해 효소도 들어 있다. 식이섬유도 많아 대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와 대장암 예방에 좋은데 칼로리는 낮으면서 포만감을 높여준다. 또한 비타민D가 들어 있으므로 무말랭이는 뼈의 성장을 돕고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에 좋다. 그밖에도 가래를 삭이고 기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효능이 있으며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주독(酒毒)을 풀어준다. 그러나 무는 기가 허약한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특히 비 · 위장이 허약하고 냉하여 소화가 잘되지 않는 사람은 적게 먹어야 한다.

고추는 한국의 음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식품이다. 매콤한 맛이 입맛을 돌게 하고 활력을 주기 때문이다. 뱃속을 데워 주고 찬 기운을 몰아내는 효능이 크며 습기를 말려 준다.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므로 소화를 잘되게 하고 뱃속이 차가워서 생기는 복통, 구토, 설사, 이질 등을 낫게 한다.

마늘은 열성으로 찬 기운이 쌓인 것을 풀어주고 몸과 비 · 위장을 따뜻하게 해서 소화를 돕는데 특히 육식 소화에 좋다. 체기와 응어리가 맺힌 것을 풀어주며 식욕을 돋우고, 몸속의 악한 기운을 물리친다. 또한, 항균 효과가 커서 식중독, 이질을 치료하고 기생충을 없애 주며 독을 풀어준다. 혈압을 조절하고 혈액 순환을 잘되게 하며 혈액 응고를 막아주고 혈전을 녹여주므로 중풍을 비롯한 성인병 예방은 물론이고 항



암 · 항노화 효과도 뛰어나다.

생강은 찬 기운을 몰아내는 작용이 강하고 가래를 삭이며 기침을 멎게 하는 효능이 있으므로 감기의 치료와 예방에 쓰이는 한약재이다. 비 · 위장을 따뜻하게 하므로 비위장이 냉하여 오는 통증과 구토를 치료하고, 소화를 돕고 식욕을 돋우어 준다. 배추로 인한 냉병을 풀어준다.

이쯤 되면 김치는 '종합 건강식품' 으로 손색이 없다. 기를 소통시키고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비만인 사람들은 몸속에 습기와 담(痰), 기름기 등이 많이 쌓여 있고 대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며 기(氣)의 소통이 잘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추와 마늘, 생강은 땀을 잘 나오게 하여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 특히 고추에 들어 있는 '캡사이신' 성분은 몸의 대사 기능을 높여 지방의 축적을 막고 이미 축적된 지방을 연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열이 별로 없는 비만 체질에 적합하다.

체질에 따라 어떤 김치를 먹는 것이 좋을까? 몸이 차갑고 비위장이 냉한 체질은 고추, 마늘, 생강을 많이 넣고 잘 익힌 김치를 먹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배추의 서늘한 성질이 덜해졌고, 잘 익은 김치에는 유산균이 많아 소화와 식욕을 돕기 때문이다. 열이 많은 체질은 매운 양념을 적게 넣은 백김치나 동치미가 좋고, 배추의 찬 성질이 그대로인 생김치나 겉저리가 어울린다.

한편, 양배추로 담근 김치도 괜찮다. 양배추는 비 · 위장의 기능을 도와 뱃속에 기운이 맺힌 것을 풀어준다. 골수를 보충하고 신장에 도움을 두며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며 경락에 기가 맺힌 것을 잘 소통시켜 준다. 설포라판 성분이 항암 효과를 나타내므로 위암, 직장암, 유방암 예방에 좋다.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 U' 가 들어 있어 위염, 위산과다, 위궤양 등에 좋고, 섬유질이 많아 변비,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불교와 한의학(3) 약사경 약사유리광여래(藥師瑠璃光如來)

약사유리광여래의 여명

약사여래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약사신앙(藥師信仰)은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에 널리 유통되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다. 약사여래 불상은 연화대에 앉아서 왼손에는 약합을 들고 오른손은 시무외인(施無畏印)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왼손에 든 약합으로 인해 금방 알아볼 수 있다.

약사여래불은 동방유리광(瑠璃光) 세계의 교주이기 때문에 아미타불, 석가모니불과 더불어 삼존을 모신 경우 석가모니불은 가운데에, 서방 극락세계의 교주이신 아미타불은 석가모니불의 왼편 서쪽에, 약사여래불은 석가모니불의 오른편 동쪽에 위치한다. 약사여래 부처님은 처음 발심해 보살도를 수행할 때에 모든 중생이 질병과 가난, 굶주림, 육체적 상해 등의 상황에 처해 약사여래의 명호를 듣거나 부르거나 생각하면 곧 이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고, 마침내 보리를 증득케 하리라는 내용을 포함한 12가지의 큰 원(願)을 발하였다. 이를 '약사여래의 12대원(大願)' 이라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약사경(藥師經)〉에 나온다.

약사경은 원본인 범어본에 대하여 5가지의 한역본이 있다. 5가지 한역본은 그 전칭(全稱)이 조금씩 다른데, 각각 동진의 백시리밀다라 역 〈불설관정발제과죄생사득탈경(佛說灌頂拔除過罪生死得脫經)〉 송의 혜간 역 〈약사유리광경〉 수의 달마급다 역 〈불설약사여래본원경〉 당의 현장 역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당의 의정 역 〈약사유리광여래칠불본원공덕경〉이다.

12대원 중 두 번째 원은 약사여래가 보리를 증득할 때에 그 몸이 유리와 같이 안팎으로 맑고 투명하여 여래의 광명이 시방세계에 가득 차고, 불꽃 그물의 장엄이 해나 달보다 찬란하여 철위산 속의 어두운 곳에서도 볼 수 있게 되며, 이 세계의 어두운 밤길을 헤매는 모든 중생들이 여래의 광명을 봄으로써 미몽에서 깨어나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는 새벽에 동쪽에서부터 비쳐오는 여명에 지구상의 모든 사물이 깨어나서 형체와 생기(生氣)를 얻는 광경과 같다. 여명은 상층 대기에 태양빛이 반사 · 산란되어 생기는 것으로, 푸른 빛을 기본으로 노란 · 붉은 빛의 여러 가지 빛깔로 시시각각 달라진다. 이는 태양빛이 유리에 반사 · 산란되어 생기는 아름다운 빛과도 같으니, 아마도 '유리광' 의 명호는 이 두 번째 대원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한편, 불교에서 모든 존재의 생멸주기를 성주괴멸(成住壞滅)로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의학에서는 사물의 오행 변화의 주기를 생장화수장(生長化收藏)으로 설명한다. 이 중 생은 만물이 처음 생겨나서 생명을 얻는 단계이며, 방위로는 동쪽, 빛깔로는 푸른색, 계절로는 봄, 인의예지(仁義禮智) 사덕 중에는 인, 장부로는 간과 담(쓸개), 오관으로는 눈, 신체로는 근(筋)과 손발톱이 여기에 배속된다. 사람을 살리는 의술을 인술이라 하며, 장부 중 간과 담이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하며, 잠을 깨고 생기가 있으면 눈을 뜨고 눈이 반짝인다. 이런 현상들에서 공통적으로 '생' 의 속성과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사물과 현상으로부터 공통적으로 얻은 속성과 이미지를 상(象)이라고 한다. 상은 한의학에서 사물들을 분류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약사유리광여래는 암흑 세상에 여명이 비추듯이, 모든 중생을 질병과 환난의 질곡으로부터 구하여 중생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자 하셨다.

그렇기에 만물이 생하는 동방에서, 빛이 가장 잘 통하고 반사 산란되는 유리의 몸으로, 푸르고도 색색으로 화려하며 따스한 광명으로 나투고 계신 것이다.



류정아(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술연구교수)

정운 스님의 사색과 명상 〈12〉

지극하면 통한다

삶의 진실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인생의 역경계를 극복해나갈 수 있다. 어느 누구나 인생에서 몇 번의 고비가 있기 마련이다. 출가자도 수행 길에서 종종 수렁길에 빠지기도 한다. 내게 가장 큰 고난은 건강이었고, 진척이 없는 학문과 수행의 딜레마였다. 그래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소중한 진리가 나를 구제해주곤 했다. 이외 외전으로 읽는 책들과 철학자들인데, 그 가운데 빅터 프랭클의 사상이 포함된다.

빅터 프랭클(Victor E. Frankl; 1905~1997)은 유태인계 독일 정신의학자이다. 2차 세계대전당시 아우슈비츠감옥의 생존자로 누이를 제외하고 가족이 모두 죽었다.

프랭클은 수용소 체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양식을 관찰해 정신질환 치료법을 발전시켰는데, 로고데라피(Logotherapy)라 불리는 의미요법

확고한 신념이 역경 극복케 해
사유의 전환이 운명도 바꾼다

(Will to Meaning)이다. 고통과 아픔을 통해 생사 · 사의 문턱에서 하나의 진리를 깨닫는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다.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발견했다. 유태인 수용소에 처음 수감됐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체력이 뛰어나게 좋은 사람과 허약해 보이는 사람, 민첩하기가 다람쥐 같은 사람과 둔하게 보이는 사람, 배운 사람과 학식이 부족한 사람 등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수용소 생활을 함께 시작했다.

프랭클은 처음에 민첩한 사람이나 체력이 뛰어나게 좋은 사람, 처세술이 좋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허약하거나 요령부릴 줄 모르는 어수룩한 사람들이 수용소 생활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다. 체력이 좋고 민첩한 사람들이 먼저 무너졌고, 오히려 허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끈질기게 버티어 나갔다. 처음에는 이런 현상을 이상하게 여기다가 점차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수용소에서 쉽게 무너진 사람들은 아무리 수단이 탁월하고 체력이 좋아도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반면 처절한 고통을 견딘 사람들은 '고난' 이라는 의미를 아는 사람, 삶의 진정성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시시각각 죽음과 고통으로 위협받으면서도 이웃 동료에게 빵을 나눠주고, 남을 위로할 줄 아는 순수한 인간성을 지닌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 프랭클은 인간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순수성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인간과 인간을 잇게 하는 따뜻한 정(情)이었고, 사랑이었다.

〈쌍윳따니까야〉에 부처님께서는 "험한 여행길에서 자신보다 남을 위하고, 조금이라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자이다. 반면 이기심만 있고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자"라고 하셨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실존적 공허에서 오는 좌절감 때문에 정신건강에 위협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신경정신쇠약(스트레스)의 현대적 의미가 될 것이다. 또한 정신적인 영역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질병으로 옮겨간다.

누구나 삶에 있어 예기치 못한 시련을 겪고 고통 받기 마련이다. 이런 때 빅터 프랭클을 상기해보라. 아무리 힘들더라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부정에서 긍정 마인드로 바꾸는 연습을 반복해보자. 이 사유의 전환은 스스로이어야 한다. 잠시 홀로의 시간을 가져보는 일이다.

전쟁이 끝난 뒤, 기자들이 프랭클에게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언제나 나의 태도만큼은 내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는 내 선택에 달린 문제다. 나는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희망을 선택하기 위해선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난 내 아내의 손에 집중했다. 그것이 내 생명을 연장하는 매개체이자 에너지였다."

오로지 수행만을 지향하는 이들에게는 어리석은 문장으로 보이겠지만, 만법이 다 하나로 돌아간다(萬法歸一)고 했으니, 일반사람들에게 명상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집중대상으로 하는 것도 권할만하다. '일중일체다중일(一中一切多中一)' 즉 하나에 모든 것이 들어 있고, 모든 것 속에 곧 하나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보라. 지극하면 통하게 되어 있다.



정운 스님(조계종 교수아사리)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부여는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이어졌을까 ?

천제의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다


고구려의 고분벽화. 고구려는 전통적으로 하느님(환인)신앙을 비롯해 산신, 신선, 닭, 말 등에 숭배했다.

1. 부여의 위치와 주체

고조선은 개국 초부터 국가기구의 조직과 법 이념 및 그 기능을 세웠던 것으로 이해된다. 〈삼국유사〉 기이편 '고조선' 조의 언급처럼 단군은 후대의 '삼정승'과 같은 최고기관인 풍백(風伯)과 운사(雲師)와 우사(雨師)의 3부 '영감'(令監)을 두었고, 그 아래에 후대의 '판서'와 같은 주곡(主穀)과 주명(主命)과 주질(主疾)과 주형(主刑)과 주선악(主善惡)을 담당하는 5부 장관(長官)을 두었으며, 그리고 그 아래에 360여 가지 소임을 맡은 '하급 관리'를 두어 후대의 국가기관의 모범을 세웠다. 또 〈한서〉 지리지 '낙랑군' 조에는 "조선은 법이 엄하고 인심이 순후하여 팔조(八朝)만으로도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했던 금법팔조(禁法八條)의 존재는 고조선이 법으로 통치된 사회였음을 알려주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현재 전해지는 살인과 상해 및 도적(과 간음)의 금법 3조목은 대단한 엄격성을 보여준다. 즉 1)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가 되게 하고 2)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공물로써 배상하며 3)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예가 되며 50만금의 속전(다량의 금)을 바치고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범금 8조에 이어 부녀들의 정신(貞信) 문제가 기록되었던 점을 미루어 보면 아마도 8조 중에 이 간음 금지(禁姦) 조목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고조선의 홍익인간 이념은 부여의 법사상에도 구현돼

또 북애(北崖)의 〈규원사화(揆園史話)〉의 단군기에서는 단군이 국내의 관리와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한 뒤에 8조목 혹은 8훈을 통해 그들을 깨우쳤다고 전한다. 즉 1)하나인 모든 덕의 근원인 신(일신)을 공경할 것 2)황조(皇祖)의 공덕을 기릴 것 3)모든 사람의 양심을 지키는 천범(자연법)을 지킬 것 4)어버이를 공경할 것 5)서로 화합하여 미워하지 말며 음탕하지 말 것 6)서로 사양하며, 빼앗거나 훔치지 말 것 7)간접적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고 서로 구제하며, 남을 업신여기지 말 것 8)타고난 떳떳한 성품을 지켜서 좋지 못한 생각을 품지 아니하는 것이 곧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친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리하면 무궁한 복을 누릴 것이다. 이 8조목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弘益人間]는 이념을 구체화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같은 고조선의 홍익인간의 이념은 부여의 법사상에도 구현되었다. 부여는 일찍부터 책임정치의 토대를 확립하였다. 부여인들은 공개심리 판결에 의한 신형(愼刑)주의를 채용하고 부족 대표자의 평의회제도를 시행했다. 그리하여 기아와 전쟁 등에 대한 책임군주제의 관습법을 실시했다.

고조선 해체 이후 그 유민들은 부여와 고구려 및 한과 예와 맥 등으로 흘러 들어가 '동이족'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부여는 지역적으로 고조선 지역과 맞닿아 있었던 요서 북부지역에 자리했던 거수국이었다. 때문에 고조선의 해체 이후 요동으로 옮겨간 한(韓)족 이외에도 요서 북부로 옮겨간 부여는 고조선의 통치자였던 단군들이 한동안 지배체제를 이어갔다. 부여는 고조선과 함께 일찍부터 중국에 알려져 있었으므로 〈통전〉 〈삼국지〉 〈후한서〉 〈진서(晋書)〉 등에 그 기록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군세기〉는 부여에 대해 "서기전 239년에 해모수가 웅심산에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그의 선조는 고리국인이다"고 하였다. 몽골 과학원의 베슈미야타바르 교수는 몽골의 부리야트족이 자신들을 부여족의 후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 부족은 현재 몽골 내륙에 자리하고 있는 부여국의 모체인 고리국(槀離國)이다. 부여는 몽골땅에서 몽골족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국하였다. 부여국의 흘승골(訖昇骨)은 몽골의 할힌골 강을 가리킨다. 몽골족의 한 파인 부리야트인들은 지금도 스스로를 코리(槀離)라고 부른다 증언한다. 부여는 고조선의 거수국이었던 예맥족으로서 흥망을 반복하다가 서기 22년에 고구려에 합쳐져 고구려와 백제의 시원이 되었다. 그 일부는 가락국을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국의 조상이 되었다. 일본의 에가미나미오(江上波夫)는 1916년경에 "일본 천황가 조상은 부여 백제계"라고 하였다. 그가 주장한 일본의 기마민족 기원설은 곧 이 부여족의 이동을 언급한 것이다.

2. 부여의 갈래들

일연은 '고조선' 조목 다음에 '위만조선'을 설정한 뒤 다시 한사군이 고조선에 밀려 철수하기 직전 평주(平州, 平那+현토)도독부와 동부(東部, 임둔+낙랑)도위부로 축소했던 '2부'를 싣고 있다. 그 뒤에 대동강 유역에 있었던 최리왕의 '낙랑국'을 한사군의 낙랑과 구별하지 못한 채 두 지역의 기록을 종합해 적고 있다. 그 뒤에는 후한 헌제(憲帝) 때 요동후(遼東侯) 공손강(公孫康)이 광무제가 요서의 난하(灤河) 유역에 자리했던 한사군의 낙랑군 남부도위를 관장하는 7현을 관할하기 위해 치지(治地)를 두면서 설치했다는 '북대방'과 '남대방'의 조목을 시설하고 있다. 후한 광무제는 서기 30년에 동부도위의 관직을 폐하고 영동(嶺東)의 7현을 완전히 포기하고 철수했다.

하지만 일연은 한사군이 반도 내에 있었다는 일부 고대사의 기록에 의거해 북대방과 남대방의 역사를 〈삼국유사〉에 편입시켰다. 이러한 조목 편입은 일연의 〈삼국유사〉 전편이 창작이 아닌 전술(傳述)의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충렬왕 7년(1281) 즈음에 걸쳐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몸소 보고 느낀 바가 있어 〈구삼국(사)기〉의 편재에 의거해서 엮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일연은 한반도 내에 있지 않았던 한사군의 낙랑군의 관할소였던 '북대방'과 '남대방' 조목 이후에 '말갈과 발해' 조목을 설정한 뒤 다시 경북 청도 지역에 있었던 '이서국'과 경남북도에 있었던 '오가야' 조목을 시설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서야 비로소 '북부여'와 '동부여' 조목을 두고 있다. 두 '부여' 조목 앞 나라들의 역사적 기원이 부여나 고구려보다 앞섰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연이 앞의 몇몇 조목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부여는 몽골땅에서 건국돼 몽골족 일부, 지금도 '코리'라 불러

일연이 참고했던 〈구삼국(사)기〉의 편제의 영향일까? 또는 일연이 임의로 그렇게 한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고조선 해체 이후 단군조선의 거수국들이 독립하면서 옛 고조선 영토 지역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일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서국과 발해 등의 조목이 부여와 고구려에 앞서 있는 것에 대한 해명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다 보니 일반사 중심으로 기술된 기이편 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부여는 예로부터 예맥 조선족으로 알져져 왔다. 일찍부터 농경생활을 해 오면서도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대하였다. 중국의 옛 기록에는 부여가 "부유하고 강력하여 일찍이 패한 적이 없었다" 적고 있다. 또 "국민성이 견실하고 강용하고 근후하여 도적질을 하지 아니하고 예절이 정중하다"고 하였다. 추수 뒤의 12월(음력 1월)에는 '맞이굿'(迎鼓)이라는 국가적 제천의식을 거행하였다. 살인과 간음 및 부녀의 투기 등에 대하여는 극형에 처했으며 일부다처와 축첩 및 순장 등의 풍습이 있었다. 한민족이 즐겨 입었던 것처럼 남녀가 모두 흰옷(白衣)을 입었다. 특산물로는 이름있는 말[名馬], 붉은 옥[赤玉], 아름다운 구슬[美珠], 동물의 가죽털[毛皮] 등이 있었다.

일연은 부여의 뿌리인 북부여에 대해 〈고기〉에 의거해 적고 있다. "임술년(기원전 59) 사월 팔일에 천제가 오룡거를 타고 홀승골성에 내려와 도읍을 세우고 왕이라 하며 나라 이름을 북부여라 하였다. 스스로 이름을 해모수라 하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루라 하고 해(解)를 성씨로 했다. 그 뒤 상제의 명에 따라 도읍을 동부여로 옮겼다." '동부여' 조목에 의하면 북부여왕 해부루(解夫婁)왕이 꿈에 천제의 현몽을 받은 대신 아란불(阿蘭弗)의 권고로 동해의 가섭원(迦葉原)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동부여라고 했다고 전한다. 그 뒤 부루왕이 늙어 아들이 없어 산천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가 탔던 말이 곤연(鯤淵)에 이르러 큰 돌을 보고 눈물을 흘린 곳에서 금빛 개구리 모양의 어린애를 얻어 금와(金蛙)에게 왕위를 잇게 했다고 하였다. 금와를 이은 대소(帶素)는 고구려 무휼(無恤)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동부여는 역사에서 사라졌다(22년). 해서 일연은 "동명제가 북부여를 계승해 일어나 졸본주에 도읍하고 졸본부여라 하니 곧 고구려 시조이다"고 하였다. 결국 부여는 북부여 → 동부여 → 졸본부여 → 고구려로 이어지면서 곰족과 범족은 하나로 통합됐다.

3. 졸본부여와 고구려

고조선의 거수국이었던 부여족은 고구려족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환국'(桓國)의 통치자 환웅이 토착민이었던 부여족(범족)과 고구려족(곰족) 중 곰족을 정복하고 자리를 잡으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곰을 토템으로 여겼던 고구려족은 점차 세력을 확장하여 범족을 아우르며 자신의 역사로 만들어 나갔다. 초기의 부여족과 고구려족의 지배자는 고조선의 통치자였던 '단군'이란 호칭을 사용해 왔다. 고대 중국인들은 조선민족을 '맥'이라고 부르다고 뒤에는 '예' 혹은 '예맥'이라고 불렀다. 때문에 예족과 맥족을 따로 보는 경우와 하나로 보는 경우가 있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예맥 역시 조선에 속하며 그 예맥은 부여와 고구려와 삼한 즉 백제와 신라 등의 시원이다"고 적고 있다. 이처럼 예로부터 중국인들이 '난하'(灤河) 이동부터 만주 전역과 한반도 전체를 '조선'이라 부른 것처럼 '예맥'은 조선족의 공통 칭호로 불려져 왔다. 예맥은 모두 고조선의 거수국이었던 시절부터 독립된 이래 우리 민족에 대한 공통의 칭호로 일컬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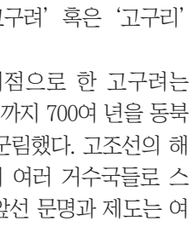
그런데 점차 예맥이란 호칭은 그 범위가 줄어들어 동예를 가리키게 되었다. 이것은 고구려 중심으로 역사가 재편되면서 그 동쪽에 자리했던 예와 옥저는 자연스럽게 동예와 동옥저 등으로 불렸기 때문이다. 특히 동예는 한때는 한나라와 맞설만큼 강성했다고 전하지만 자주적인 국가를 이뤄내지 못했다. 결국 1세기 경에 '예'는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제30의 '예전'(濊傳)에 의하면 "문을 닫지 않더라도 도적이 없다"고 적고 있다. 이들은 강직, 용맹, 근후, 질막, 성실하고 보전(步戰)에 능하였다고 전한다. 동예와 옥저는 다양한 풍습들이 있었다. 마직과 잠사술이 발달하고 어염 등 해산물과 해표피 같은 피물, 우마의 축산물 및 단군(檀弓)이라는 명궁을 생산해서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부역을 했다.

> 해모수 아들, 천제의 아들로 태어나 '고'로 성 바꿔, 훗날 '고구려' 의미

동예와 옥저의 언어와 습속 및 의식주와 예절 및 법제 등은 고구려와 대체로 비슷하였다. 옥저의 민며느리제는 고구려의 데릴사위제와 비슷했다. 특히 동예는 동성 친척 사이에 결혼을 피하는 불혼법(不婚法)이 있었다. 아마 옥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환자나 주검이 생기면 새집으로 옮겨 사는 기휘(忌諱)와 위생의 풍습도 있었다. 또 동예는 국중행사로서 무천(舞天)이라는 공동대축제를 거행했다. 그리고 경제와 제천의 구역인 산천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풍습들은 고구려에 통합되면서 고구려 문화로 이어졌다. 졸본부여로부터 출발했던 고구려는 과거 한사군이 있었던 '현토군의 지경'에 있는 졸본주에 도읍을 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갔다. 해모수의 아들이었던 그는 본성이 '해'(解)였지만 자기가 천제의 아들로서 햇빛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고'(高)로 성을 삼았다. 그리하여 '구리' 또는 '구려'를 고씨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의미에서 '고구려' 혹은 '고구리'라 하였다.

기원전 38년을 기점으로 한 고구려는 668년 나라가 망하기까지 700여 년을 동북아의 대제국으로서 군림했다. 고조선의 해체 이후 그 유민들이 여러 거수국들로 스며들면서 고조선의 앞선 문명과 제도는 여러 나라들의 삶의 방식과 질서가 되었다. 천신신앙과 토템신앙 및 산신신앙과 고목신앙들은 모두 고조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전통적 하느님(환인) 신앙을 비롯해서 성황당을 중심으로 한 산신신앙, 풍류를 기반으로 신선신앙, 그리고 곰(고구려)과 범(부여), 닭(신라)과 말(신라) 등에 대한 숭배는 우리 문화의 기반을 이루었다. 이같은 천신 혹은 산신 신앙과 무속신앙 및 풍류는 불교와 도교와 유교가 이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어져 온 한민족의 정신적 원천이었다.

일찍부터 이들 신앙들을 이어오던 고구려는 불교를 수용하면서 고대국가의 틀을 공고히 해갔다. 그 첫 걸음의 모습을 일연은 〈삼국유사〉 흥법편 '순도조려' 조목의 찬시에서 "압록강에 봄이 깊어 물풀은 곱고/ 백사장 해오라기 한가히 조네/ 홀연히 저 멀리 노 젓는 소리/ 어느 곳 고깃배가 안개 속 길손"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한글법요와 전통작법으로 올리는 특별 합동 천도재 안내

12월 11일(일) 오전 10시 30분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는 단순히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수준의 세계와 시간의 흐름을 합한 것입니다. 즉 세(世)는 시간의 흐름을, 계(界)는 공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생이 스스로의 명상수행에 의해 존재의 수준(grade)을 높여(up)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열린선원에서는 부처님 깨달음 얻으심 2600주년 성도절을 맞이하여 약2개월 동안 지장기도로 정진하며, 성도절 전야에는 밤샘참선 정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삶의 질곡 속에 지쳐 명상수행 할 용기와 결심을 갖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천도재는 부처님 또는 보살님 그리고 선신들과 스님들과 재를 지내는 후손들의 노력으로도 수행에 의한 수준높임(up grade)이 가능하여 그 결과 고통이 없는 극락(極樂)에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린다, 추천한다는 뜻의 천(薦)과 제도한다는 의미의 도(度)를 함께 붙여 천도(薦度),3업을 맑힌다하여 재(齋)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선원에서는 삶에 지친 현대인을 위하여 특별 합동 천도재(薦度齋)를 봉행하여 동참재자들의 조상님과 자매질손, 배우자, 태중영가를 천도하고 수행의 의지를 북돋우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천도재는 영산재 이수자 스님들과 함께 전통작법과 회심곡을 시연하므로 매우 뜻 깊고 풍성한 천도재가 될 것입니다.

동참비 자율보시

서울, 은평구 갈현동 467-1, 역촌중앙시장 2층(6호선 구산역 4번 출구 근처)

저자거리 열린선원 원장 무상법현 합장

문의 및 접수 : 02)386-4755
opentemple@hanmail.net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의식 의학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찰행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사주영가찾는법 속성지도)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전통의약비법전수(포교활동)

- 전수내용 : 악성관절염, 악성목허리 디스크, 악성골수염, 악성오십견, 갑상선 물혹, 편도종양 등으로 병원에서 완치가 어려운 분에게 해당 됩니다
- 전수희망자 : 포교에 뜻있는 스님(유료)
- 무료치료 : 아픈스님께 무료보시합니다

010-6285-3703

달마상 황금용주도 만능부적

심안으로 그린 액운소멸 만사형통 달마상과 황금용주도 만능부적을 인연있는 분께 드립니다
시각장애 1급 소승을 시봉할 분 기다립니다
달마 010-9003-7783

역학기문둔갑 (명리)

상담 비법전수
- 영업하고자 하시는 분 (수강즉시 바로상담 책임지도)
- 역학 : 명리, 기문둔갑으로 영가지도. 병방론 지도

사주,신수,궁합,성명학
우울증,공포,빙의퇴마(직접상담)
묘불사 주지 직강
051)557-5075
010-2507-1042

마음이 가는대로
따라가지 마라.
마음을 쫓아가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
-장아함 반니원경-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수강생 모집

사주,궁합,택일, 성명학
사주학 초보에서 실전개업까지
최단기간 비법특강.
자격증 수여. 수강료 저렴.
수시접수
30년 전통 대한역학교육원
02)763-4566

신비의 약불기공 치유법

1. 전수회원 : 불자 남녀 누구나 가능
   - 별도의 수련없이 주1회 4주완성
   - 기에너지 발공 및 시술법
2. 체험회원 : 빙의,암,불면증,중풍,간경화, 악성피부염, 오십견,관절염 등 각종 난치성 질환 및 통증질환에 고통받는 분

웬만한 증상 및 통증은 1회 체험만으로 즉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바람)
부산 금정구 남산동 55-31 한국약불기공연구원
010-4642-9672

求 婚

준비된 서민총각 34 專門
170 健康體
年俸 9천(전문직) 아파트 所有
佛敎信仰 30前後
직업여성 可來身
02)533-0686 父親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보 시

청동아미타불상(3자×개금)
후불탱화(고려화, 4*8자)
신중탱화(고려화, 4*6자)
전통사찰에 모실분께
보시하겠습니다
043)881-4916

49재 천도재 전문

사찰행사, 각종불공, 산신재
점안,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구병시식,
산사음악회
010-8676-6132

영적 기공치유

각종 난치성,상기증,우울증, 중풍, 파킨슨씨 불변증
의료기공 3주완성
기공사로부터 치유기공을 전수 받으면 누구나 치유사가 될수 있다
부산 안락동 태백정사
051)722-6426
011-9785-6426

상 담 안 내

여러분의 영적세계는 편안하십니까?
신통력으로 운명 예견
고민해결
전화상담 가능
대구은행 : 087-13-035968
010-2125-4684
(사주팔자)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청담, 경봉 큰스님 묵적 구입하실 분

010-9878-1282

자격증 취득안내

포교사,법사,종사,대종사, 대사
불교문화신문 참조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 법광
010-3368-6075

기도에 이런 일이

- 이 돌맹이(영통석)로 만든 단주나 구각봉을 손에 쥐고 간절히 기도를 하면 전생의 업이 소멸되고 소원이 이루어 집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비구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문경)
010-8819-898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송파구)
010-6348-2572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 임)
법인 불교단체양도
법인 종단 양도
011-412-8040 법광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대, 숙식제공
(제주 서귀포 구룡사)
064)762-632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안양, 보시금은 상담 후
상여금, 퇴직금, 개인방사 지급
031)471-5978

불교전통의식 무료수강

- 선착순 모집 :
  1. 비구스님 5명,
  2. 비구니스님 5명
  3. 출가행자 3명 모집

모든 재의식 집전하여 드립니다
화엄선원 주지스님
055)323-3569

통증제거 기술교육

몸이 불편하신 스님들이나,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신 스님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이 기술은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인데 배워서 방편으로 활용하신다면 사찰 운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개 강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5시
- 교육기간 : 2주
- 수 강 료 : 약간 (사찰에서 숙식을 하실 분은 숙식비 있음)
- 또한 일반 보살님, 법사님, 처사님들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상담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사찰에서 본인을 초청하여 주신다면 어디든 찾아가서 실기 및 교육도 하여 드리겠습니다.
원공 선사 019-305-9138 / 사무실 팔보사 051-466-0450. 070-8811-0450

귀 신 학 교

귀신을 스님들과 같은 강원교육으로 왕생극락을 시킵니다.
어떠한 천도재 보다 훌륭한 천도의 방법입니다.
1년 교육과정이며 매월 초하루 보름 천도재를 지냅니다.
경남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444번지 자비선원 (구, 백운암)
전화 055)391-3014(원장실) 3004.3024(종무소) 3016(팩스)

도심산사에 거처 필요하신 스님이나 기도하며 사실 보살님 연락 바랍니다.

011-9707-3490

60대 초반 비구승입니다.

운영이 어려운 사찰이나
포교원 무보시로 기도정진,
작은원력 세우겠습니다.
010-3131-1094

포교원 인테리어 전문

간판. 썬팅
010-8678-4945

천도재 빙의퇴마

수시 접수 중
태중영가천도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험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선덕사
010-5685-2229
전화주시면 즉시상담

빙의·귀신 퇴마법 전수

스님이 배우실분 특별우대 (100만원)

- 신병, 무병, 업병으로 인한 정신질환 우울증.
- 구병시식, 영가천도, 49재 영가장애 고통에 시달리는 분.
- 거듭실패로 되는 일이 없는 분, 불면증, 악몽, 이명, 가위눌림.
- 영가장애로 인한 고통 30년 빙의퇴치.

(www.jijangsw.com)



30년 빙의치료 대가

스님 되실분 (나이불문)
절에서 평생사실 분 / 장기요양
사찰등록 (토굴, 포교당, 작은암자도 환영, 분담금 없음)

(사)세계불교지정선원종 본찰 부처골 지장선원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 전화 054)383-8553 / 011-9585-4908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가 '사람불사', '인간불교'를 선언했습니다

- 참좋은요양병원(영천)
- 참좋은이서중·고등학교(청도)

납골당과 행자원을 갖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 053)474-8228

납골당과 행자원을 갖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佛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사찰순례,산사음악회)등 의 영상사업전반 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190,000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290,000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120,000
■ 능엄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15,000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02)2236-7209,010-8519-9279 〈법보시 상담환영〉

영남 범음 범패

49재,예수재, 천도재등
불공해 드립니다
011-9370-4043

빙의대화 퇴마

다양한 방법의 퇴마비법 전수
사주로 귀신 찾는 법
귀신병, 신병, 대화 및 치료법
전생을 통한 치료 및 빙의 찾는 법
인연되시는 몇분만
저렴한 보시금으로 모십니다
* 귀신병, 신병 치유도 해드립니다
010-5472-5928
031)666-7732 경담 합장

www.kyksb.co.kr

승복·전통복식 31년

김윤경승복·우리 옷

- 31년을 한결같이 전통복식 연구·보급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공장직영,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주요 품목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고급 모직 장삼 195,000원 한정판매
-고급면(신제품) 적삼 150,000원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02-495-7779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903호
서 울 점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31 02-2265-2278
제 주 점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416-2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예금주 : 김윤경)

천부경 6의 비밀-운명과학으로 풀어내는〈新학문〉

신비의 예지법 강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동시개강)

스님, 종교인 특별반 운영 (10주 완성)
* 무한리필교육 - 완벽상담시까지

○운명, 운세, 인연법을 동시에 해결, 기존상담 모든 분야
○평생운, 해운(단기운), 년운(일년신수), 월운 까지
○택일 - 결혼, 이사, 행사, 제왕절개 수술일자, 묘이장
○궁합 - 운세궁합, 인연궁합, 운명궁합도 함께 풀이
○진로상담 - 공부, 학업, 전공, 대학, 직장, 취업상담법
○장사 & 사업 - 장소, 인연, 업종, 개업시기, 장사운
○체질 & 건강 - 5기체질론에 의한 발병원인, 식이요법까지
○개운상담법 - 어려움을 해결하여, 신비의 개운법
○개운기도법 - 개운의 비법, 개운행사법, 특수수련법 등

〈특수 교육강좌〉
◈천부경 성명학 & 작명법(10주)
◈천부경 타로카드 상담법(3주)
◈천부경 운세감정법(10주)
◈천부경 숫자풀이법 인연법(10주)
◈천부경 진로상담법(장사/사업)

타로카드 강좌 〈DVD 발매〉
- 30만원 (2장/set) (타로카드 포함)
- 천부경 운명과학회 하나은행 〈629-910035-12505〉
- 각교육원, 카페신청

▣ 서울 • 부산교육원 (010)-9171-3001
▣ 대 전 교 육 원 (010)-6476-1021
▣ 대 구 교 육 원 (010)-6251-5776

천부경 6의 비밀 - ttp://cafe.daum.net/cheonbu6

대 출 안 내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사찰화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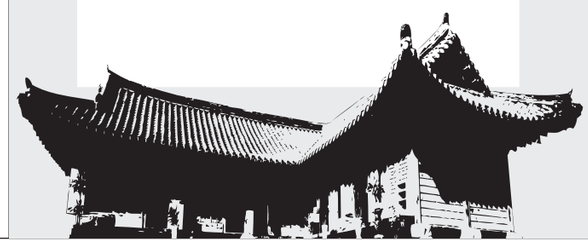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불자정보 26 | 865호 | 전면광고

2011년 12월 7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법당 : 3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2500평
- 가액 : 15억

- 위치 : 서울
- 법당 : 40평
- 요사 : 120평
- 부지 : 62평
- 가액 : 17억

- 위치 : 경기
- 법당 : 3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2500평
- 가액 : 12억
- 바다가 보이는 경관 좋은곳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도심속의 사찰

- 총부지: 188평
- 법당 및 요사 : 70평
- 부산국제시장 근처, 시내 깔끔한 법당
- 토지 공시지가 : 4억 7천만원
- 총가액: 4억 6천만원

토굴터(밀양 무안)

- 부지: 343평
- 건물: 조립식 10평
- 남향, 뒷산세 최고(소나무 다수)
- 총가액: 6800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시 서면 서상리
- 대지 700평, 임야 150평
- 2층 기와법당, 29평 • 1층 요사채 25평
- 춘천 IC, 강촌IC에서 10~15분거리
- 명당 사찰
- 가액: 8억 2천만원 일시불

033)243-5003 / 010-9006-5619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경북 문경 산북면 사무소 10분거리
- 임야 : 8만 4천평
- 용도 : 大 사찰및 복지시설
- 차도와 붙어있음
- 평당 : 9천원

010-2563-1398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안양호계동 경수산업도로 대로변 재래시장입구
- 평당 : 24평, 5층 건물 3층
- 구조: 삼존불, 후불, 지장, 신중, 칠성, 용왕, 산신탱화, LED영가단(540), 인등(170), LED 연등 (300)
- 방2개, 주방, CCTV4대 설치
- 보증금 1300만원에 월 4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010-8369-3569

주 택 안 내

경북 영양
싼 주택
과수원, 주택지
별장지

010-8899-8899
(대사찰 주인직)

도심속의 생활사찰안내

- 위치 :부산 연산동
- 대지 160평(정원수 멋짐)
- 1층 법당 (건)40평
- 2층 요사채(건)40평
- 3층 휴게실(건)20평
- 양도 금액은 땅값만 지불하시고 건물은 보시합니다(건물주인직접)

011-800-0005

도심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 평수 : 약 60 평
- 2층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원

010-8651-9678

사 찰 안 내

- 안산시 신고잔동 전철역 5분거리
- 부지: 5층건물 중 5층 총 140평 실평수 75평
- 마당 50평 실내 화장실 2개, 방4개 거실
- 법당 별도 20평 법회즉시 가능
- 복도 화장실 남, 여 엘리베이터
- 사정상 급 양도
- 가액: 3억 3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상담후 결정

010-9767-4119

요양시설, 전원주택 절, 전통식품공장터

- 위치 : 경남 합천군(대구에서 40분거리)
- 총평수 3,579평(계획관리지역)
  합천호인접 계곡경관이 아주수려한 지역
- 경내자연동굴(총폭2미터,길이 300미터)
- 동력전기있고 진입로 폭4미터 포장되어있음
- 요양시설,펜션,전통식품공장,절,건축허가가능
- 가액은 2억5천만원(답사후 절충조정가능)

011-848-245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오창에서 13분거리, 진천에서 15분거리, 병천에서 15분거리(아우내장터)
- 부지 2000여평
- 법당: 목조 30평, 관음전 25평
- 요사채 2층 건물
- 1층 건물 3동 (방 많고 큰절)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2억(절충가능)
- 꼭 사실분만 전화주세요

011-412-2464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시설완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 가액: 4억 3천만원 (대출 2억 됩니다)

017-787-6666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시에서 10분거리
- 평수 : 535평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 주차장 30대 주차가능
- 가액: 6억 5천만원

010-9889-3188

사찰(급)안내

- 위치: 울산시 북구 호계동
- 총면적 약 500평
- 법당, 산신, 용왕, 요사 각 1동씩
- 주차장 완비
- 가액: 3억 조절가능
- 스님 건강상 급 양동

011-874-159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 대지 90평
- 외부 :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 1억 5천만원

010-4085-1119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시 지정면
- 간현유원지부근
- 사찰 3천평
- 가액: 4억 5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9767-4119

포교원 안 내

- 위치 : 경북 문경 시내요지
- 평수 50평, 3층건물 3층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모든시설 A급
- 시설시 1천만원

010-5258-1147

사찰(암자)안내

- 풍수적, 지리적 환경 매우 양호
- 진입로 포장완료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황토방 등 , 기도환경 완벽
- 청정지역임 (지리산 천왕봉 바로보임)
- 양도가액: 2억 5천만원
- 위치 : 경남 함양

010-4569-2710

절 터 안 내

- 위치 : 구례 문수골
- 관리지역 400평
- 정남향
- 가액 4500만원

011-9393-4965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내동초등학교 앞
- 1층 38평, 2층 38평
- 법당 내부 홍송으로 처리 A급 시설
- 옥상38평, 대지67평
- 가액 2억 5천만원

010-3569-3021
010-2659-5830

포교원 안 내

- 위치 : 울산
- 실평수 50평
- 가액: 6천만원
- 시설비 포함

016-614-8730

영천 토굴터

- 위치 : 영천시 고경면 시내에서 10분 이내 2차선에서 100M 이내
- 남향이며 마을 끝, 산자락에 붙어 있어 조용하고 양명한곳
- 기와집 1동, 황토집 1동, 대지 500평
- 가액: 8천만원

011-505-6505

사 찰 안 내

물좋고 공기 좋은 강원도 사찰

- 평수 1천평, 대지 70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60평
- 스님 기거하는 1,2층 60평
- 산신각 2평 반
- 가액: 5억 5천만원

010-9416-7743

포교원 안 내

- 위치 : 대구 북구 읍내동 2층 50평
- 최고시설
- 법당1, 방3, 공양간 1, 창고방1, 화장실1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9199-7897

포교원.선원 안내

- 위치: 대전 시내 요지
- 대전역 중구청 사이
- 건물 3층
- 법당1, 방2, 부엌 넓은 홀
- 실내화장실 2, 다락방1
- 깔끔, 약 50평
- 삼불, 집기 살림 可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1200만원(조절가)

010-2460-6906
016-606-5658

포교원안내

- 위치 : 청주시내
- 평수 : 5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협의 후 결정
- 시설 최신식, 깨끗

010-5438-0138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상구
- 30년된 도심 산속의 작은기도도량 (국유지)
- 법당, 삼성각, 용왕당, 공양간
- 가액: 8천 5백만원(조절가능)

010-5015-8511

사 찰 안 내

- 위치: 청주시에서 20분거리 충북 청원군 낭성면
- 대지 709평
- 건평 115평 중 동수가 7동
- 산신당 터 있음
- 주차장 완비
- 가액: 6억 6천만원

010-6230-2277

사찰(급)안내

- 대구 팔공산 큰방위 절 임대
- 법당 30평 요사채 20평
- 법당2, 화장실2, 주차장완비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이천만원 월 육십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 부동산 사절

011-322-0009

암 자 안 내

- 위치 : 황령산 문만골
- 아늑한 집
- 대지: 30평
- 방3개, 화장실1
- 토굴 암자 적합
- 가액: 3400만원

010-3768-738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방주 빌딩 2층
- 법당 :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 방3개, 주방, 해우소1개
- 평수 : 45평
- 보증금 2천만원, 월11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현재 법회중

010-5362-3370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수정구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 주방가구 일체
- 샤워시설 완비
- 전체 25평, 방2, 주방1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천 5백만원

010-2208-7749

포교원안내

- 위치 : 동대문구 장안동
- 시설일체 완비
- 즉시 법회 가능
- 2층건물의 2층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70만원
- 시설비 2천 5백만원

02-2247-2354
010-2081-2354

포교원안내

- 위치 : 안양시 종합운동장앞
- 평수 50평
- 4층건물에 4층
- 보증금 1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200만원
- 스님 병환으로 급 양도

010-9108-5484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 서구
- 전체 45평
- 법당 25평
- 시설일체 완벽
- 즉시법회가능
- 가액: 7천 7백만원

010-9998-2926

사 찰 안 내

- 강원 평창 속사 이승복 기념관 앞 속사IC에서 7분거리
- 산세수려하고 항상 물이 흐르는 조용한 사찰
- 대지 86평, 건평 55평,
- 하천부지 국유지 약 400평 사용
- 차후분할가능, 은행융자 6천만원
- 가액: 1억 5천만원(신축 2년 3개월 됨)

010-4028-3622

포교원안내

- 부산 해운대 달맞이길 포교원
- 바닷가 전망최고
- 6층법당 약 6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 깨끗함
- 비인수시 시설비 없음
- 일부 시설은 두고감

017-588-0235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 제물포
- 4층 33평
- 보증금 3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500만원

070-8910-5161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 임야 전답 총 15000평
- 법당 25평
- 요사채 10평
- 가액 1억 9천만원

010-9967-9832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1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70평
- 가액 : 18억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35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5평
- 가액 : 2억5천

※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453 소답시장
- 평수 : 52평
- 법당, 상담실, 공양간, 산신당
- 보증금 : 1천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약간

010-8602-3990
010-8211-8590

사 찰 안 내

- 지리산 천왕봉 아래 위치 최고
- 계곡 있고 대웅전 27평, 요사채 55평
- 법륜전 70평, 토굴
- 아주 완벽한 사찰 옆으로 등산로 끝까지
- 도로 멋지게 놔있음
- 현공풍수학적으로 왕향왕산임(최고좌향)
- 가액 : 7억 9천(절충가능)

010-9335-8487

포교원 안내

- 대구 남구 봉덕1동 봉덕시장 내
- 2층, 3층 각70평씩. 합 140평
  2층 : 공양실, 휴게실, 찜질방, 강의실, 화장실
  3층 : 법당, 삼존동불, 종무실, 주지방1, 부전방1, 보살방1
- 시설최상, 단청되어 있음, 소불168불
- 보증금 1천5백만원, 월100만원 합5,000만원

010-2878-338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지하철 10분 이내 거리
- 1층 요사채(화장실 2개, 방4개, 거실), 2층 법당
- 신축개조, 외부단청, 법당 내부 단청
- 삼존불 은행목불, 원목불단, 108소불 있음
- 1층 약사불, 포대화상
- 2층 산신, 용왕, 독성 별도
- 부산시내에서 가장 경치 좋은 절, 옆에 산세도 좋음
- 스님 건강 관계로 11억 (조금 절충)

010-2503-0776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진천읍 (변두리 야산 도심포교복지사업적)
- 법당 30평, 요사2층 80평 스님방별채
- 산신각(가건물 불사중, 국유지 400평 사용)
- 가액: 8억 5천만원(융자4억)
- 반액구입시 창건주지분(융자책임경영불참)
- 1차 2억, 2차 2억 5천 (4년분할)

010-3221-083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 평 수 : 약 30평, 2층
- 보증금 : 천만원, 월세130

010-3198-760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부원동
- 아파트 진입로 관공서 주택지역에 유동인구 많은 상가 건물
- 53평, 4층 건물 3층 전체
- 법당, 아미타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주방, 큰방3, 넓은 대기실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보증금 시설비 보시고 합의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323-008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수영동
- 평수 3층건물 중 2층 3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 위치는 공원 앞 명당 상태 양호

010-3572-8426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봉덕동
- 목조한옥독채, 마당 포함60평
- 인법당 (청동삼존불)
- 방3, 범종, 엠프시설완비 마당엔 산신각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4천4백만원 (절충가능)

010-4056-5687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언양읍 남부리 소재
- 평수 : 독채 75평 중 , 1층요사채 2층 법당 • 건평 45평
- 구조 : 삼존불외 산신 및 각종 신불일체
- 1층 방 3개주방 욕실 화장실 사내화장실 별도, 소각장 창고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4576-2281
052)291-3379

진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위로부터 자신을 지킬줄 알아야 한다. - 잡아함경 -

지혜는 스스로 구하는 것이지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수리아의 검-V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모든 것을 기억하는 노인 (6)



삽화 · 김홍인

남자는 계속해서 무니 쪽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무니는 그 시선을 피해 뒷걸음질 치다 그만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저 사람, 지금 나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무니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노인을 향해 말했다. 시선은 여전히 남자를 향한 채였다. 무니의 질문에 노인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이곳은 기억 속이잖니? 왜곡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바뀌지는 않아. 너는 그저 그 기억 속 장면을 바라보는 존재일 뿐, 저 자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단다. 보일 수도 없고, 보여서도 안 되지."

"그럼 뭘 저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건데?"

땅바닥에서 일어난 무니는 엉덩이를 툭툭 털어내며 물었다.

"글쎄다. 무엇일까?"

노인은 남자의 시선이 향한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니의 눈도 노인을 따라 움직였다.

"하늘, 구름 그리고 태양이네."

무니는 구름에 가려졌던 태양이 눈부신 모습을 드러내자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노인은 아무 말이 없었다.

"지금 저 사람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무니는 다시 뒤돌아보았다. 남자는 이미 등을 돌린 다음이었다. 바위 위에 걸터앉아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모양새였다. 무니는 노인을 흘깃 한 번 쳐다보고는 다시 남자를 향해 살금살금 걸어갔다.

"뭘 하고 있는 거지?"

뒷모습만으로도 남자가 무척 집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노인의 말처럼, 무니의 존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열심히 뭔가를 쓰기만 하고 있었다. 점차 가까워질수록, 그의 앙상한 어깨뼈가 꿈틀거리는 게 보였다. 처음 볼 때부터 느꼈던 것이지만, 남자의 몸은 지나치게 마른 편이었다. 게다가 아무렇게나 잘라버린 머리카락은 제멋대로 자라 산발인 상태였다. 남자의 곁에 선 무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옆에 조심스럽게 걸터앉았다. 그때 노인의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려왔다.

"저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게 뭔 줄 아니?"

깜짝 놀라 바위 위에서 떨어질 뻔한 무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뭐야! 놀랐잖아."

노인은 어느새 그의 바로 옆에 와 있었다.

"쓰고 있는 게 뭔데?"

"네가 예전에 봤다던 책이란다. 내가 등장했다던 바로 그 책 말이야."

노인의 말에 무니는 남자가 쓰고 있던 책을 들여다봤다. 가는 붓으로 정성들여 한 자, 한 자 쓰고 있는 단어들은 모두 고대어였다. 분명 그때 난다가 읽었던 책도 고대어로 쓰인 것이었다.

"네 눈엔 이 자가 어떻게 보이느냐? 지혜를 얻은 것 같니?"

무니는 글을 쓰는 일에만 몰두해 있는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저었다.

"이게 이 사람의 마지막 모습인 거야?"

"그래. 유감스럽게도 그렇단다. 책을 완성하자마자, 오랜 피로와 굶주림으로 죽어 버리고 말았지. 이제 마지막 날도 몇 시간 남지 않았구나."

"왜 이렇게 된 거지, 이 사람은? 그토록 얻고 싶다고 했던 지혜도 얻지 못하고 굶어 죽고 말다니. 온 일생을 통틀어 남긴 게 고작 책 한 권뿐이라는 소리잖아. 도대체 왜지?"

"방금 네가 그 답을 말하지 않았니?"

"내가 뭐라고 말했는데? 책 한 권을 남겼다는 말?"

무니는 고개를 갸웃했다. 노인은 그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평소라면 벌컥 화를 냈을 법한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무니는 고분고분 그 손길을 받아들였다.

"아니, 그토록 가지고 싶은 지혜를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에서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말이다."

무니는 이제까지 미소 말고는 별 다른 감정을 내보이지 않던 노인의 눈빛에 안타까움이 비치는 걸 보았다.

"저 자와 내가 대화를 나눴던 바로 그날, 그는 최초이자 최후의 질문을 던졌고, 평생 내가 건네준 답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살았던 게야. 분명 그를 향한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었음에도 그랬지. 다른 모든 말들은 진실로 받아들였으면서도, 지혜는 스스로 구하는 것이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새겨듣지 않았어. 안타깝게도 말이야."

무니는 남자의 초라한 어깨를 바라보았다. 노인의 말처럼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엄청나. 평생을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잖아. 나 저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봐 주고 싶어. 가능할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그들은 남자의 맞은 편 바위 위에 걸터앉아 조용히 그가 책을 완성하기를 기다렸다. 기억 속이긴 했지만 시간을 건너뛰지 않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던 것이다. 시간은 딱 그 만큼의 속도로 흘러갔다. 저 멀리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어둠은 숲속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무니는 이렇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신기했다.

이윽고 남자가 책장을 덮었다. 무니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꼭 쥐었다. '이제 곧 저 사람은 죽는다.'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된 이후로, 무니는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죽음을 외면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지내왔다. 죽음은 슬픔과 곧바로 연결되는 사건이었고, 그 슬픔의 무게가 무니의 마음을 아직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죽음을 목격한다는 사실에 긴장이 되긴 했지만, 슬프지는 않았던 것이다. 물론 그가 지금 처음 보게 된 사람이어서는 아니었다.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일까?' 무니는 꼭 쥔 주먹에서 힘을 스르르 뺐다. 책을 덮은 남자는 여전히 바위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이미 죽었단다."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깜짝 놀란 무니는 바위에서 내려와 남자를 향해 뛰어갔다. 그는 정말 눈을 감은 채 약간의 미동도 없이 앉아있었다. 그때 아직 남은 빛을 끄고, 어둠을 불러오는 바람이 약하게 불어왔다. 남자의 몸은 그 바람의 힘에 밀려 그대로 바위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 사람 정말 죽었어."

무니는 간신히 입을 열고 말했다.

"그런데 미소를 짓고 있어."

무니는 역시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을 향해 말했다.

"어째서 미소를 지은 채 죽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마지막을 맞았는데 말이야. 책을 완성했기 때문에?"

무니는 죽은 남자의 옆에 놓인 책을 집어 들었다.

"이 지경이 되면서까지 책을 쓴 이유가 뭘까?"

"알고 있었던 게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말이야. 이 자는 지혜를 얻기 위해 정말 많은 일들을 했단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온갖 책을 구하고, 이렇게 숲속에 홀로 지내는 고행을 자처했지. 책 속에는 지혜로 향하는 길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그 수많은 책을 다 읽고 난 후에야 알게 되었단다. 어떤 책에도 질문만 있을 뿐, 답은 없다는 것을 말이야. 결국 스스로 깨달은 바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 선택을 해야 했어. 남은 생을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살아가느냐, 자신의 살았던 흔적이라도 남겨두느냐. 그리고 이렇게 책을 남긴 거란다. 그러니 결국 이 자가 후세 사람들에게 남겨두고 싶었던 것도 질문일게다. 자신이 답을 구하지 못한 바로 그 질문이겠지."

노인의 말을 듣긴 들었지만, 무니는 여전히 남자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아무튼 어쩌면 사람들은 이 자에게 감사해야할지도 모르겠구나. 이 세상의 시작과 끝, 그 영원한 순환에 대해서 기록한 최초의 인간이니까 말이야."

노인은 다시 무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무니는 남자가 쓴 책을 펼쳤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상해. 이 글자들, 모두 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

무니가 나지막하게 탄성을 지르며 말했다. 분명 자신이 잘 읽지 못하는 고대어였다. 무니는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이 당신의 기억 속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노인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어보였다. 고개를 갸웃하던 무니는 맨 첫 장을 펼쳐 소리 내 읽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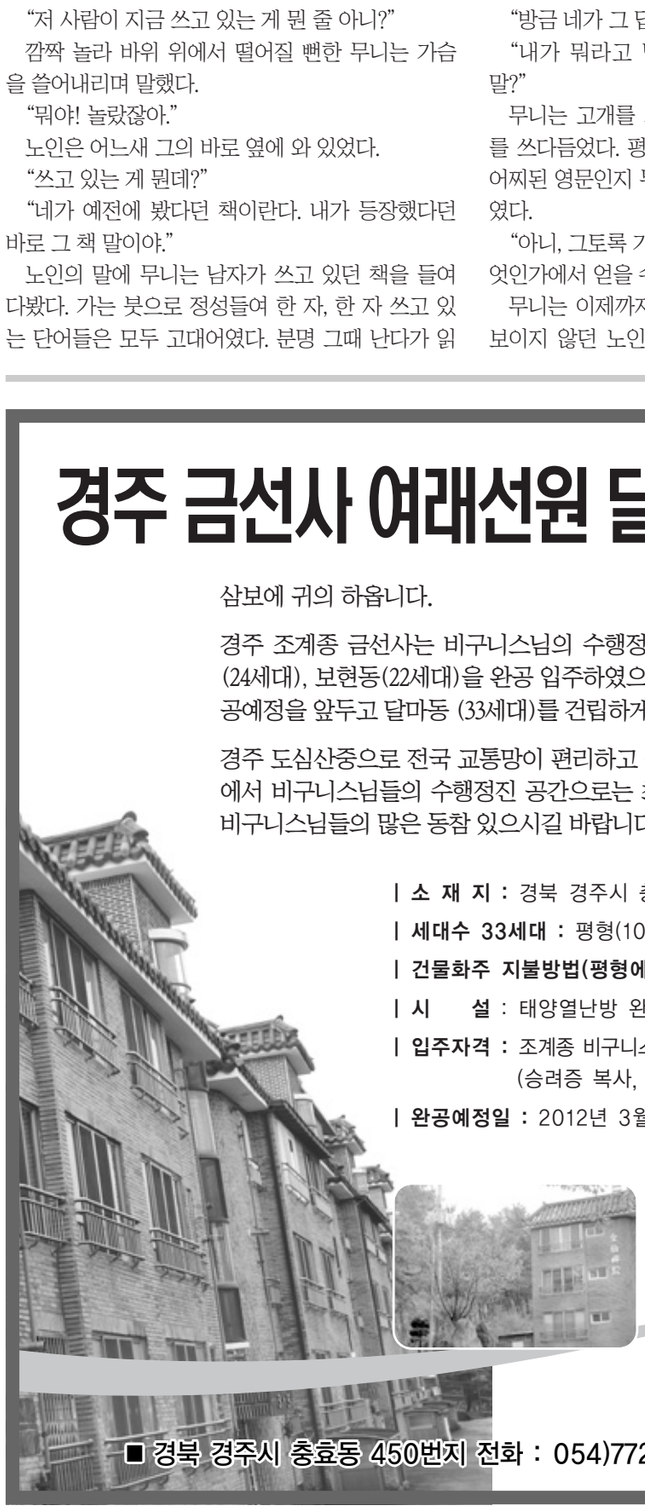
" '한 세계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신들도 마찬가지다. 어떤 학자들의 경우는 심지어 신들이 인간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약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틀린 이야기라고만은 할 수 없다. 남과 북, 동과 서, 각각에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을 받드는 지역과 풍토에 따라 다른 이름이 부여되었을 뿐 실제로 각각의 이름에 해당하는 신들이 모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만큼 인간에 의해 어떤 이름으로 불려 지느냐, 하는 것이 신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신들의 이름, 형태, 그들의 역할에서부터 인간과의 관계까지, 비록 지역에 따라 이름과 형태의 변화가 조금씩 있다고 하더라도 '저 세계'의 것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초의 바람, 사트바 카르만이 어디로 어떻게 불어 흘러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까닭이다' 우와. 여기에도 사트바 카르만이란 말이 나오잖아!"

경주 금선사 여래선원 달마동 특별 분양안내

삼보에 귀의 하옵니다.

경주 조계종 금선사는 비구니스님의 수행정진 공간으로 금선선원(30세대), 여래선원 문수동(24세대), 보현동(22세대)을 완공 입주하였으며, 이제 마지막 회향하는 마음으로 2012년 3월 완공예정을 앞두고 달마동 (33세대)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경주 도심산중으로 전국 교통망이 편리하고 주변엔 홍송이 둘러싸여 있어 산세가 수려한 경관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정진 공간으로는 최적지로 여겨지고 있어, 이곳에서 평생 함께하실 비구니스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4(임야번지 산 193-1)
- 세대수 33세대 : 평형(10,12,13,21,23평)
- 건물화주 지불방법(평형에 따라 다름) : 총액,계약금,중도금,잔금 원
- 시 설 : 태양열난방 완비
- 입주자격 : 조계종 비구니스님으로써 승가에 결격사유가 없이 심신이 건강한 승려, (승려증 복사, 주민등록등본 1통)는 제출 바랍니다.
- 완공예정일 : 2012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주지 휴정 합장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전화 : 054)772-7171 ■ 휴대폰 : 010-3538-3879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나무 그늘에서 이를 털어내다

수하탄슬도(樹下撣蝨圖)

관아재 조영우(觀我齋 趙榮祐)는 현재 심사정(玄齋 沈師正), 겸재 정선(謙齋 鄭敾)과 함께 삼원삼재(三園三齋) 중 한 분으로 자(字)는 종보(宗甫)이고, 호(號)가 관아재(觀我齋)이다. 뛰어난 화재(畵材)를 지녔으나, 생전에 세조와 숙종의 초상을 그리라는 영조의 명을 "화원들과 무릎을 꿇고 앉아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대쪽처럼 거절해서 곤경을 겪은 인물이다.

그가 그린 도석화(道釋畵) 중에 가장 그 묘(妙)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수하탄슬도'이다. 이 그림은 세간에서는 그냥 '이 잡는 노승'이란 한글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수 년 전 학고재에서 전시하면서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흥준 거사가 노승문슬(老僧)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을 보았다. '문(捫)자'는 '비틀어 죽인다'는 의미가 있기에 올바른 의미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 '털어버릴 탄(撣)자'와 '이 슬(蝨)자'를 넣어, "나무 밑 그늘에서 이를 털어버리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다시 지었다.

누가 이 그림을 봐도 그림 속엔 그윽하면서도 자비로운 미소를 얼굴표정에 머금은 나이 지긋한 스님이 나무 그늘 밑, 땅위로 드러난 뿌리에 앉아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 엄지가 아닌, 검지와 중지로 조심스럽게 옷깃을 열어 털어내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옛 경전에 "겨울에 이가 생기거든 대통(竹)에 넣어, 솜으로 덮고 먹을 것을 주라"고 했다. 비록 나를 괴롭히는 생물이지만 겨울에 내다 버리면 얼어 죽을까 염려해서 이다. 이를 담는 이 통을 슬통이라고도 하고, 은어(隱語)로는 반풍(半風)이라고도 한다. 모두 이와 관련된 한자이다. 대나무통 속에 넣어 기르다가 봄이 되면, 풀 위에 놓아 준다. 따스한 계절에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스님들은 하루에 한 두 번씩 대통을 열어 몸 위에 놓아 피를 빨아 살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는 일생을 숙주(宿主) 몸에서 지낸다. 사람의 몸에 사는 이는 옷가지 속에 살기도 하고, 새 코끼리 멧돼지 등에 기생하면서 깃털 피부 피를 먹고 산다. 이는 대개 포유류를 매개로 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고전(古篆)을 바탕으로 독창(獨創)적인 전서(篆書)가 동방제일(東方第一)이라는 평을 받는 미수(眉叟) 허목(許穆)에 대한 야담(野談)이 전해지는 것을 읽은 적이 있다. 미수는 퇴계 이황의 성리학을 이은 분이나 아버지 허교(許喬)는 화담 서경덕의 제자인 박지화의 문인이어서 도학(道學)을 공부하였고, 사찰에 거주하며, 학문을 연마하였다는 기록을 보면, 불교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미수는 조선왕조 기간 과거를 거치지 않고 정승(우의정)에 오른 몇 안되는 인물인데, 이 이야기는 그가 관직에 있었을 당시의 이야기다. 그에게는 나이 어리고, 어여쁜 소실(小室)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재색을 겸비하고 있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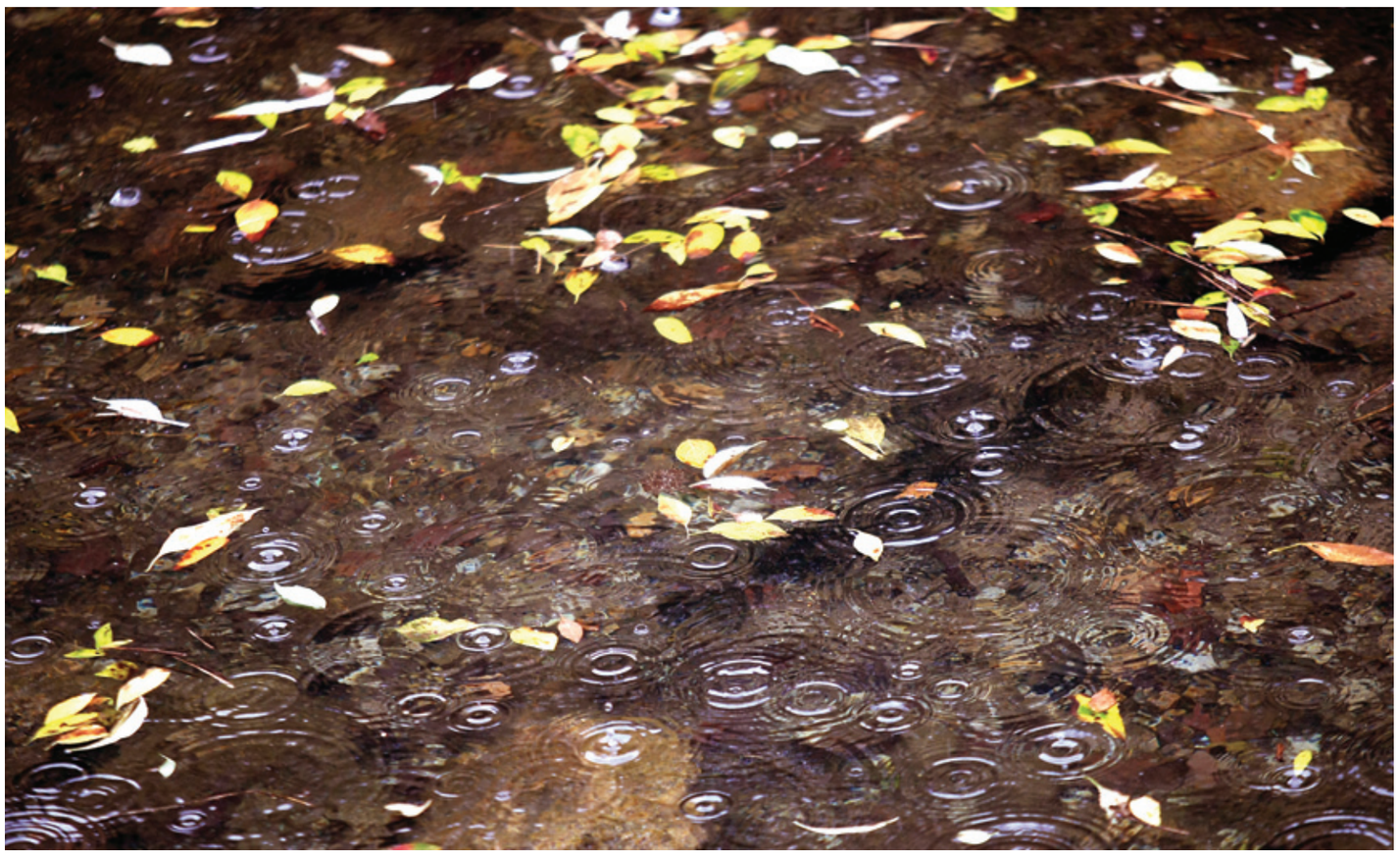

조영석의 '이 잡는 노승'

'이 잡는 노승'이라 알려진 수하탄슬도 옛 스님들 대통에 이를 넣고 먹이주다

어느 날 등청해서 궁궐에 다녀오니 소실이 없어졌다. 소실집에 거하며 일하던 하인들에게 물으니 숯 만드는 사람이 들러 숯을 팔고 간 뒤에 없어졌다고 고한다. 그리하여 각방을 찾아도 찾을 수 없어서, 미수는 궁금한 나머지 왜 높은 관리의 소실로 편히 살던 그녀가 숯장수를 따라 갔는지 깊은 상념에 빠져 결국은 화두(話頭)처럼 오매불망 그 이유를 잠도 안자고 생각하며, 앞 산 산속을 거닐다가 탁 깨쳐서 순간, 숙명통(宿命通)을 얻어 자신의 전생을 보는데, 자신은 수십 생전에 스님이었는데, 그의 몸속에 살던 이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산속에 떨어졌고, 그 암컷 이는 지나가던 멧돼지에 붙어서 일생을 마쳤는데, 그 이가 바로 자신의 소실이었고, 숯장수는 바로 그 멧돼지였다고 한다. 이걸 보면, 우리 불자(佛子)님들도 한 번은 자신이 이였는지, 멧돼지였는지, 아니면 스님이었는지 생각해 볼만 하지 않을까?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누가 알았을까


〈영암 도갑사〉

아침 출근길이었다. 가로수에서 떨어진 노란 낙엽이 날아와 가슴에 부딪혔다. 낙엽도 나도 몰랐던 일. 누가 알았을까. 그 순간을. 나는 나의 자리에서 밤을 보냈고, 낙엽은 밤새 달그림자를 섰다. 그리고 낙엽 한 잎이 떨어진 아침. 〈반야심경〉도 없고 법당도 없는 그 아침에 나는 낙엽 한 잎에 매달려 출근을 했다.

오랜만이었다. 멀리서 걸려온 도반의 전화에선 겨울비가 내렸다. 도반도 나도 몰랐던 일. 누가 알았을까. 그 순간을. 비는 그렇게 멀리서 내렸고, 도반이 전해준 빗소리는 온종일 가슴을 적셨다. 그리고 젖고 젖은 가슴이 끝내는 말을 했다. 보고 싶다고. 비도 오지 않는 저녁. 나는 먼 빗소리에 젖어 퇴근을 했다. 어디선가 낙엽은 지고, 어디선가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누가 알았을까. 멀리서 낙엽도 비를 맞고 있었다.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무용수연 선사의 '대중에게 보임[示衆]'

달과 바람의 인연

折却德山棒 (절각덕산방)
碎著臨濟喝 (쇄착임제할)
逢人不被瞞 (봉인불피만)
然後對風月 (연후대풍월)
月嫌無好風 (월혐무호풍)
風愛有好月 (풍애유호월)
風月好好處 (풍월호호처)
法喜長自悅 (법희장자열)

덕산의 방망이 꺾어 없애고
임제의 할을 부수어 버려
사람 만남에 속임 당하지 않아야 사
그런 후에야 풍월을 대할 수 있으리
달은 좋은 바람 없음을 싫어하고
바람은 좋은 달 있음을 사랑하네.
풍월이 좋고 좋은 곳에
법의 기쁨 자라나 절로 즐거워지네.

무경자수(無竟子秀; 1664~1737) 스님은 16세에 출가하고 나서 운문사 추계유문(秋溪有文) 대사를 찾아가 10여 년의 정진 끝에 선교를 두루 통했다. 스님의 문집에는 후학을 위한 경책의 시문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이 시 또한 대중에게 법을 가르쳐 보인 시이다.

중국의 덕산 · 임제 스님은 납자를 대할 때 몽둥이질을 하고 고함으로 깨우쳤다. 법은 설명하거나 알음알이로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보인 방편이다. 스님은 대중에게 이 몽둥이질이나 고함소리에 담긴 선법을 타파해 상대방에게 더 이상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자연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했다. 달과 바람은 서로 인연이 도래해 만나는 것뿐이다. 달이 바람을, 바람이 달을 기다린 것도 아니다. 스님은 달과 바람이 짝하는 곳이 법의 희열을 맛보는 경지라 한다. 바로 인연화합으로 생기(生起)하는 도리를 역설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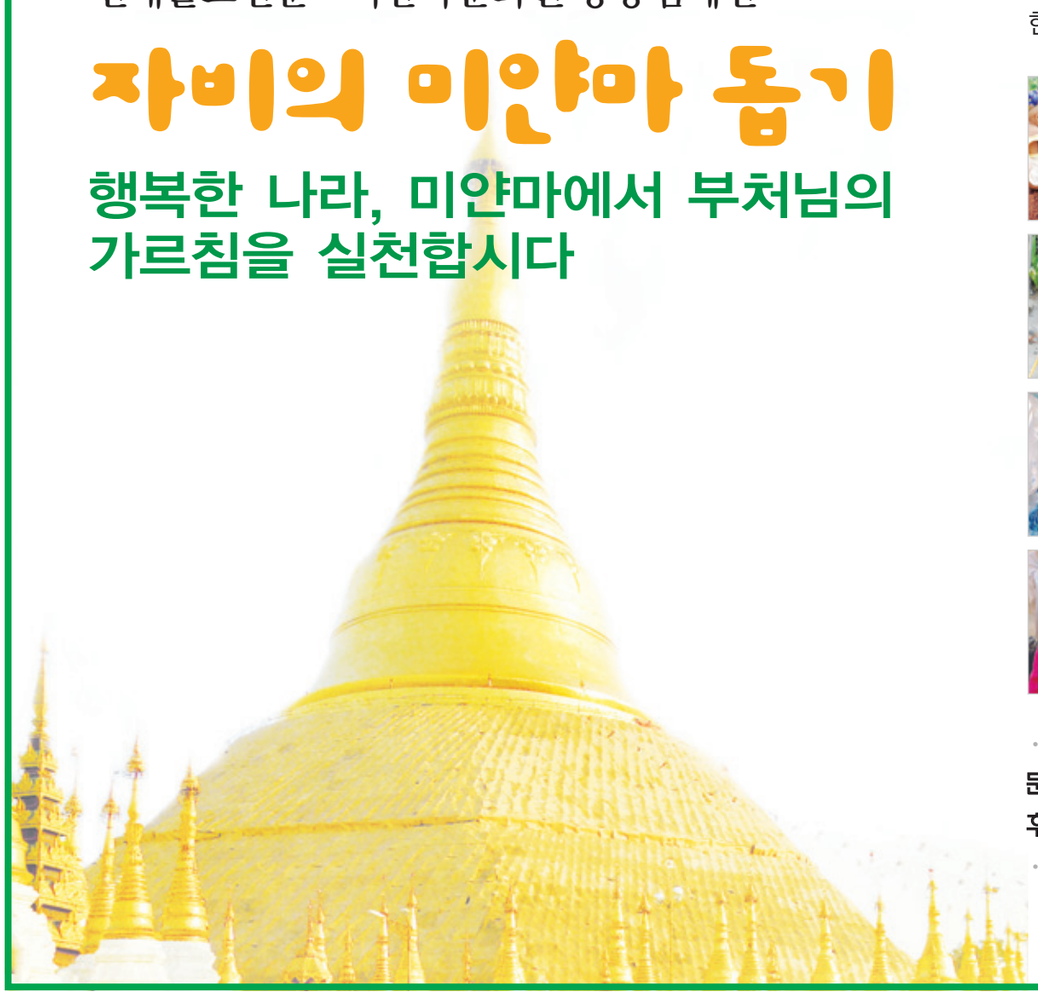
호오(好惡)와 유무(有無)의 분별적 사고 속에서도 법열을 즐길 수 있음을 보인 것은 당대 청원유신(靑原惟信) 선사가 "참선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산을 보면 곧 산이고 물을 보면 곧 물이더라. 선리를 깨닫고 나니 산을 보아도 산이 아니고 물을 보아도 물이 아니더라. 불법의 도리를 철저히 깨닫고 보니 산을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을 보면 물이 물이더라"라고 한 그 경지인 것이다.


원법 스님(운문사 중강 · 조계종 교수아사리)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대행 스님

허공에서 그냥 뛰어다닐 수 있는 길을 닦아보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떠한 연관이 있어서 물에 가면 주해신이 돼 주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산에 가면 주산신이 돼 주고, 또 좋은 데로 못 가면 지장이 돼 주고 명이 짧아서 애를 쓰면 칠성부처가 돼 주고, 아파서 애를 쓰면 약사가 돼 주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고난을 받을 때는 관세음이 돼 주고, 자기 한마음 속에서 다 천차만별로 나가는 겁니다, 갈래갈래. 이거는 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체가 없는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함이 없이 하는 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몰라 가지고는 항상 극복하기 어렵죠. 보이지 않는 걸 무시해선 안 되죠.

오늘 내가 여길 나오는데 우리 스님네들이 그러더라구요. 어떤 사람이 구렁이를 잡아먹었는데 다리가 그냥 금방 흐물흐물하더니 구렁이같이 돼 버려서 영 걸음을 못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 줘야 됩니까? 만약에 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죠. 그건 보이지 않는 데 일이니까요. 내가 보이지 않게 보살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돼야, 또 그만한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체가 없는 마음은 한 사람을 살리려면 저승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구요. 저승이 멀다 하지만 저승도 이 자리 이승도 이 자리, 지옥도 이 자리 천당도 이 자리예요. 근데 그렇게 가까우면서도 아주 멀고 멀어서 그 도리를 모르는 분들은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함이 없이 하는 보살들은, 얼른 쉽게 말해서 그 마음의 화현이란 말입니다.

법당에 가면 부처님 모셔 놨죠. 부처님 모셔 놓고 그 옆에 문수 모셔 놓고 보현 모셔 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부처구요. 생각을 했다 하면 문수고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보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다 한 몸 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했다 하면 법이고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보현이에요.

'이 모두가 고가 아니다. 사람에게 고는 없다.' 하는 것도 그렇고, '이 고난을, 모든 것을 극복한다.' 이러는 것도 모두가 한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도리를 웬만큼만 누가 이렇게 이끌어 주면 자기가 자기 뿌리를 믿어야지 푸르르게 살 수 있다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이 몸뚱이가 소중하죠. 부모에게 받았고 그렇게 아픔을 겪고 나왔고 그런데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한 것을 진짜 소중하게 만들지 않고 이름이나 형상만 우러러보면서 이 근중한 몸뚱이를 그냥 걸레같이 내버리는 격이죠, 모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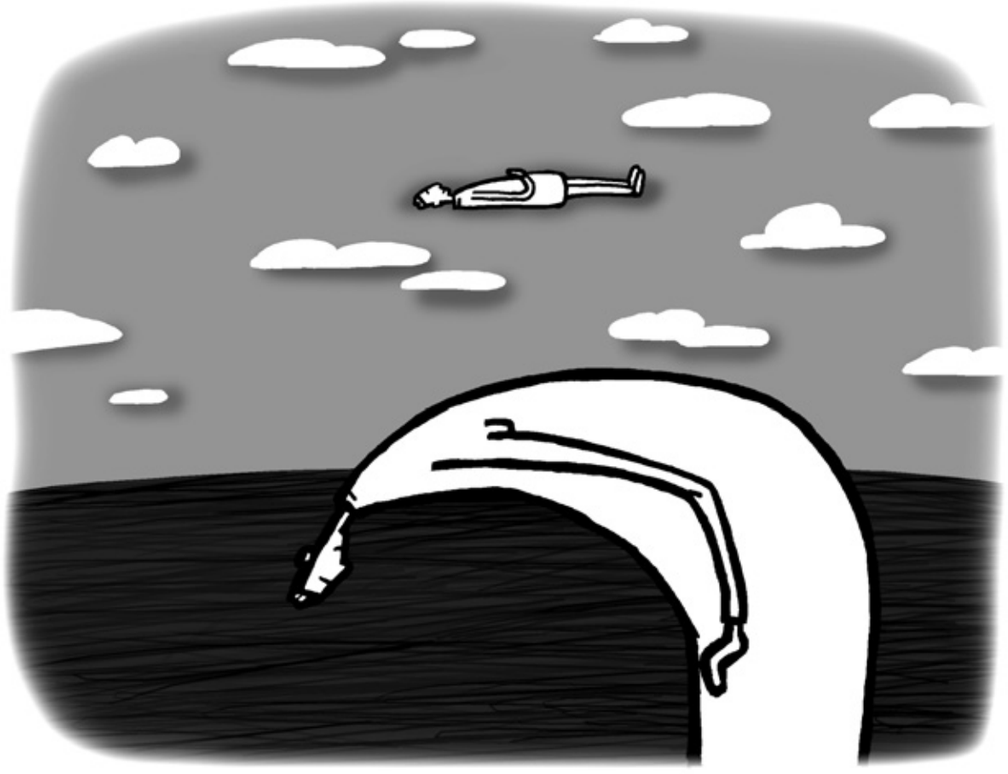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리고 자손들을 기르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님네들은 제사를 지내는 데 우주떡 하나에다가 과일 세 가지를 한 접시에다가 놓고 향, 초, 흰 꽃, 위패하고 천혼문 쓰고 큰 그릇에 청수 한 그릇만 떠 놓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것도 없어도 되는데 방편이란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도 안 해 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왜 꼭 해야만 되느냐. 그건 자손들에게 교훈도 주고 조상의 은혜도 알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그 영혼은 삼혼(三魂)이 항상, 하나는 태어나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돌아다니게끔 돼 있어요. 근데 조상이 몰라요? 보이지만 않을 뿐입니다. 아마 '이 괘씸한 놈!' 그러곤 뒤돌아서서 후적후적 갈 거예요. 절을 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고개를 숙일 줄 모르면 자기를 자기가 승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고개 숙이게 할 줄 알아야만 된다는 얘기죠. 벼이삭도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사람이 권리가 많아질수록 고개는 숙여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야만이 더 지혜롭고 더 풍부해지고 전체 바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수증기로 올라가서 정화돼서 하다못해 요만한 벌레, 요만한 풀 한 포기라도 남김없이 다 먹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청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해도 그렇고 정치를 해도 그렇고 뭐를 해도, 내가 손수 생각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이 꼭 시켜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릇대로니까 어쩔 수 없죠. 그릇대로 거든요. 우리가 다른 건 못 보더라도, 사람의 차원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그릇에 비유해 봅시다. 시장에 가서 그릇 좀 보세요. 그릇이 천차만별로 있죠? 종지에다가 밥 담습디까? 간장밖에 더 담습니까? 접시를 봐도 접시는 접시대로 담을 물건이 있고, 다 그렇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건 '큰 바다가 돼라. 일체를 다 삼키고 토해 내서, 큰 바다에 한 정수의 물로써 요만한 거 하나 버리지 말고 다 먹일 수 있게, 그 작용을 용무로써 해 봐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너는 이름해서 여래인 것이다.' 한 겁니다. 내가 요렇게 생략해서 얘기할게요. 집에 들어가서 애들이 "아빠!" 하고 부르면 아, 금방 아빠가 되죠. 그런데 또 아내가 "여보!" 하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동적으로 남편이 되죠. "얘, 아무개야!" 그러고 안방에서 부를 땐 "예, 어머니." 그러고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거 할 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아들이 됐을 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됐을 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남편이 됐을 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그 자기가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함이 없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지목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하고 지목할 수가 없으니까 부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는 이름 없는 것이 부처다 이거죠. 없는 것이 부처다.

저는 절대로, 실험도 안 해 보고 여러분한테 말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칠 때라야 모두 실천으로 옮기면서 배우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모두 스스로 느껴지는 것이 있거든요. 나는 그저 길만 인도해 주는 것이지 그 길까지 가서 들어가고 나가는 거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 대신 죽어 주고 아파 주고 깨쳐 주고 잠을 자 주고 밥 먹어 주고 똥 싸 주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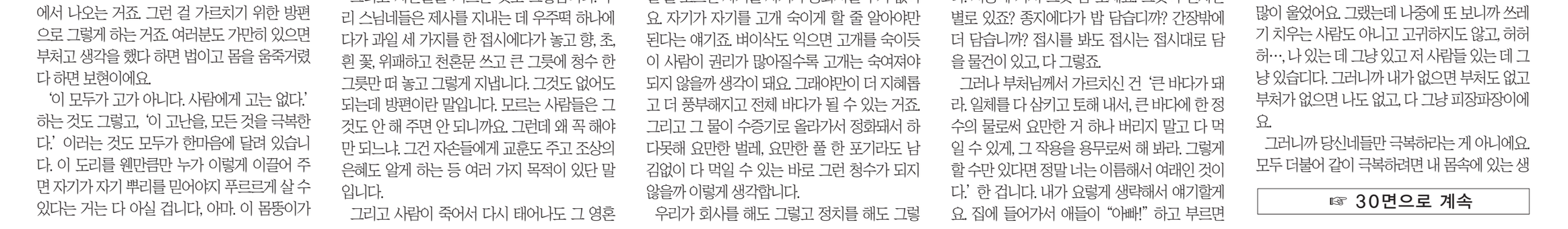
나는 똥 편안하게 누고 밥 편안하게 먹고 잠 편안하게 자면 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똥 못 눠서 편안치 못하면 나 역시 편안치 못하더라구요. 그러니 이거는 피장파장이 돼 버리고 말았죠. 편안한 것도 없고 편안치 않은 것도 없고 그대로 그냥 피장파장이 돼 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부처님이 아주 고귀하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여러분의 밑을 씻어 주는 바로, 뭐라고 이름지어야 될까요? 밑을 씻어 주는,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너무 울었어요. 너무 울었다고요. '당신이 고귀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당신은 쓰레기 치우는 사람밖엔 안 되니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쓰레기 치우는 사람도 아니고 고귀하지도 않고, 허허허…, 나 있는 데 그냥 있고 저 사람들 있는 데 그냥 있습디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부처도 없고 부처가 없으면 나도 없고, 다 그냥 피장파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네들만 극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두 더불어 같이 극복하려면 내 몸속에 있는 생

☞ 30면으로 계속

법당 및 사찰 전각 마루 불사

틀어지거나 파손된 마루바닥을 시공초기의 모습으로 시공 및 복원합니다.
10여년간 각 시도 대형 체육관 및 관공서, 학교, 공연장 등 나무로 되어있는 **마루를 원목 그대로 살려 코팅하는 업체**로서,
이제 佛緣을 입어 스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양 작업 *마루철거 및 하부 보강 *샌딩 마침 *틈 메꾸기 *도정작업 2회 *완료

법당 및 요사채 등 온돌이 필요한 곳에
안전하고 빠른 시공 설치 하여 드립니다

원목 온돌마루 강화마루 필림온돌 전기온돌

밝은세상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474-28 2층 | 전화 02)433-5121 / 011-309-2119

닥쳐오는 대로 근본에다 그냥 내던져서 태워버려야

☞ 29면에서 계속

명들도 다 한데 합쳐야 되기 때문에 불성인 주인공에 '너만이 이 어려움을 면하게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닥치는 것이 한두 가지라야죠. 그러니까 너무 골치 아프게 많으면 그냥 마음으로 딱 둥글려서 하나로 묶어서 거기다 그냥 내던져서 태우세요. 거기다 넣어서 태우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요. 닥쳐오는 대로 말이에요. 그러면 국난 극복도 될 수 있겠고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보이지 않는 데 마음과 마음으로 다 퍼져요. 이건 자동적이에요. 퍼져서 퍼져서 퍼져서 이거는 다…, 어느 나라에서 나쁜 일들을 많이 하고 그랬으면 그 나라에는 고난이 좀 더 올 거고, 또 거기서 잘하면 고난이 덜 오고, 더 오고 덜 오고 이렇게 연방 아주 질서정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대로라는 얘기죠. 자기가 사는 대로고 자기가 하는 대로, 자기가 한 대로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쓰세요. 꿈을 잘못 꿨다고 '아이고, 이거는 어떡하면 좋은가.' 하지 마시고요. 꿈을 꿨더라도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뭐.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놓으세요. 내 마음이 영이라면, 체가 없다고 한다면, 영을 영에다가 수만 명을 갖다 집어넣어도 영이죠. 갯수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해결을 다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해결도 다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 그 마음이 영이니까. 체가 없는 거니까. 체가 없는 데 다 같이 들어가서 활란하니까.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는데요, 정말 강도질을 하려고 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바지를 계란색으로다가 아주 그냥 싹 빼서 입었어요. 그래 내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이, 남이 겁나게 왜 그럭하고 들어와? 그냥 같이 나누어 쓰자고 들어오면 줄 것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넋을 잃고 물끄러미 쳐다봐요. "아, 앉아요. 난 아무것도 줄 게 없는데 이거나 가져가오." 그러고 시계하고 돈 얼마 있는 거 하고 주니까 날 물끄러미 한참 쳐다보더니 그냥 나가요. "인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없으면, 정히 죽겠으면 낮에 나한테 와요." 그랬어요. 그 뒤에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짓 하는 사람으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한 번 보시하고 마음 한 번 진실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데에 그만큼 상대를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살면서 마음을 그렇게 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신도님들 중에 선생님이 계시는데, 가르치는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그걸 집어넣어 가면서 만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무난하게 아주 잘 자라고 간다지 않습니까. 딴 사람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반 애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반드시 자기를 지킵니다. 내버리니까 지켜요.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안 지켜지지 그냥 '너만이 지킬 수 있어.' 그러고 내버리니까 지키죠.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어, 네가 지키니까….' 하고 말죠. 옛날에요, 절에는 변소가 저 아래쪽에 멀리 있거든요. 근데 인제 밤에 스님이 변소를 가시다가 돌부리에 차여서 엎어졌거든요. 그래서 "얘!" 하고 호법신을 부른 거예요. "너, 왜 나를 이렇게 엎어지게 만들었느냐?" 하니까 "아이, 가시기 전에 좀 귀띔을 하시죠." 그러더라는 거죠. 넘어지기 전에 말이에요.

여러분도 벌써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든가 나한테 뭐가 닥친다든가 내가 일을 하는 게 뭐 어떻게 된다든가 뭐, 감이 오죠. 그러면 그 감 오는 대로 즉시 조치를 취해야죠. 여기서는 조치를 취하는 생각을 하고 또 실천을 하는 거는 그 안에서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살아 주지 않아요. 대신 해 주지 않고요.

부처님이 이 뜻과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진리와 더불어 가르쳐 주신 삶의 뜻을 정말이지 진짜로 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시면, 부모가 그렇게 진짜로 믿고 그렇게 잘 사니까 자식들도 아주 잘돼요. 그런 사람은요, 오기만 해도 "아이구, 오셨어요?" 이렇게 되고 아무 저게 없어요. "너무 뵌 지가 오래 돼서 뵈러 왔죠." 이러면서 뭐 그 사람이 언짢은 일이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길을 자기네들이 닦아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다니는 길만 닦지 마시고 허공에서 우리가 그냥 뛰어다닐 수 있는 길을 닦으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고가 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그래요. 아, 세상에 이따가 죽으면 어떻고 내일 죽으면 어떠냐 이거야. 또 오늘 저녁에 밥을 굶으면 어떻고…. 한 철 살다가, 캠핑 왔다가 가는 셈인데요. 그래서 이따가 죽는대도 회향이 잘될 테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 어떠냐. 또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뭘 걱정을 하느냐. 여기 자기 주인이 있는데, 네?

자기 주인이 다 할 일이지, 주인이 다 돌볼 것인데 종이, 우리 불가에서는 시자라고 그러죠. 주인도 가만히 있는데 시자가 뭘 그렇게 야단입니까. 그래 얼른 쉽게 말해서 주인한테 '주인님' 아니면 '큰스님' 이렇게 해도 좋고요. "이만저만한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냐?" 그러면 되지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속의 참자기는 큰스님이 되고 또 거죽의 자기 몸뚱이는 시자,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사람이 고개를 숙일 줄 모르면 자기를 자기가 승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고개 숙이게 할 줄 알아야만 된다는 얘기죠.
벼이삭도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사람이 권리가 많아질수록
고개는 숙여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야만이 더 지혜롭고 더 풍부해지고
전체 바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수증기로 올라가 정화돼서
하다못해 요만한 벌레, 요만한 풀 한 포기라도
남김없이 다 먹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청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힌트로다 드리는데요, 우리 주지스님이 저기 있지만, 언젠가 어떤 신도가 집을 내쫓기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저녁을 굶었다고 그러면서 육남매나 되는 자식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쌀 두 가마 있는 거하고, 그때는 연탄 땔 땐데 연탄 땔 거하고 그냥 다 줘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 줘 버리면 내일 아침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은 뭘로 하느냐고 해서 "아, 굶으면 어떻고 먹으면 어떠냐. 너 재주껏 해 봐라. 얻으러 다니는 거는 궁핍해서 못써. 부처님이 계시다면 갖다 줄 거고 부처님이 안 계시다면 안 갖다 줄 거니까 알아서 할 거지, 뭐."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줘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근 12시가 됐는데 터덕터덕 하고 차에다 누가 쌀 두 가마를 싣고 왔어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권투 잘하는 사람은 잘 못하는 사람들이 싸울 때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기나 하지 들이덤벼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저 신청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못했으니까 죄를 지었고 너는 요렇게 하니까 죄를 짓고, 넌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랬어요. 무조건 마음을 내 줘라, 무조건! 다 몰라서 죄를 짓는 거지 알면 죄를 짓겠느냐 이거죠.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죄는 없어요. 죄라고 이름을 지어 놨으니까 죄죠. 그러니까 업도 업이라고 해 놨으니까 업이지 그냥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것뿐이에요. 그러니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삶이나 모습이나 권리나 마음의 지혜나 이런 것이 다 포함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으로 살다가 개 모습으로 태어났다면 개 대접밖엔 못 받죠. 그거는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보면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소가 돼서 "아버지! 나야 나야." 하고 아무리 불러 봐도 대답이 없더래요. "음매 음매" 하고 아무리 아버지를 부르고 애원해 봐도 대답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소는 생각하기를 '아, 내가 모습이 달라졌구나. 내가 다시금 사람이 돼서 아버질 보려면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그때서부터 사람의 마음을 조금도 어지럽히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고 알뜰하게 하다 보니까 하루는 도살장에 끌려가는데 아주 신나서 갔대요. 도살장에 가서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지금 의사한테 가서 주사를 맞으면 그냥 안 아프듯이, 그렇게 하고 갔답니다. 그런 얘기를 소가 했다고 할까요? 도살장에 한번 가 보니까 그런 지경에 이르른 소들도 있고 그래요. 난 구경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 '아, 나를 끌고 다니는 내 뿌리가 있구나. 모두가 다 뿌리가 있지 뿌리 없는 나무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도 내 뿌리를 믿어야 되겠다.' 하세요. 오늘부터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꼭 그렇게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꼬아진 사람도 쭉 펴졌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더러 그래요. "스님, 머릴 잘라서 신을 삼아 드려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한 거냐. 네가 전깃줄 하나를 가져왔기 때문에 네 전깃줄하고 내 전깃줄하고 같이 한데 합쳐지니까 불이 들어왔을 뿐이지 내가 한 것도 없고 네가 한 것도 없다. 그냥 부처님이 하셨다고 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에 그렇게 아주 묘하고 광대무변한 묘법을 여러분이 모두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죠. 모든 걸 갖추어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모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할까요?

그러면 오늘 국난 극복과 고에 대한 문제가 다 해명이 됐습니까?

대중: 예.

큰스님: 그것만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국난도 없어질 거고 재난도 없어질 거고 생활 속에서도 편안하고 스무드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또 네 종교 내 종교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라도 싸울 생각 하지 말고 비난할 생각 하지 마세요. 어떤 스님네들, 어떤 종교인들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어도 이것은 사람이 그런 잘못이 없다면 커질 수가 없으니까, 지혜로워질 수가 없으니까, 항상 물이 한군데 고여만 있으면 썩으니까 저것이 바깥으로 튀는 거로구나 하고 생각을 한다면 다 좋을 것을, 그냥 꼬집어서 뜯고 그냥 '저놈은 저렇고 이놈은 이렇고' 이러고 꼬집으니까 그게 뭡니까? 얼마 살다가 가면 또 바뀔 걸 말입니다. 하하하….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8년 12월 13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불자 세상보기

폭력에 속수무책인 사회는 내 탓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성적 때문에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
민의의 전당 국회는 최루탄 연기가
공권력 상징 경찰서장은 폭행 당해
불상생계 수지한 불자부터 자성을"

고3수험생이 성적과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갈등을 빚다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8개월 동안이나 집안에 방치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과연 사실일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반신반의했지만,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대부분의 가정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자 더럭 겁이 났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부모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중고생들의 공부에 대한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OECD 32개 국가 중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25위권에 불과하다. 10대의 자살률도 세계 1위로 알려져 있다. 경제규모 세계 13위인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돌이켜보면 학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아들을 닦달할 수밖에 없었던 죽은 어머니나 일류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아들 역시 우리사회의 학력만능주의가 낳은 비극의 주인공들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 모두에게 결코 돌을 던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절망하게 된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어머니이자 그 아들들임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한결같이 '현재와 같은 입시지옥 환경 속에서는 충분히 일어날만한 일'이라고 진단하고 패륜범죄의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자식은 부모의 대리만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인식한다면 소중하기 그지없는 내 자식이 남의 자식과 비교대상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는 말이 좋은 대학가야 한다는 것과 누구집의 아들딸은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는 잔소리일 것이다. 재수생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필자는 어느 날 아이의 화장실 바닥에 모의소총 탄알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화장실에 들어가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벽에다가 총질을 해댄 결과였다. 진짜 총이 있었더라면 어느 날 밤 아들이 쏜 총에 맞아 죽었을 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부모가 무심코 하는 말이 아이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정말 미처 몰랐다. 이런 경험이 있는 필자는 명문대에 가라고 다그치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을 보고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고 느끼고 또 후회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처한 입시지옥은 조금도 변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죽 답답하면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할 고등학생들이 '대학입시 거부로 세상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이란 것을 만들었겠는가!

이밖에도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갖가지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아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이 최루탄 연기로 뒤덮이는가 하면 서울도심에서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서장이 폭행을 당해도 속수무책인 것이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런 사회현상을 두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문화적 과도기란 말로 애써 자위하던 시기도 이미 지난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남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 해답을 찾아 나설 때가 아닐까? 이런 마음가짐은 비폭력의 상징인 불살생계를 수지한 불자들의 올바른 사회참여자세라고 생각한다.

사부대중 칼럼

세종, 이도를 배우다



정규열
한마음과학원

"TV드라마 '뿌리깊은 나무' 보며
내가 처한 현실 되돌아보게 돼
내 꿈의 방향 · 열정 · 문제의식
모두 부처님 가르침 아닌 것 없어"

한 공중파 방송의 드라마 한 편에 한 주한 주가 길게 느껴지며 사는 요즘이다.

이 글에서 '뿌리깊은 나무'의 역사적 사실성이나 실재성을 논하고 픈 생각은 조금도 없다. 다만 내가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는 이 드라마에서 내 삶을 어떻게 챙겨 나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그 첫 번째 포인트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도 얼마나 혁신과 개혁의 안목을 지닌 채 끊임없이 노력하고 사는가'이다. 세종 이도는 극 중에서 그려지듯이 가장 모진 가시밭길을 자처해 걸어가며 자신에게 주어진 기득권마저 개의치 않고 항상 그 너머의 보다 나은 이상향을 지향하며 살아간다.

두 번째로 비춰보는 거울은 '지니고 있는 꿈과 이상이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향해 가는 가'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대한 목적과 방향성을 지니고 살아간다. 또한 그것을 제대로 세우고자 노력하며 산다. 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보다 나은 대우와 인정을 받거나 보다 풍족한 삶과 환경을 마련하고자 살아간다. 하지만 그것들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리 오래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다. 세종, 이도는 철저하게 백성들에게 가 닿아 있다. 비록 그 백성들이 근시안적 안목으로 자신들을 위하는 임금의 배려까지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세종, 이도는 큰 안목과 비전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설득과 용서, 인내로 백성들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나는 내가 몸 담고 있는 조직에서 하는 일들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누구에게로 가닿는지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본다. 조직의 가치와 비전은 있지만 그것이 추진되고 운영되는 과정과 결과가 낱낱이 어디로 수렴되고 있는지 또한 그 여정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구성원들 모두는 어떤 역할과 소임을 나누어 하고 있는지 등을 비춰본다.

끝으로 '얼마나 몰입하여 온전하게 자기 것으로 일해 나가는가'이다. 일은 누구나 하고 산다.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혹은 존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님 최소한의 호구지책을 위해서라도 모두 일을 하며 산다. 하지만 그 하고 있는 일이 찰나찰나 각자 자신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로 이해되고 새겨지는지는 종종 잊고 산다. 세종, 이도는 자신이 기획하고 연구하고 매진해 나갔던 한글 창제를 위해서 임금으로서 관리자, 책임자의 모습도 보이지만 철저하게 실무자의 마인드와 자세도 보여주고 있다. 온전히 자신의 정과 성에서 비롯된 작품이라는 인식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자의든 타의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소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것들에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떤 에너지로 내 삶을 다시 두들기게 만들고 있는지를 생각해본다.

광화문 광장 한 켠에, 금빛으로 빛나고 있는 600여 년 전의 살았던 한 조상님이 요즘 내 삶과 생활로 뛰어 들어와 좀 더 사람답게, 좀 더 주인답게 살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다. 늦은 저녁 TV 앞에 앉는 마음이 경건해지고 겸손해진다.

두두물물이 모두 부처님의 나툼이고 부처님 가르침임을 믿으며 그 모두를 알고 있는 자성 부처님으로부터의 실천행이 이루어지기를 관해본다.

社說

만일 후의 정토를 기다리며

만일결사가 시작됐다. 11월 26일 이번 결사는 탄허 스님의 정신을 잇고자 시작된 것이다. 결사 동참자들은 '올곧은 마음' '깊은 마음' '대자비의 마음'을 3대 강령으로 삼아 2039년 5월 17일까지 염불 · 간경 · 참선 수행을 한다.

매일 3000번씩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는 염불회, 〈금강경〉을 2번씩 읽는 독송회, 1시간씩 좌선을 하는 참선회는 각각의 실천 수행법을 통해 솥의 세 발과 같이 30년간 불교계를 든든히 지탱해 줄 것이다.

프로그램만 좋은 것이 아니다. 결사의 주체인 금강선원(선원장 혜거)은 5명이 한 팀을 이뤄 한 달에 한번 수행을 살피는 자리를 갖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은 매일 수행을 기록하는 일지를 써야 한다. 결사만 따른다면 2000만 불자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가 수행자가 된다.

이번 결사의 시작에는 우리 시대 대강백이라 할 수 있는 혜거 · 각성 · 무비 스님이 자리했다.

결사를 시작하면서 혜거 스님은 "30년의 만일결사는 스스로 인격자가 되기 위해 수행정진하는 운동이요, 평생 살아갈 지침을 세워 스스로 약속하고 다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비 스님은 발원문을 읽었고, 각성 스님은 〈금강경〉을 강평했다.

만일결사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이 세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의 등불로 삼아, 30년 후 세워져 있을 불국정토에서 또 한 번 부처님 말씀을 환희봉행하기를 고대한다.

동국대 학과구조 개편 신중을

동국대 교정에는 플래카드와 대자보가 늘고 있다. 학과 개편안을 골자로 하는 'RE_START PROJECT' 최종안 발표 때문이다. 문예창작학과를 국문학과로, 북한학과를 정치외교학과로, 윤리문화학과를 철학과로 통합하는 이 프로젝트는 오영교 前 총장 시절부터 진행됐다. 그것이 3월 김희옥 총장의 취임에 맞춰 비전선포라는 형식으로 발표됐다.

CEO식 학교운영에 염증이 컸던 학내 구성원들이 김 총장에 거는 기대는 컸다. 기초 · 인문학에 대한 몰이해도 사라질 줄 알았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눈앞에 둔 학과에선 학과 구조조정은 교육의 상품화라며 반대하고 있다. 학과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커녕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물론 학교 측 입장도 모를 바는 아니다. 하지만, 관련 학과 학생 · 교수 주장대로 학과 통합안의 기준이 취업률 · 재학률에 있다면 분명 시행 전 다시 검토돼야 한다. 만약 아니라면 더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한 교수가 말하길 "사회적 수요가 없다고 학과개편을 추진한다면 향후 어떤 학과가 남을 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세상에 변함없는 것은 없다고 했지만 학생에게 학과는 정체성이요, 학자에게 전공은 신앙과 같다. 이웃종교의 교세와 성화에 밀려 소수자로 전락해가는 불자로서는 남의 일 같지 않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강요받을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교정에 플래카드와 대자보를 붙이며 소란 피는 그들을 마냥 나무랄 수만은 없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5-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도우미]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 법구경 -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용주사 LED 인등


윤장대 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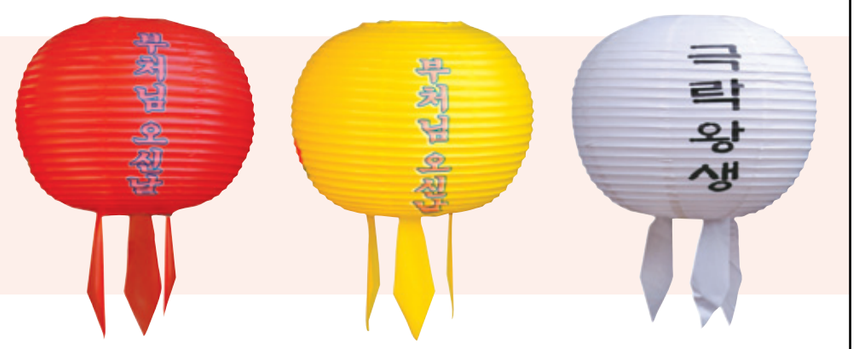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오색공단등


팔각봉축접등

왕생극락접등


주름등


칼라(보카시)연등


공 단 등


영 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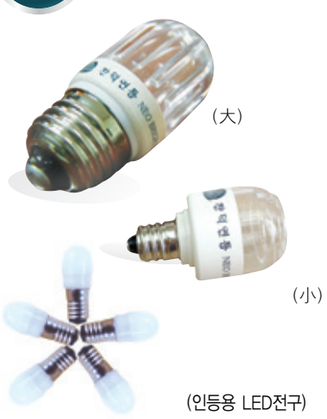

종등


종등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大) (小) (인등용 LED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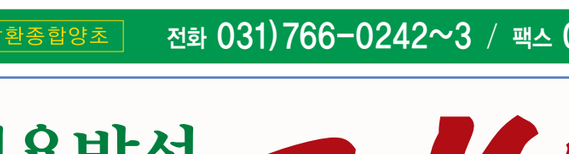


• 칠성기도, 허공기도, 천신기도 세트
바람막이가 씌어 있는 상태
바람막이가 없는 상태
구성 : 스텐레스 받침 1개 / 크리스탈 받침 7개
P.C 컵밀납초 7개 / P.C 바람막이 7개(여분증정)

•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삼환양초







전 사 지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 불자님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기반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